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분석

오 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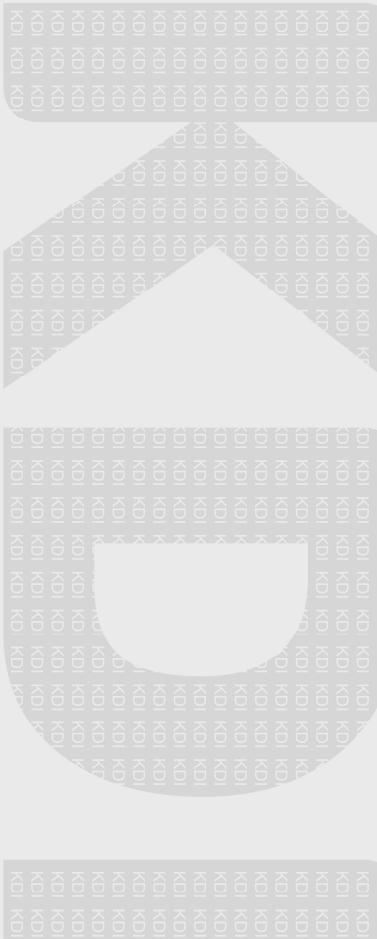
L

7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분석

오윤해



2010년 전후에 서민층의 금융소외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햅살론, 새희망홀씨를 출시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는 2018년 5월 기준 누적 공급량이 36.9조원에 이르며 크게 확대되어 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저금리 상품을 공급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이 민간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지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분석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미이용자 대조군에 비해 신용점수, 고금리 대출액, 카드대출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90%의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햅살론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보

발간사

증비율이 적용된 대출자의 대위변제(90일 이상 연체)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낮아짐을 보여 보증비율 인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서민금융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다. 저자는 특히 신용정보자료를 익명화하여 연구 분석에 제공해 준 KCB경제연구소의 김정인 소장과 박기홍 부장, 그리고 분석과정과 해석에 많은 도움을 준 전혜림 연구원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많은 수고를 한 본원의 한승희 연구원,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검토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9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정표

목 차

발간사

요 약	1
-----------	---

제1장 서 론	7
---------------	---

제2장 선행연구 및 서민금융제도 소개	11
----------------------------	----

제1절 선행연구	11
----------------	----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및 제도	14
----------------------------	----

1. 도입 배경 · 연혁 및 상품 종류	14
-----------------------------	----

2. 제도 관련 쟁점 사항	19
----------------------	----

3. 서민금융 관련 외부환경 변화	20
--------------------------	----

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필요성 고찰	24
-----------------------------	----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및 신용대출시장의 특성 추이	26
---	----

제1절 헛실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 행태 변화	26
---------------------------------	----

1. 헛실론 · 새희망홀씨 상품별 이용횟수 분포	27
----------------------------------	----

2. 헛실론 · 새희망홀씨 상품별 이용자의 행태	28
----------------------------------	----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전후 신용대출시장	36
-----------------------------------	----

1. 서민금융상품의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추이	37
-------------------------------------	----

목차

2. 정책상품 이외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40
3. 서민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	44
제3절 소 결	47
부 록	50
제4장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이용자의 경제적 상태에 미친 영향 분석	5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5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58
1. 계량분석 방법	58
2. 분석자료의 특성	60
제3절 햅살론 이용자의 성과분석	61
1. 기초통계량 및 대조군 비교	61
2.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65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69
제4절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성과분석	75
1. 기초통계량 및 대조군 비교	75
2.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79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83
제5절 소 결	87
부 록	91
제5장 햅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이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111
제1절 문제제기 및 분석방법	111
제2절 PSME-DID 회귀분석 결과	113
1. 기초통계량	113

2. 성과분석 결과	115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117
제3절 소 결	124
제6장 햇살론 보증비율이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건연구)	126
제1절 문제제기	126
제2절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소개	129
1. 연구가설 설정	129
2. 계량분석 모형 및 변수 구성	132
3. 표본 구성과 기초통계량	135
제3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138
1. 기본모형 추정	138
2. 금융기관·근로형태·신용도별 보증비율 조정의 영향 차이	144
3. 강간성 검증	148
제4절 소 결	155
제7장 결론: 종합 및 정책제언	157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57
제2절 정책제언	159
참고문헌	162
ABSTRACT	164

◆ 표 목 차

<표 2-1>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개요	15
<표 2-2>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 추이	15
<표 2-3>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및 평균금리 변화	16
<표 2-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종류 및 개요	17
<표 2-5>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현황	20
<표 2-6> NICE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24
<표 3-1> 햇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출 이용횟수 및 중복대출 비중	27
<표 3-2>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별 인원 및 불량률	45
<표 3-3> 새희망홀씨 공급 전후 연도별 카드 ·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공급액	46
<표 3-4> 미소금융 지점 대출 신용등급별 대출 공급액 비중의 연도별 추이	46
<표 4-1>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62
<표 4-2> 햇살론 이용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	66
<표 4-3> 햇살론 이용이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	68
<표 4-4> 햇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69
<표 4-5> 햇살론 이용이 신용대출 평균금리에 미치는 효과: 신용등급별	70
<표 4-6> 총대출 금리수준별 햇살론 성과분석	71
<표 4-7>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별 햇살론 성과분석	72
<표 4-8>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별 햇살론 성과분석	74
<표 4-9> 연소득별 햇살론 성과분석	75
<표 4-10>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76
<표 4-11>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	79
<표 4-12> 새희망홀씨 이용이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	80

<표 4-13> 새희망홀씨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82
<표 4-14> 신용등급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83
<표 4-15> 총대출 금리수준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85
<표 4-16>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86
<표 4-17> 연소득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87
<부표 4-1> 햄살론이 카드론 잔액, 현금서비스·은행 대출 비중에 미친 효과	91
<부표 4-2> 새희망홀씨가 카드론, 현금서비스·은행 대출 비중에 미친 효과	92
<부표 4-3> 햄살론 이용자 선정 추정식(Logit)의 Pseudo 결정계수(R-square)	95
<부표 4-4> 햄살론 이용자와 각 매칭방식에서 선정된 대조군의 평균 차이	95
<부표 4-5> 새희망홀씨 이용자 선정식(Logit)의 Pseudo 결정계수(R-square)	96
<부표 4-6>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각 매칭방식에서 선정된 대조군의 평균 차이	97
<부표 4-7> (강건성 검정) 햄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98
<부표 4-8> (강건성 검정) 햄살론이 신용 등급·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98
<부표 4-9> (강건성 검정) 햄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2	99
<부표 4-10>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100
<부표 4-11>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100
<부표 4-12>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2	101
<부표 4-13> (강건성 검정) 햄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102
<부표 4-14> (강건성 검정) 햄살론이 신용 등급·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표목차

효과: 매칭방식 3	102
<부표 4-15> (강건성 검정) 햅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3	103
<부표 4-16>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104
<부표 4-17>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104
<부표 4-18>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3	105
<부표 4-19> (강건성 검정) 햅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06
<부표 4-20> (강건성 검정) 햅살론이 신용 등급·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07
<부표 4-21> (강건성 검정) 햅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4	107
<부표 4-22>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08
<부표 4-23>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109
<부표 4-24>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4	109
<표 5-1> 햅살론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114
<표 5-2> 새희망홀씨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114
<표 5-3> 햅살론 대출이 대부업 이용 여부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에 미친 영향 ..	115
<표 5-4> 새희망홀씨 대출이 대부업 이용 여부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116

<표 5-5> 햅살론이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신용등급별	118
<표 5-6> 새희망홀씨가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신용등급별	119
<표 5-7> 총대출 금리수준별 햅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차이	120
<표 5-8> 총대출 금리수준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차이	121
<표 5-9> 신용대출기관 수별 햅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22
<표 5-10> 신용대출기관 수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22
<표 5-11> 연소득별 햅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23
<표 5-12> 연소득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124
<표 6-1> 보증비율 상향 전후 햅살론의 일평균 대출금액 변화	127
<표 6-2>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	137
<표 6-3>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	139
<표 6-4>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4년 내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142
<표 6-5>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친 영향(세부 효과)	145
<표 6-6>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세부 효과)	147
<표 6-7>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 (표본 구성 방식 조정)	149
<표 6-8> 햅살론 보증비율이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I (표본의 시기 조정)	151
<표 6-9> 햅살론 보증비율이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I (표본의 시기 조정)	152
<표 6-10> 햅살론 보증비율 변화가 대위변제 ·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세부 효과: 강건성 검정 I (85% 2011년 9월~2012년 1월 활용)	154
<표 6-11> 햅살론 보증비율 변화가 대위변제 ·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세부 효과: 강건성 검정 II (2013년 9월~2014년 4월 시기 활용)	155

◆ 그 림 목 차

[그림 2-1] 이자율 상한 추이	21
[그림 2-2] 가계대출 금리 추이	21
[그림 2-3] 신용도별 업권 이용분포	22
[그림 2-4] 신용도별 연체율과 금리	22
[그림 3-1] 햄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신용 등급 · 점수 추이	28
[그림 3-2] 햄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평균금리 추이	30
[그림 3-3] 햄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신용대출 이용 추이	31
[그림 3-4] 햄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DTI, 월 카드지출 추이 ..	34
[그림 3-5] 은행 새희망홀씨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37
[그림 3-6] 상호금융 햄살론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38
[그림 3-7] 저축은행 햄살론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39
[그림 3-8] 은행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40
[그림 3-9] 상호금융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41
[그림 3-10]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42
[그림 3-11] 카드 · 캐피털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43
[부도 3-1] 햄살론 ·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 등급 · 점수 추이	50
[부도 3-2] 햄살론 ·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평균금리 추이	51
[부도 3-3] 햄살론 ·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대출 이용 추이	52
[부도 3-4] 햄살론 · 새희망홀씨 다회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DTI, 월 카드지출 ..	53
[그림 4-1]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연소득, 소비지출액 추이	63
[그림 4-2]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DTI(DSR),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이	64
[그림 4-3]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현금서비스 잔액	64

[그림 4-4]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 등급·점수 추이	65
[그림 4-5]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연소득, 소비지출액 추이	77
[그림 4-6]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DTI,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이	77
[그림 4-7]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현금서비스	78
[그림 4-8]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 등급·점수 추이	78
[부도 4-1] 햄살론 이용자와 매칭방식 4 적용 대조군의 평균금리 추이	106
[그림 6-1] 햄살론 취급 금융기관의 연도별 대출 점유비율 추이	127

요 약

본 연구는 KCB 개인 신용정보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햅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고, 보증상품인 햅살론의 보증수준이 채무자의 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 전후에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게는 최고금리 40%에 가까운 신용대출금리가 부과되었으며, 이들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률이 높아 정부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햅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공급해 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의 수정계획을 제시하고,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출시 당시부터 지속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정책 지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정책상품을 공급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이 서민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상품 개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부실률이 높아 상품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햅살론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현재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성과평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기초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채무자의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이용액, 신용점수, 카드대출액, 채무조정 신청 여부 등의 행태 추이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상품 출시 전후의 국내 신용대출시장의 변화 양상을 개괄하였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의 인과적 효과를 보다 염밀히 판별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기법으로 정책상품 이용자와 유사한 미이용자 대조군을 선정하고, 이중차분기법을 통해 정책상품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012년과 2014년에 각 상품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금리, 신용점수, 카드대출액, 채무조정 신청 여부 등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각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의 대부업,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 이용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햅살론의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보증상품 운영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발급시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출 후 1년이 지나면 평균금리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고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차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었으나,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에는 DTI가 상품 이용 1년 이후 70~80%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우려스러운 양상도 나타났다.

또한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리부담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정책상품 공급으로 신용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 비중이 최고금리 인하, 채무조정제도 감면율 인상과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으로 인

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상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의 성과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카드 지출액은 미이용자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 공급이 차입계약을 완화시켜 이용자의 소비수준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새희망홀씨,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 6개월 이후부터 신용점수가 미 이용자에 비해 하락하고, DTI가 증가하는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시점에 금리비용 및 채무조정신청률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양상은 단기적으로만 관찰되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채무자들의 장기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금리수준과 신용대출기관 수별로 정책자금의 효과를 구분하면, 대출 평균금리가 높았던 차주에서 신용대출금리 감소 효과, 신용점수 개선 효과 및 채무조정 신청 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을수록 햇살론 이용에 따른 신용점수 개선 및 채무조정 신청 감소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금리 부담이 높고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가 많아서 채무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높았던 차주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효과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비교하면 평균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나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효과는 연소득이 높은 차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정책자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알선 등과 같이 차주의 소득개선을 위한 지원이 연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대부업 이용률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비중은 발급시점에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햇살론에서는 대출 6개월 이후부터, 새희망홀씨에서는 대출 2년 이후부터 대부업 이용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이용금액이 오히려 미 이용자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의 이용자가 정책

상품 이용 이후에 다시 고금리 대출금액을 늘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신용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준에 총대출 평균금리비용이 매우 높았던 차주일수록 햅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이용 이후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기준에 금리비용이 높아 채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차주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의 분석 결과는 햅살론 보증비율이 낮게 적용될 때 채무자의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더 낮아짐을 나타낸다. 과거 보증비율 85%가 적용된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에 비해 30%p 더 낮았으며,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보증비율이 85%일 때 17%p 더 낮았다. 이를 통해 보증비율 수준이 높으면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노력이 실제로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호금융권보다 대출모집인 기반 저축은행의 햅살론에서 확연하게 더 컸다. 따라서 햅살론과 같은 보증상품에서는 보증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비율 수준이 낮게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처럼 공급실적 위주의 정책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용관리교육 및 신용상담과 결합하여 채무자가 장기적으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출한도에 가까운 큰 금액을 한 번에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여러 차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궁정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서는 대출모집인에게 지불되는 모집수수료를 절감하고 채무자의 상환율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햅살론과 같은 보증상품을 운영할 때는 현재와 같이 95%, 100%의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85%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장

서 론

2010년 전후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였다. 당시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게는 최고금리 40%에 가까운 신용대출금리가 부과되는 등 신용대출시장에 중금리 상품이 부재하였다. 서민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률이 높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다양한 정책상품이 출시되었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등이 제공되는 미소금융, 대환대출 성격의 바꿔드림론, 복권기금과 더불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출연한 보증채원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인 햅살론, 은행의 자체 수익 내에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가 대표적인 4대 서민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이들 상품은 서민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해 왔으며, 현재 중단된 바꿔드림론을 제외하고는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¹

한편, 2018년 12월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재원 및 상품 운영방식의 수정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18. 12. 21).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햇살론 17’이 출시되어 17.9%

¹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4대 상품의 누적 공급량은 357.6만건, 36.9조원에 이르렀다(금융위원회, 2018. 12. 21).

의 높은 금리로 시작해서 상환 실적에 따라 금리가 감소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부과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증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책성 서민금융의 추가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출시 당시부터 지속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책 지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기를 늦추고 채무규모만 확대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낮은 금리와 높은 보증비율의 정책상품이 시장에 제공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상품을 개발·제공할 유인이 낮아지고, 서민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및 사전심사 역량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구정한·이규복·이수진(2016)이 서민금융 대출 전후 1년간의 행태 변화를 추적한 바 있으나, 대조군과 비교한 엄밀한 성과분석은 아니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은 연체율이 높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햅살론의 경우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현재 대위변제율 수준이 상당히 높아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CB 신용정보회사의 차주 단위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햅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증상품인 햅살론의 보증수준이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및 대위변제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와 신용대출시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 온 추이를 살펴본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2012년, 2014년, 2016년에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들의 특성이 대출 직전 7개월과 대출 이후 4년까지 장기간 동안 변화해 온 추이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또한 햅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출시되기 전후의 신용대출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한다.

그런데 기초자료 분석에서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경제적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제도 및 시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염밀한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대조군과 상품 이용자의 행태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성향점수 매칭-이중차분 기법을 활용하여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이 상품 이용자의 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무작위배정법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염밀한 평가방식이지만, 실제 정책수혜 대상이 무작위 배정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2012년과 2014년에 햅살론,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가 미이용자에 비하여 이자비용, 신용도, 제도권 금융에의 접근성, 소비수준, 채무조정 신청의 변화 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또한 정책효과가 저신용 여부, 기존 대출의 금리수준 및 신용대출기관 수, 연소득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새희망홀씨와 햅살론 등의 정책성 저금리 신용대출상품 대출시점에 평균금리 수준,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낮아지거나, 카드 월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궁정적 효과의 지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최근 시점인 2016년 9~11월에 햅살론,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대부업 이용확률,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액 및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신용도 및 기존 금리수준별로 상이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

의하였다.

본 연구의 제6장에서는 보증부 상품인 햅살론에서 보증수준이 낮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담 수준이 더 높을 때 햅살론을 이용한 채무자가 사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햅살론 장기 연체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은지 분석한다. 해당 분석은 햅살론의 보증비율이 2012년에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되고, 이후 2014년 근로자 대출의 보증비율이 90%로 재조정된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사건연구 회귀분석 방식으로 분석한다. 또한 햅살론 보증비율이 차주의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권보다 보증비율 상향 조정에 강하게 반응하여 햅살론 취급량을 급격하게 확대한 바 있으며, 저축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에서 보증수준에 반응하는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연구가 설과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제3장은 기초자료 분석으로 햅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행태 변화 및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추적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기법 PSME-DID(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 Difference-in-difference)로 햅살론과 새희망홀씨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햅살론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 ·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제7장에서 요약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

선행연구 및 서민금융제도 소개

제1절 선행연구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책이지만, 해외의 유사한 사례로 소액금융(microcredit)을 들 수 있다. 소액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의 소액금융기관(MFI)에서 제공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나타난 경제적인 변화를 대출을 공급받지 못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성과를 분석한다. 또한 대조군을 설정하는 방식은 보다 엄밀한 성과평가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무작위 배정방법(randomized control treatment: RCT)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Ariful, Atanu, and Ashiqur(2017)는 방글라데시의 소액금융기관을 이용한 3,000명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소액금융 이용이 가구소득, 지출, 저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Duflo, Banerjee, Glennerster, and Kinnar(2013)은 인도 슬럼 지역 중 RCT 기법을 적용하여 채택된 지역에 소액금융기관(MFI)을 신설한 후 18개월 및 3~4년 후의 장기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8개월 이후에는 MFI가 신설된 지역의 주민이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이 8.8%

더 높았다. 그러나 창업률에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사업에 대출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1인당 지출금액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소비, 즉 ‘temptation goods’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MFI 신설 후 3~4년 이후에는 MFI가 신설된 지역의 주민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대출접근 가능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대출기간이 길어지고 대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소비, 사업 수익성 및 건강, 교육, 여성에의 동기부여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공된 소액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며, 주로 대출자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연체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미국에서 4개의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소액금융 이용 대출자의 정보를 분석한 Bhatt and Tang(2002)은 소액대출과 관련한 거래비용이 적을수록, 대출 상환과 부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을수록 연체확률이 더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 소액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구도 미소금융 및 햅살론 이용자의 연체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오윤해(2013)에서는 미소금융 이용자 원자료를 이용하여 금리수준이 1~2% 인상되어도 연체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금 공급 전에 제공된 경영컨설팅이 연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소금융 이용자와 햅살론 이용자를 비교하여 단기연체가 장기연체로 전환되는 이행률이 햅살론에서 더 유의하게 높음을 보이고, 보증상품인 햅살론에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수준이 더 낮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진배 · 김명록(2017)은 신협에서 발급된 햅살론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햅살론을 제외한 다른 대출액 규모가 많을수록 연체확률이 낮으며, 햅살론 대출액이 많을수록 연체확률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윤상용 · 강만수 · 손희영(2017)은 2010년 7월 26일에서 2013년 12월까지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관측하였을 때 보증사고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생존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자들은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햅살론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며 보증금

액과 연간 소득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에서는 업력이나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사업주의 연령이 높거나, 남성일수록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경제여건 변화를 분석한 부분은, 분석기법은 다르지만, 소액금융의 효과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Duflo, Banerjee, Glennerster, and Kinnar(2013)과 유사하다. 물론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는 RCT 기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더욱 엄밀한 방법이지만, 개발도상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책을 제공하는 데 RCT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OECD 국가에서 소액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험군과 최대한 비슷한 성격을 나타내는 대조군을 매칭기법으로 찾아서 분석하는 PSME-DID의 기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햇살론 보증비율이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부분은 윤상용·강만수·손희영(2017)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채무조정 신청확률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있다. 또한 윤상용·강만수·손희영(2017)은 보증비율이 변화한 지 1년 반도 되지 않은 시점의 연체정보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3년, 5년으로 설정되는 햇살론 상환기간의 완료 이전 시점에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거치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도절단의 문제가 더욱 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환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위변제 여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있다.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및 제도

1. 도입 배경 · 연혁 및 상품 종류

2010년을 전후로 서민층의 금융소외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융당국은 여러 종류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상품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출시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주력하면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매우 높은 금리를 부과하던 관행이 있었다. 당시 금융기관은 고신용등급에는 저금리 신용대출을 풍부히 공급하는 반면, 중·저 신용자에게는 이자 상한인 40%에 가까운 수준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었고, 이에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공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미소금융(2008년), 바꿔드림론(2008년), 햅살론(2010년), 새희망홀씨(2010년)의 상품을 출시하였다. 현재 공급이 중단된 바꿔드림론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특성은 <표 2-1>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먼저 미소금융은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소액대출(Micro-credit) 사업이며, 영세사업자에게 창업·운영 자금과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미소지역재단, 기업·은행 재단, 전통시장상인회 등에서 자금을 공급하며, 휴면예금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을 거쳐 2014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재원 등을 관리하고 있다.

햇살론은 정부의 복권기금과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으로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신협을 포함하는 상호금융에서 취급한다. 근로자 대상 햅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자 대상 햅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재원

을 관리하고 있다. 보증비율은 85%로 시작되었으나, 2012년 8월에 95%로 인상된 이후 근로자 대상 보증비율은 2014년 1월 현재 90%로 유지되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각 은행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서민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공급하는 은행 자체의 서민금융상품으로, <표 2-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급액과 지원대상이 가장 많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였던 바꿔드림론은 보증 100%의 고금리 전환대출상품으로, 현재 폐지된 후 ‘안전망대출’로 보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시혜적 성격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저신용등급 및 저소득자로 한정하고 있다. <표 2-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도가 나쁠수록

<표 2-1>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개요

상품명	용도	공급채널	금리	지원요건
미소금융 (2008년 출시)	창업·운영	미소법인, 민간 등	4.5%	차상위계층 또는 6등급 이하
햇살론 (2010년 출시)	생계사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진흥원/지신보 보증)		6등급 이하 (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등급과 무관하게 소득 3,500만원 이하
바꿔드림론 (2008년 출시)	대환	은행 (행복기금 보증)	10.5% 이내	
새희망홀씨 (2010년 출시)	생계	은행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2018. 12. 21, p.5.

<표 2-2>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 추이

	(단위: 천억원)					
	'13년 중	'14년 중	'15년 중	'16년 중	'17년 중	누적(~18년 6월)
미소금융	2.6	3.2	3.8	4.2	4.6	28.2
햇살론	19.7	19.3	22.1	22.1	33.5	155.4
바꿔드림론	6.2	2.1	1.2	1.3	0.7	26.9
새희망홀씨	19.0	19.6	19.6	22.7	30.0	164.8
합 계	47.5	44.2	46.7	50.3	68.8	375.3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2018. 12. 21, p.5.

<표 2-3>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및 평균금리 변화

	당 초	현 재
미소금융	• 차상위계층/7등급 이하 (금리 4.5%)	• 차상위계층 / 6등급 이하 (금리 4.5%)
햇살론 · 바꿔드림론	• 6등급 이하 & 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2,600만원 이하(금리: 햇 살론 13%, 바꿔드림론 21% 이내)	• 6등급 이하 & 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 3,500만원 이하 (現 금리 10.5% 이내)
새희망홀씨	• 5등급 이하 & 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3천만원 이하(금리 19% 이내)	

주: 2014년 1월 정책상품 지원기준을 통일할 당시에는 6등급 이하 & 소득 4천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자격기준이 적용되었음.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2018. 12. 21, p.6.

‘새희망홀씨 → 햇살론 → 미소금융’의 순으로 상품을 차별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원대상도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자격기준이 복잡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상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의 기준을 통일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차주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기준도 일부 상향 조정하였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신용이 양호한 6~7등급에 혜택이 집중되어 2016~17년 중 4대 상품을 이용한 차주 중에 6등급 이상이 약 61.9%를 차지하는 반면, 8등급 이하 차주의 비중은 9.2%에 불과하여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다 (금융위원회, 2018. 12. 21).

2019년 9월에 은행권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햇살론 17’이 출시되었는데, 17.9%의 다소 높은 금리로 시작하는 반면, 성실 상환을 유지할 경우 금리를 하향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상환유인을 높여 설계되었다. <표 2-4>에는 현재 국내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민금융의 종류와 공급방식 및 금리 등이 소개되어 있다.

<표 2-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종류 및 개요

주체	구분	상품명	방법	대상	지원현도	대출기간	금리
미소금융 자립대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소금융 사업자금대출 1년 이상 성실상환자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최대 5년 최대 5년 최대 5년 최대 4년	4.5% 4.5% 4.5% 4.5%	
전통시장상인대출 대학생·청년햇살론		서민금융전통원 협약 신용회복 31세 대학생 및 청년 신용등급 6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12백만원	최대 2년 2개월 최대 7년 (필요시 6년 이내 거치)	4.5% 4.5%		
미소금융 사업 금융취약 계층	대출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 취업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취업성공파키지 또는 진흥원 취업프로그램 수강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기구 전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 지원자금 지원대상 중 85㎡ 이하, 임차보증금 29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거주자 취약계층 지원자금 지원대상 중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3백만원 5백만원 12백만원 12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최대 3년 최대 5년 (필요시 1년 이내 거치) 최대 5년 (필요시 1년 이내 거치) (최대 4년 연장)	4.5% 4.5% 3% 2.5%	
서민 금융 진흥원	보증	생계자금 긴급생계 대환자금	6~10등급(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군 필자의 경우 31세)의 청년·대학생	15백만원 5백만원 3천만원	3~5년 이내 1년 이내 (최대 2년 연장)	10.5% 10.5% 4.5%	
그로자 햇살론		비꿔드림론 인전명대출	6~10등급(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9개월 이상 신용회복/비꿔드림론 성실상환자 또는 24개월 이상 개인회생 성실상환자/3년 이내 상환완료자	3천만원 2천만원 3백만원~ 15백만원	(급여소득자 등) 5년, (영세자영업자) 6년 최장 10년 9개월~최대 36개월	10.5% 12~24% 3~4%	
국민행복 기금	대출	소액대출					

<표 2-4>의 계속

주체	구분	상품명	방법	대상	지원한도	대출기간	금리
민간사업 수행기관	미소금융 기타 사업	창업지원 신용회복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대출	저신용·저소득 저영업자 9개월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또는 3년 이내 상환완 료자	7천만원 1천만원	최대 5년 최대 5년	3~6.5% 4%
		인증·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전통시장 지원	대출	인증·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	1억원	최대 5년	3~4%
지자체	지역신용 보증재단	창업자금 운영자금	보증	6~10등급(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저영업자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최대 2년 5년 이내	4.5% 이하 10.5% 이하
		대학생·청년 핫살론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처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기선자금	보증 대출	대학생, 29세 이하 6~10등급(4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청년 9개월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및 24개월 이상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또는 3년 이내 상환완료자	12백만원 15백만원	5년 이내 5년 이내	5.4%
은행 장관다리론	사회망홀씨	대출	6~10등급(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3천만원	5년 이내	6~10.5% 이하	
		대출	4대 정책상품 중 어느 하나를 완제 또는 성실히 상환* [* ① 신청일 현재 또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② 사회망홀씨, 핫살론 대출 금액의 75% 이상 상환]	3천만원	5년 이내	9% 이내	
은행 + 통합지원 센터	안전망대출 햇살론 17 (2019년 9월 출시)	대출 보증	2018. 2. 8. 이전에 실행된 연 24% 초과 고금리대출 중 고객 중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 고객 6~10등급(45백만원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2천만원 7백만원(특례보 증 1천4백만원)	최장 10년 3년 또는 5년	12~24% 17.9% (설립상환우대)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접속일: 2019. 12. 1) 정보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제도 관련 쟁점 사항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일인가?’ 하는 지원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서민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도록 하여 부채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이외의 신용대출은 금리가 더 높으므로 제도 이용자들이 상품 이용자격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신용등급을 개선하려 노력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두 번째 비판은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이 시장에 제공되면 서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유인이 낮아져 민간 서민금융시장이 구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지적이다. 즉, 시장과 정책상품 간의 불분명한 역할 분담으로 인해 민간 서민금융시장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하여 점차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차주에게 정책자금의 지원이 집중되고,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자금공급 실적을 확대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저신용층에 선별적으로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정책대상에의 전달경로가 더욱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부실이 높아 연체가 누적되면서 상품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햅살론의 경우에는 <표 2-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햇살론 보증재원’ 중에서 복권기금의 출연이 2020년에 종료될 것이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출연금은 총 9,000억원에 이르면 종료될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업권으로부터 햅살론 보증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보증재원 등 상품운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표 2-5>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현황

(2017년 공급실적)		재 원	현 황
미소 금융	기업 · 은행 재단 (2,739억원)	기업 · 은행 기부금	- 기업의 잔여 기부금 납입을 위해 협의 필요 (은행권은 납입 완료)
	지역법인 (1,186억원)	일반 기부금	- 사실상 종료(개인 기부금만 소액 유입)
	민간 사업수행기관 (647억원)	휴면예금 이자수익	- 휴면예금 출연규모 감소
햇살론	근로자햇살론 (29,800억원)	복권기금, 햇살론 취급 기관 출연금	- 복권기금(2016~20년, 8,750억원) 종료 - 금융기관 출연금 한시적(한도 9,000억원)
	새희망홀씨 (29,991억원)	은행 재원	-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 협의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2018. 12. 21, p.35.

3. 서민금융 관련 외부환경 변화

앞서 소개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2010년 전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간 국내 금융시장에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계층의 채무구조와 상환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및 채무조정제도의 원금감면율 인상과 같은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 및 사금융 이용실태를 간략히 소개한다.

가. 제도 변화

1) 이자 상한 하향 조정

최근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서민의 금리부담도 완화되고 있다. 2010년 7월 2.25%였던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3.25%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 10월에는 1.2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와 함께 대부업법에 정의된 이자율 상한을 여러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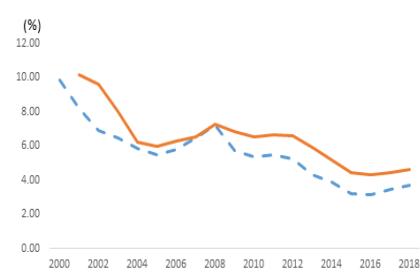
례 큰 폭으로 인하한 제도 변화도 서민의 금리부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같은 금리 상한에 가까운 수준에서 금리를 설정하는데, 2010년 7월 정책서민금융이 출시되던 시기의 최고금리는 44%에 달하였다. 이렇듯 고금리의 대출 이용은 이자부담이 높고 서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위적으로 나마 금리를 낮추어주는 정책상품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그림 2-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0년 7월에 최고금리가 44%로 5%p 감소한 아래로 2011년 6월에 39.9%, 2014년 4월에 34.9%, 2016년 3월에 27.9%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최근 2018년 1월에는 24%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그 결과, [그림 2-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 가계대출 및 소액대출의 평균적인 금리수준도 낮아지게 되었다.

이렇듯 최근에는 최고금리 인하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인해 2010년에 비해 중·저 신용자의 금리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가 이미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금리의 상한이 인하되면서 연체위험이 이자 상한보다 높은 채무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2-1] 이자율 상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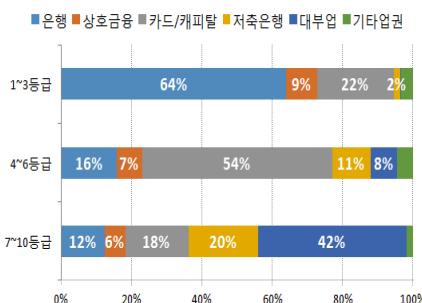


[그림 2-2] 가계대출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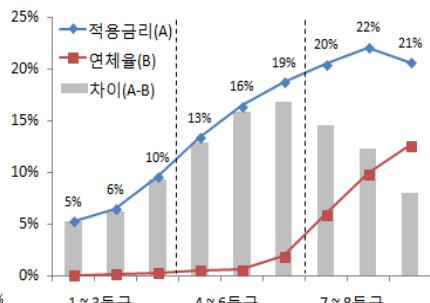


자료: 『한겨레』(2017. 8. 16), 구자현·오윤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구자현·오윤해·강우진(2019, p.110)에서 재인용.

[그림 2-3] 신용도별 업권 이용분포



[그림 2-4] 신용도별 연체율과 금리



주: 2017년 중 신규대출 기준, NICE 평가정보 및 KCB 추정금리를 이용함.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2018. 12. 21, p.14.

한편, 2017년 기준 신용도별 업권 이용분포를 나타낸 [그림 2-3]을 살펴보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업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같은 시기의 신용등급별 금리부담과 연체율 수준을 나타낸 [그림 2-4]에 나타나듯이 중신용등급에서는 실제 연체율과 적용 금리 간의 차이가 높게 유지되어 이들이 자신의 신용위험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제도의 감면율 상승

국내에는 여러 채무조정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채무불이행자들이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또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신용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원금을 감면받고 상환계획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통합도산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원금

감면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기존에는 원금감면이 되지 않던 상각 채권에도 감면이 적용되었고, 비상각 채무에 대한 감면율도 조정되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가 신용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상환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연체 발생 시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손해율을 더 높여 금융기관이 연체위험이 높은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을 꺼리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율 상한의 하향 조정과 채무조정제도의 감면율 인상이 결합되면 금융기관의 신용할당 현상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고금리 시장의 동향

1) 대부업 시장

제도권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관은 대부업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 먼저 아프로파이낸셜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영업을 축소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²

또한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표 2-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저신용자의 대형 대부업자 이용 수와 대출금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자금 공급 혹은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로 인해 서민의 금리부담이 경감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부업의 신용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² 산와대부의 신규대출은 2019년 3월 이후 중단되었으며, 아프로파이낸셜·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2024년에 폐업할 예정이다(구자현·오윤해·강우진(2019)에서 재인용).

<표 2-6> NICE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단위: 천명, 억원, %)

신용 등급	2016년 12월 말		2017년 12월 말		2018년 12월 말		인원	비중	대출금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대출금				
1~3	0.02	0.0	1	0.02	0.0	6	0.01	0.0	1
4~6	363	23.3	32,884	401	25.1	38,955	403	27.6	38,566
7~10	1,193	76.7	95,255	1,197	74.9	103,784	1,055	72.4	89,223
계	1,556	100	128,140	1,598	100	142,745	1,458	100	127,790

주: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2016년 12월 말 90개, 2017년 12월 말 89개, 2018년 12월 말 81

개(금전대부업자 65개, 매입채권 추심업자 21개) 회원사의 대출 정보).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9. 7. 2, p.11.

2) 사금융 이용 현황

한편, 2018년 금융감독원의 표본조사를 통한 사금융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사금융 시장의 이용 규모 및 이용자 수 등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금융감독원, 2019. 12. 10). 이 조사는 국민 5천명을 표본으로 하여 전체 국민의 사금융 이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말의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 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체 가계신용 대비 사금융 이용금액의 비중은 2017년 말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정된 사금융 이용자 수는 41만명이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7년 말의 51.8만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서민의 사금융 이용이 대부업 이용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필요성 고찰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종합하면, 2010년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도입된 이후로 이자 상한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과거에 비해 서민의 금리부담이 감소하였다. 또한 대부업체의 수와 이용자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제도도 채무자 편의적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채무자가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예전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아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리수준의 하향 조정, 대부업체 수감소, 채무조정제도의 감면을 인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을 더욱 꺼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경기부진과 결합되면 서민의 금융소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완전히 철수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및 신용대출시장의 특성 추이

본 장에서는 KCB 자료상에 나타난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대출 전후 상태 변화를 추적한 후,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출시 전후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개괄한다. 이를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시장 및 대출자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1절 햅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행태 변화

본 절에서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각 상품을 이용할 당시의 환경과 이후의 상태 변화를 추적한다. 해당 분석을 위해 KCB 신용정보회사에서 비식별 처리 후 연구자에게 제공한 ‘KCB 저신용 · 저소득 차주 표본 Data Base’(이하 KCB 저신용 차주 DB, 획득일: 2019. 11. 1)를 활용하였다. 해당 표본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2011~18년 기간의 월별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1. 햅살론 · 새희망홀씨 상품별 이용횟수 분포

<표 3-1>은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 중에서 각 상품을 이용한 횟수와 다른 상품을 중복해서 이용한 비중을 나타낸다.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자 모두에서 70% 이상의 대출자들이 2011~18년 기간 동안 각 상품을 1회만 이용하였으며, 2회 이상 동일 상품을 이용한 비중은 30% 이내였다.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모두 이용한 대출자는 2012년에 각 상품별로 0.4%, 0.3%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4.2%, 3.4%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대출자에게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2011~18년 기간 동안 각 상품을 1회만 이용한 대출자의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이 중에서 2012년, 2014년, 2016년 4~11월에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의 행태 변화를 [그림 3-1]~[그림 3-3]에 나타내었다. <부록>의 [부도 3-1]~[부도 3-4]에서는 각 상품을 2회 이상 이용한 대출자를 별도로 구성하여 행태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데, 1회 이용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1> 햅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 대출 이용횟수 및 중복대출 비중

(단위: %)

대출 연도	햇살론 이용자의 대출횟수 분포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출횟수 분포			
	1회	2회 이상	+ 새희망	+ 바꿔드림	1회	2회 이상	+ 햅살론	+ 바꿔드림
2012	76.4	23.6	0.4	0.1	76.5	23.5	0.3	0.0
2014	75.1	24.9	2.4	1.0	71.8	28.2	1.4	0.1
2016	76.2	23.8	4.2	1.6	70.2	29.8	3.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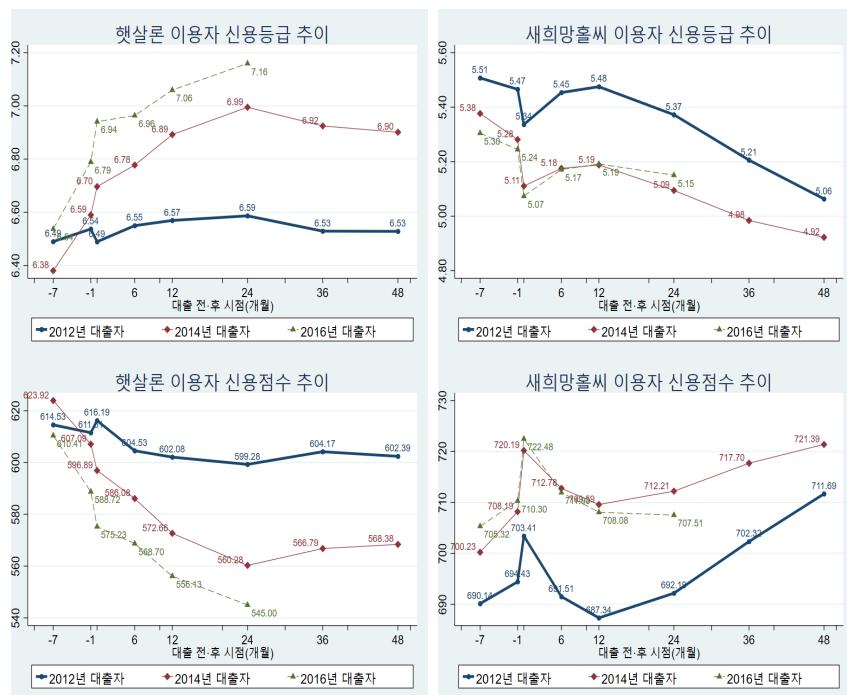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햄살론 · 새희망홀씨 상품별 이용자의 행태

가. 신용 등급 · 점수 추이

[그림 3-1]은 햄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 전후에 각 상품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변화해 가는 추이를 보여준다. 신용등급은 숫자가 커질수록, 신용점수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신용도가 악화됨을 뜻한다. 2014년과 2016년에 햄살론을 이용한 대출자들은 대출 직전 신용 등급 및 점수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햄살론 이용 직전 대출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키며 채무구조를 악화하고 있었음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이용자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림 3-1] 햄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 신용 등급 · 점수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는 햅살론 기준 CSS 등급상 저신용의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채무자들이 인위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2012년 햅살론 이용자의 신용 등급 및 점수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2014년과 2016년 이용자들의 신용도는 햅살론 이용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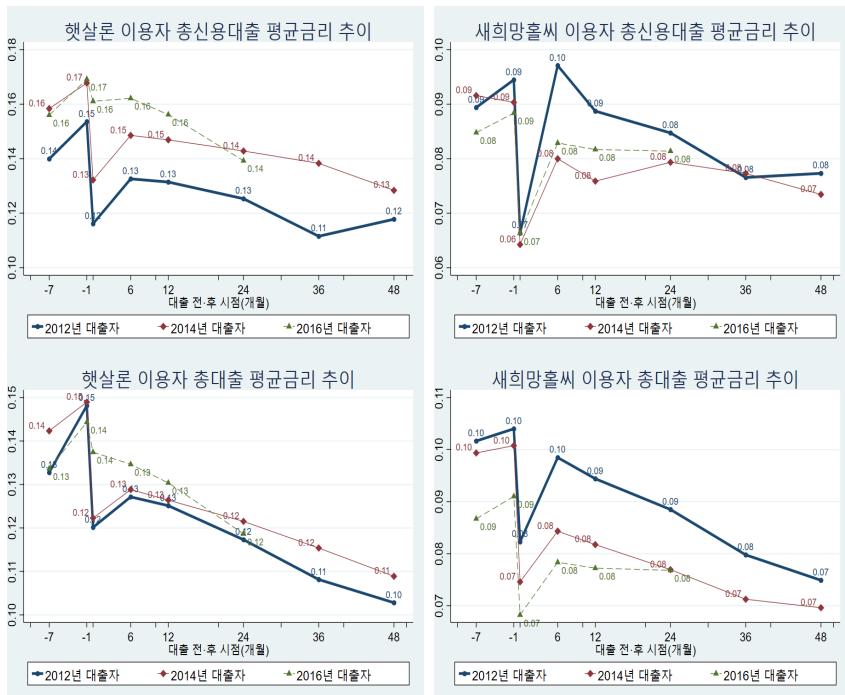
반면,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경우 새희망홀씨 이용 직전에 신용 등급 및 점수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새희망홀씨를 통해 고금리 대출구조를 개선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희망홀씨 이용 1년 이후 신용도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대출자들이 은행의 새희망홀씨 발급 심사에 통과하기 위하여 심사 직전에 인위적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개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평균금리

[그림 3-2]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신용대출 및 총대출의 평균금리 수준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대출 발급시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상품을 이용하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과 2014년에 햅살론을 이용한 대출자는 햅살론 이용 직전 대비 발급시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4%p 하락하였으며,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2~3%p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출 6개월 후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신용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담보대출을 포함한 총대출의 평균금리는 신용대출의 평균금리 수준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신용대출의 평균금리 변화 양상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특이한 점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자의 평균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는 2012년 이후에 발급받은 대출일수록 평균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햅살론 이용자에서는 대출연도가 늦어질수록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높아지고

[그림 3-2] 햅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평균금리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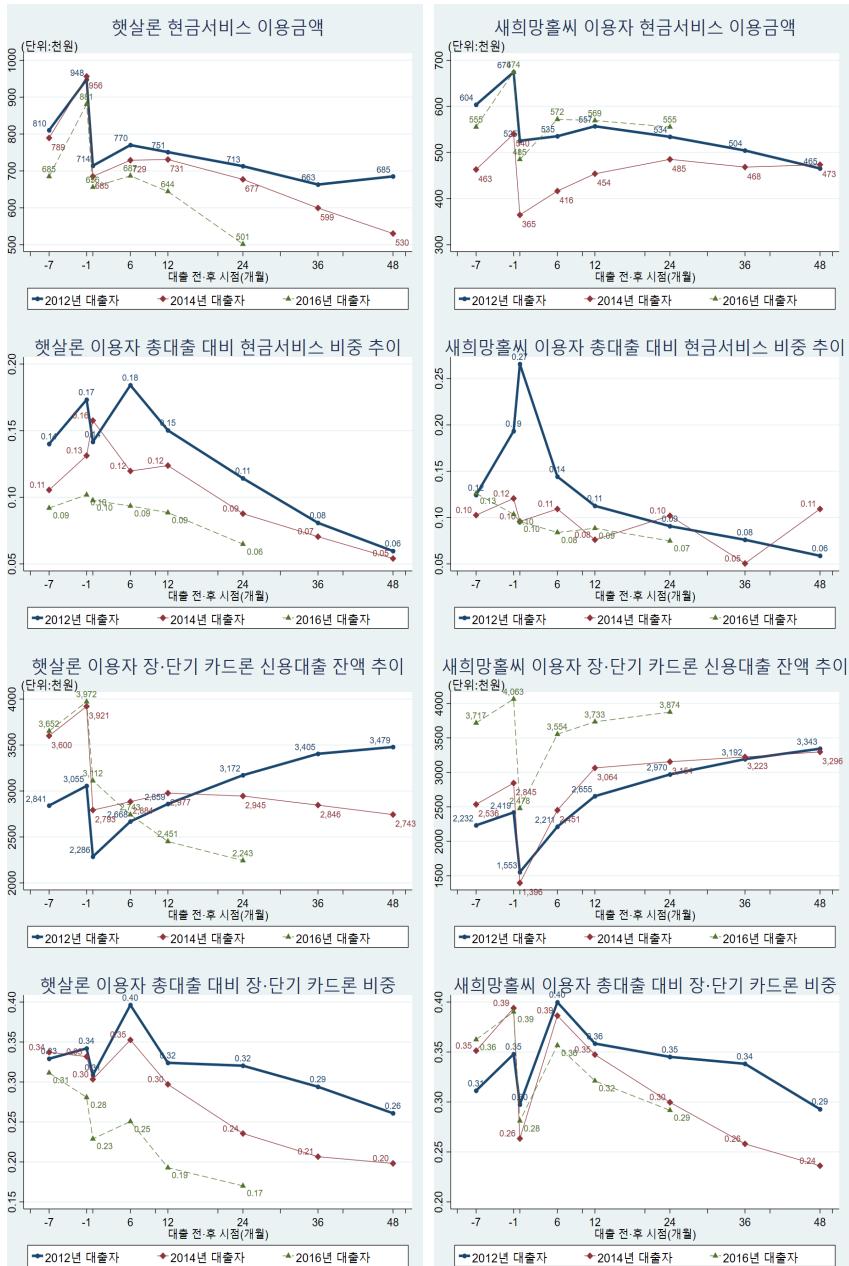
또한 2016년에 햅살론을 이용한 대출자에서는 발급시점의 평균금리가 이전에 비해 인하하는 정도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햅살론의 대환대출 대위변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대환대출 발급 비중을 줄이면서 햅살론 평균 대출액수가 감소한 시장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신용대출 이용금액 추이

1) 현금서비스

[그림 3-3]은 카드 관련 신용대출의 잔액과 비중을 나타내며 첫째, 둘째

[그림 3-3] 햄살론 · 새희망홀씨 이용자 신용대출 이용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행은 신용카드의 단기 대출인 현금서비스를 나타낸다. 현금서비스는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이며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상품 대상자들은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신용관리 및 금리비용의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상품 이용 전 7개월간 현금서비스 잔액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이나, 정책상품 이용시점에 현금서비스 이용 잔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양상을 나타낸다. 햇살론 이용자는 평균 87~93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햇살론 이용시점에서 25만 원 내외만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직전 월에 평균 54~67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15~20만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햇살론 이용자 중에서 2012년 이용자는 이후 현금서비스 이용 잔액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2016년 이용자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현금서비스가 총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의 햇살론 이용자와 2012년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정책상품 이용시점에는 1개월 전에 비하여 현금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정책서민금융 자금으로 현금서비스보다 고금리인 사채 및 대부업의 대출을 상환하여 현금서비스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장·단기 카드대출 합

신용카드의 장기 대출인 카드론은 현금서비스보다 다소 낮은 금리가 설정되나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금리를 설정한다. [그림 3-3]의 셋째 행은 햇살론·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합한 카드대출 잔액의 변화를 나타낸다.

2012년 햇살론 이용자와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카드대출 총합을 정책서민자금 이용시점에는 감소시켰지만 6개월 이후부터 다시 증가시켜 2년 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고금리인 단기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을 줄이는 대신 장기 카드론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총대출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은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전체 카드대출의 비중은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14년과 2016년, 특히 2016년에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드대출을 줄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햅살론 대출자들이 자발적으로 고금리 카드대출 대신에 다른 형태의 대출을 이용한 것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햅살론 대출 이후 신용등급의 악화 등으로 장기 카드대출 심사에서 거절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총대출 대비 카드대출 비중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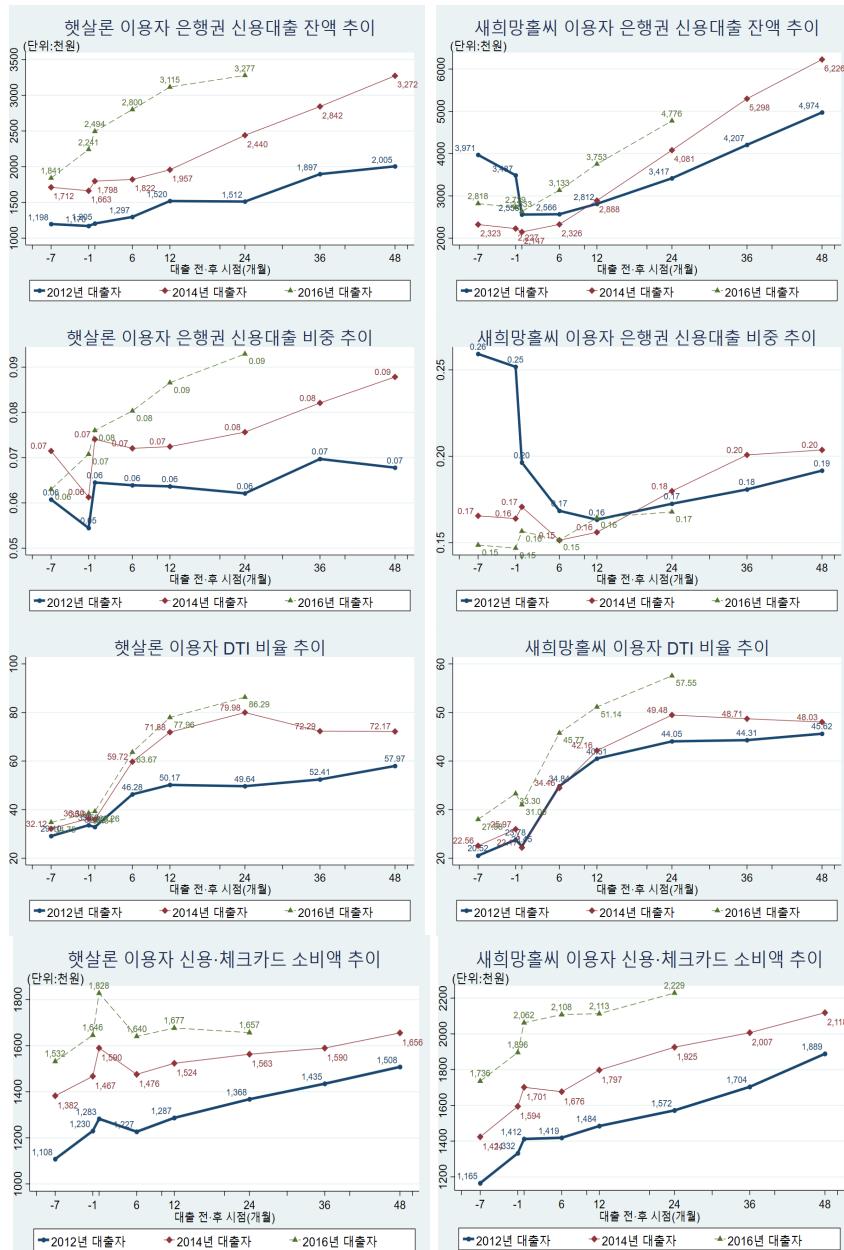
한편, 2016년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카드대출 총합은 정책상품 이용시점과 이후에도 다른 연도 상품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햅살론 이용자의 카드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라. 은행 신용대출, DTI 추이

1) 은행 신용대출 잔액 추이

신용대출 중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가 가장 낮으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은행권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림 3-4]의 첫째 행은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의 추이를 나타낸다. 2012년과 2014년에 햅살론을 이용한 대출자들은 햅살론 이용 직전 7개월에 비하여 직전 1개월까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다소 감소시켰다. 그러나 햅살론 이용시점에는 이들의 은행 신용대출이 10만원에서 14만원가량 크게 증가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햅살론 이용자들의 제도권금융 접근성은 상품 이용 이후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헛살론·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DTI, 월 카드지출 추이



주: 은행권 신용대출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나타냄.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4년 햅살론 이용자가 2012년 이용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높아진 것은 2014년에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평균적인 신용도와 소득수준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에 기인할 것이다. 그런데 2016년 햅살론 이용자들의 은행 신용대출은 햅살론 대출 7개월 시점부터 이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햅살론 이용 이후에도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2016년 이후 사잇돌 대출이 출시되어 은행권에서 공급되는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된 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과 2016년에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들은 대출시점에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조금 감소했다가 이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2012년 새희망홀씨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새희망홀씨 이용시점에서 은행 신용대출의 평균 잔액이 더 높은데, 이는 2012년 새희망홀씨 지원자격의 기준이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더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2년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경우 새희망홀씨 대출시점에 다른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92만원가량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 DTI(DSR) 추이

[그림 3-4]는 KCB에서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구성한 DTI(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 비중으로 실제로는 채무자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DSR(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중)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행에 나타난 DTI를 보면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 햅살론 발급 시기부터 1년 사이에 DTI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12년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에는 햅살론 이용 이후 DTI 수준이 50%대로 유지되는 반면, 2014년, 2016년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70~80% 내외로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함에 따라 서민의 대출접근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DTI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것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정책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경우 상품 이용 1개월 전에 비하여 새희망홀씨 이용시점에는 DTI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대출 이후 1년 이내 크게 증가한 이후 다시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상품 이용 이후 DTI는 40~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3) 월 카드지출액 추이

[그림 3-4]의 네 번째 행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월 카드지출액 평균을 보여준다. 두 상품 이용자 모두에서 소비지출액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책자금 이용 직후 카드지출액이 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소비 증가 요인이 있었던 특정 시기에 차주들이 정책자금을 이용하였거나, 정책자금으로 인해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대출연도가 늦을수록 카드지출액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이 높은 차주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격기준이 변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전후 신용대출시장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된 이후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세 시점을 선택하여 각 시기별로 일반 신용대출시장과 정책서민금융상품시장에서 공급된 상품의 신용등급별 비중, 금리 분포 및 대출공급량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시점은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직전인 2009년 3월이며, 두 번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기 직전 시기인 2013년 12월이다. 마지막 시기는 ‘햇살론 17’이 출시되기 직전 시기인 2019년 6월을 설정하였다. 해당 분석을 위해서 각 시기의 금리 및 대출공급 비중을 구성한 KCB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1. 서민금융상품의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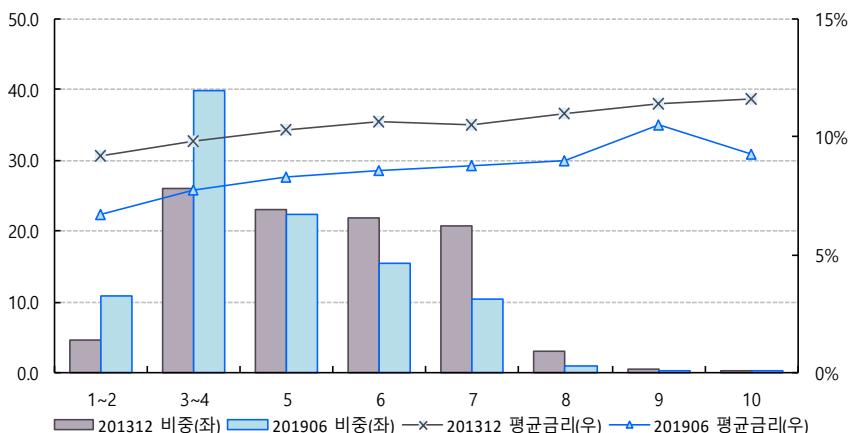
가. 은행 새희망홀씨

[그림 3-5]는 은행에서 공급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별 취급비중과 금리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금리는 계좌별 당월 상환 이자금액 합산을 직전 월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에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먼저 시기별 금리수준을 비교하면 2013년과 2019년 사이에 모든 신용등급에서 적용금리의 하락폭이 3%p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리수준의 변화는 2015년 6월, 기존 12%였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상한 금리수준을 10.5%로 인하시킨 정책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시점 간 새희망홀씨의 금리 하락폭은 1~4등급에서는 신용등급 간 동일하게 유지되나 9등급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새희망홀씨 공급비중은 2013년 말에도 3~4등급에서 가장 높고, 2019년 6월에 대출 공급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신용등급구간 역시 3~4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3-5] 은행 새희망홀씨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으로 계산, 신용등급은 신규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자료: KCB(2019.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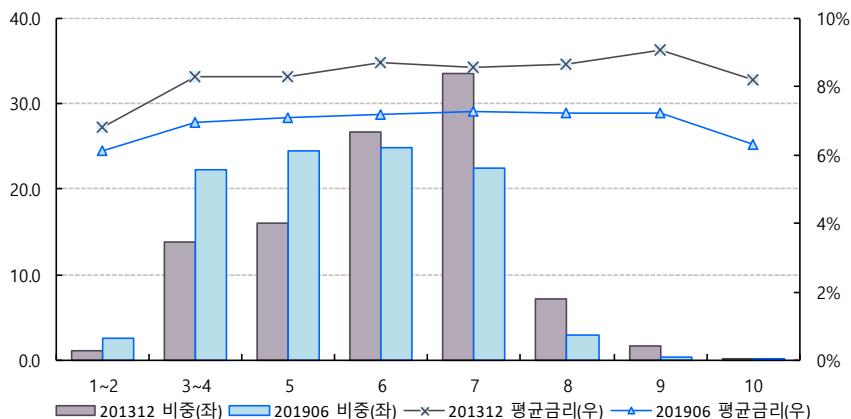
또한 1~2등급의 신용이 가장 높은 차주에 대한 공급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6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7, 8등급에 대한 공급비중은 2013년 12월에 각각 20.7%, 3.0%였으나, 2019년 6월에는 10.4%, 1.0%로 크게 감소하였다.

나. 상호금융 햄살론

[그림 3-6]은 상호금융에서 공급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햄살론의 신용등급별 취급비중과 금리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2013년 12월에는 10% 이하였으며 2019년 6월에는 8% 이내로 나타났는데, 정책서민자금 상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금리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수준이 새희망홀씨에 비하여 더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두 시점 간의 금리 하락폭이 9등급과 10등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새희망홀씨에서는 신용등급이 나빠짐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상호금융 햄살론에서는 2~9등급까지 금리수준이 유사하게 유지된다. 신용등급별 대출 공급비중의 분포 변화는 은행의 새희망

[그림 3-6] 상호금융 햄살론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 기준의 비중을 의미하며, 신용등급은 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상호금융은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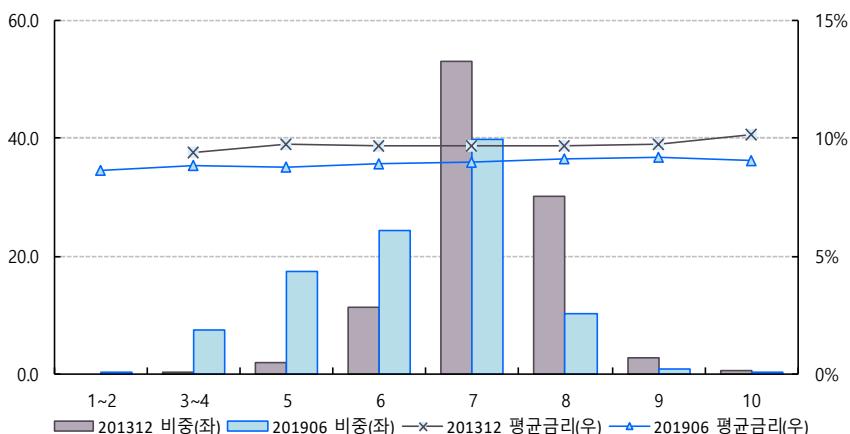
자료: KCB(2019. 12. 1).

홀씨와 유사하게 3~5등급의 고신용등급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7~8등급에 대한 공급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3년에는 6, 7등급의 공급비중이 각각 26.6%, 33.5%로 가장 높았으나, 2019년에는 5~7등급이 각각 24.4%, 24.9%, 22.5%를 차지하여 5등급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7등급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다. 저축은행 햅살론

[그림 3-7]은 저축은행 햅살론의 신용등급별 금리와 취급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금리수준은 2013년 6월에는 10%였으나 2019년 6월에는 9%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저축은행 햅살론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용등급별 공급비중 분포는 은행 새희망홀씨와 마찬가지로 고신용등급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7등급 이하 공급액 비중이 감소하였다. 2013년 12월에 6, 7, 8등급의 공급비중이 각각 11.4%, 53.0%, 30.2%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24.4%, 39.6%, 10.1%로 변화하여 8등급에 대한 공급액 축소가 두드러졌다.

[그림 3-7] 저축은행 햅살론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 기준의 비중을 의미하며, 신용등급은 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자료: KCB(2019.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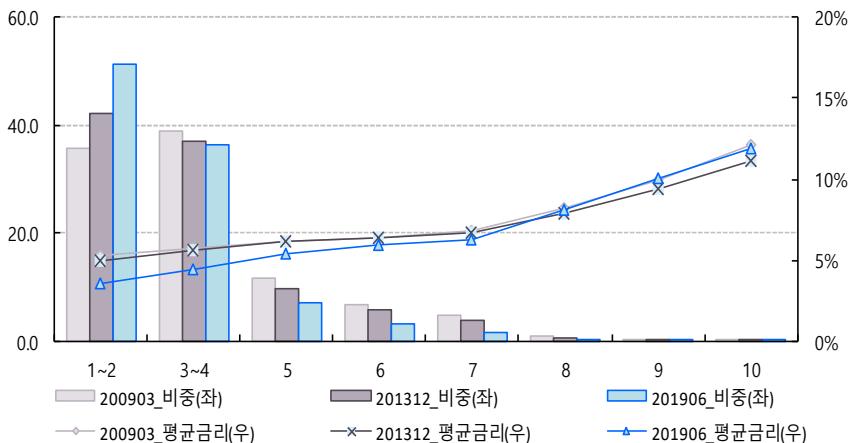
2. 정책상품 이외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가. 은행 신용대출

[그림 3-8]은 은행에서 발급된 일반 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공급비중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금리수준은 각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은행 신용대출의 금리가 이미 최고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신용자 집단에서는 금리가 5% 이내에서 낮게 유지되다가 7등급 이상 저신용 집단에서는 10% 이상 수준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2009년에 1~4등급의 고신용 집단의 비중이 80%였고,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하여 2019년 6월에는 87.6%를 차지한다. 반면, 7등급 이하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비중은 2009년에는 6.8%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2.0% 수준으로 감소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공급비중은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3-8] 은행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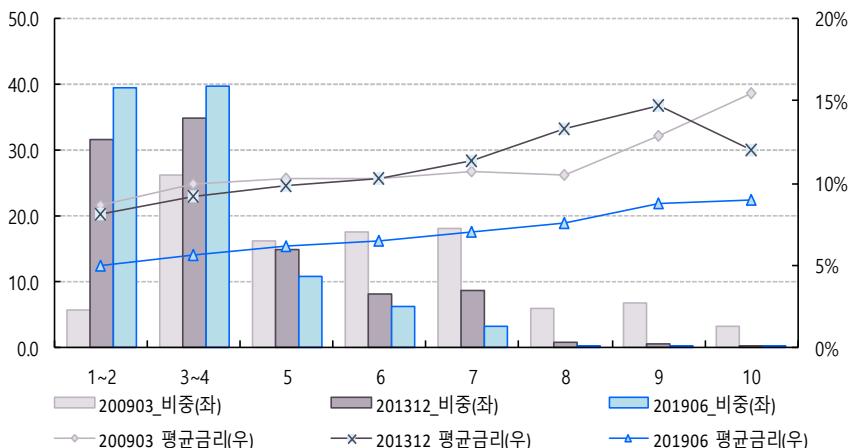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 기준의 비중을 의미하며, 신용등급은 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자료: KCB(2019. 12. 1).

나. 상호금융 신용대출

[그림 3-9]는 상호금융 신용대출시장의 신용등급별 금리와 공급비중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금리가 8.7~15.4% 수준에서 신용등급이 나빠질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2019년 6월에는 5.0~9.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기존 상호금융의 금리수준은 신용등급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받아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월 상호금융 신용대출의 비중은 3~4등급이 2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7, 6, 5등급의 순으로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햇살론이 출시된 이후 3년이 지난 2013년 12월 시점에서 1~2등급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 6월에는 1~4등급에 대한 대출 취급 비중이 전체 79.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8등급 이하에 대한 신용대출의 비중은 2009년 3월에는 16.1%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6월에는 0.3%에 불과하여 저신용

[그림 3-9] 상호금융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 기준의 비중을 의미하며, 신용등급은 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상호금융은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를 포함함.

자료: KCB(2019.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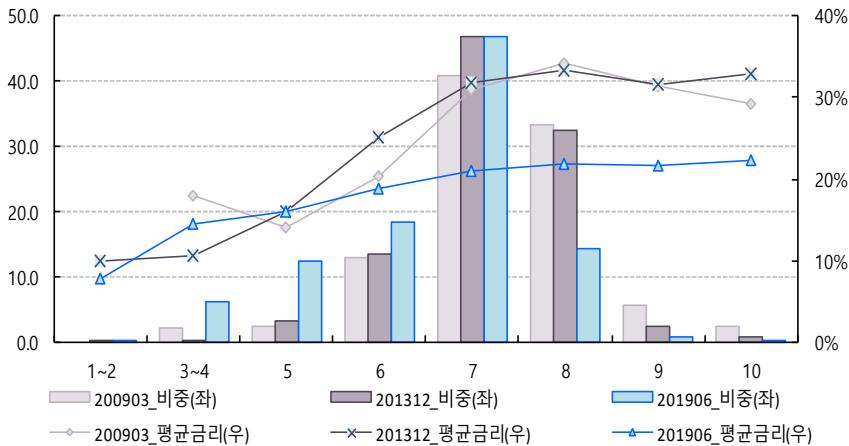
자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일반 신용대출은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그림 3-10]에 나타난 저축은행 신용대출시장의 신용등급별 금리와 공급비중 분포를 보면, 저신용등급의 금리는 최고금리 수준과 상당히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2009년과 2013년에 비해 2019년에는 5~10등급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가 평균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7, 8등급이 부담하는 금리는 기존 2009년 3월의 30.9%, 34.3%에서 2019년 6월에는 20.9%, 21.8%로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 하락은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시장에서는 7, 8등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9년 3월에 7, 8등급의 비중은 각각 40.7%, 33.2%였는데, 2019년 6월에는 7등급의 비중이 46.8%로 증가한 데 비해 8등급의 비중은 14.4%

[그림 3-10]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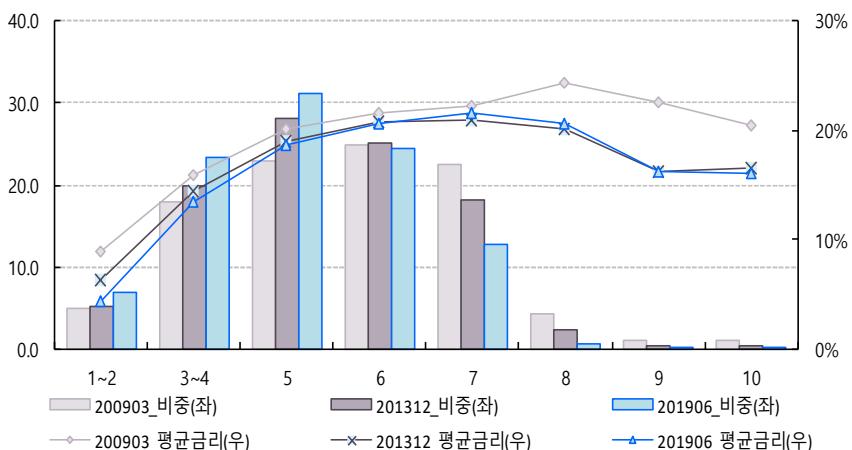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 기준의 비중을 의미하며, 신용등급은 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자료: KCB(2019. 12. 1).

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4~6등급의 취급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라.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그림 3-11]은 카드·캐피털사에서 공급된 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와 공급비중 분포를 나타낸다. 저신용등급의 금리는 최고금리 수준과 상당히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1~7등급은 시점에 따른 금리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가 금리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등급에서는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금리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5~7등급은 금리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³

[그림 3-11] 카드·캐피털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 및 취급비중 분포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 기준의 비중을 의미하며, 신용등급은 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자료: KCB(2019. 12. 1).

3 2009년 3월에 취급된 대출에서는 8등급에 적용된 금리가 9, 10등급에 비해 높고, 2013년 12월과 2019년 6월에 취급된 대출에서는 7등급에 적용된 금리가 신용등급이 더 낮은 8~10등급에 적용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카드 사가 신규 고객에게 카드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마케팅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이러한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19. 12. 18.).

대출 공급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3월에는 5~7등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점차 1~5등급에 대한 공급비중이 증가하여 2019년 6월에는 5등급의 비중이 31.2%로 가장 높다. 또한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 대한 공급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카드·캐피털사에서 발급된 신용대출에서도 1~5등급의 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7등급 이하에 대한 비중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민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

이상의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은행,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기 이전 시기에 비하여 3등급 이상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비중을 높여 왔으며,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비중은 크게 감소시켜 왔다. 저축은행에서는 7등급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비중이 여전히 높았으나, 8등급 이하에 대한 공급비중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1차적인 이유는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의 분포가 이전에 비해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저신용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⁴ <표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1년과 2018년의 전 국민 대상 신용등급별 분포를 비교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3등급 이상 고신용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 출시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일반 신용대출상품 이용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이 감소한 현상은 신용등급의 분포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신용평가등급상에서 저신용등급의 비중이 감소하는 정도에 비해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비중의 감소가 더욱

4)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개인이 신용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용등급별 평균 불량률이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유추해 보면,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개인 신용대출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표 3-2>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별 인원 및 불량률

신용 등급	NICE				KCB			
	2011		2018		2011		2018	
	인원 (비율)	불량률	인원 (비율)	불량률	인원 (비율)	불량률	인원 (비율)	불량률 ¹⁾
1	4,980,110 (12.1%)	0.06%	12,099,582 (26.3%)	0.05%	3,378,342 (8.3%)	0.05%	7,519,247 (16.1%)	0.06%
2	5,249,192 (12.8%)	0.13%	8,071,886 (17.6%)	0.16%	5,594,670 (13.8%)	0.09%	7,608,390 (16.3%)	0.11%
3	4,938,959 (12.0%)	0.20%	3,401,889 (7.4%)	0.34%	6,598,154 (16.3%)	0.17%	8,466,597 (18.1%)	0.22%
4	6,190,094 (15.1%)	0.40%	6,657,975 (14.5%)	0.51%	6,226,278 (15.4%)	0.32%	8,625,749 (18.4%)	0.56%
5	8,664,795 (21.1%)	0.61%	6,614,522 (14.4%)	0.70%	6,669,823 (16.4%)	0.68%	6,944,137 (14.8%)	1.31%
6	5,079,551 (12.4%)	1.59%	5,229,339 (11.4%)	1.82%	5,325,629 (13.1%)	2.54%	3,339,707 (7.1%)	3.47%
7	2,250,729 (5.5%)	5.44%	1,175,748 (2.6%)	6.29%	3,266,441 (8.1%)	7.72%	1,721,551 (3.7%)	7.88%
8	2,001,892 (4.9%)	8.16%	1,186,765 (2.6%)	9.79%	2,284,555 (5.6%)	10.84%	1,502,957 (3.2%)	17.79%
9	1,328,806 (3.2%)	12.41%	1,137,848 (2.5%)	11.87%	824,527 (2.0%)	22.22%	639,444 (1.4%)	37.12%
10	381,945 (0.9%)	30.91%	383,548 (0.8%)	33.03%	386,225 (1.0%)	56.25%	424,851 (0.9%)	75.43%
전체	41,066,073 (100.0%)	1.95%	45,959,102 (100.0%)	1.49%	40,554,644 (100.0%)	2.87%	46,792,630 (100.0%)	1.70%

주: 1) 2017년 말 차주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1년 후(2018년 말) 채무불이행 등록 정보 여부를 계산함.

자료: 각사 홈페이지 공시 자료 및 한국소비자원, 『개인 신용평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15; 구자현·오윤해·강우진(2019)에서 재인용.

급격하다는 점이다.⁵⁾ <표 3-2>의 KCB 신용등급 분포상에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 2등급의 비중은 2011년의 8.3%, 13.8%에서 2018년에 16.1%, 16.3%로 증가하였으나, [그림 3-9]에서 상호금융 일반 신용대출에서 1~2등급 고신용자의 공급비중은 2009년 3월 6%에서 2019년 6월 39%로

5) KCB에서 7, 8, 9, 10등급으로 분류하는 차주의 비중은 2011년에 각각 8.1%, 5.6%, 2.0%, 1.0%였지만 2018년에는 각각 3.7%, 3.2%, 1.4%, 0.9%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3-2).

<표 3-3> 새희망홀씨 공급 전후 연도별 카드·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공급액

신용등급	1~2	3~4	5	6	7	8	9	10
2009년 3월	599	2,166	2,764	2,984	2,689	525	140	135
2013년 12월	1,776	6,672	9,378	8,359	6,100	805	174	155
2019년 6월	3,096	10,607	14,106	11,071	5,818	354	93	117

주: 해당 월에 신규 발급된 대출금액 기준의 비중을 의미하며, 신용등급은 계좌 발급 전기 기준임.
자료: KCB(2019. 12. 1).

<표 3-4> 미소금융 지점 대출 신용등급별 대출 공급액 비중의 연도별 추이

대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5등급	33.49	21.66	21.83	19.78	20.41	20.37	19.52	16.41
6등급	8.42	10.60	11.36	10.07	9.90	8.40	21.82	28.28
7등급	30.78	36.79	35.34	35.61	34.43	33.75	29.95	29.25
8~10등급, 무등급	27.32	30.95	31.47	34.55	35.27	37.48	28.71	26.06

자료: 미소금융 이용자 DB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증가하여 확대 폭이 더욱 크다.

<표 3-3>에서 카드·캐피털사에서 공급된 신용등급별 신용대출금액을 살펴보아도 1~4등급의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대출금액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크게 증가해 온 것에 비해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금액은 크게 감소하였다.⁶ 8등급 이하 차주는 카드·캐피털사의 주력 고객이 아니지만, 7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액이 감소한 현상은 6등급 이상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액이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된 사실과 대비된다.

한편, 미소금융의 존재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미소금융의 경우 금리가 4% 수준으로 가장 낮고 소득 및 신용도가 가장 낮은 차주에게 집중 공급되지만, 이용 정보는 신

6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공급액 변화는 분석 연도별로 포함되는 회원 수가 크게 변하는 한계가 있어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용평가회사에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소금융 대출 공급을 감안하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 감소는 이상에서 살펴본 정도보다는 완화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표 3-4>에 나타난 미소금융의 신용등급별 대출 공급액 비중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소금융에서 2015년에 6등급에 대출을 공급한 비중은 9.9%였으나 2018년에는 28.28%로 증가한다. 반면, 8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 공급은 35.27%에서 26.06%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저신용등급의 차주 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비중 축소의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므로, 저신용등급에 대한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정책자금 이용 전후의 행태 변화를 기초자료 분석 수준에서 추적해 보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이후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개괄하였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 발급 시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이전에 비하여 대출시점에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출 후 6개월이 지나면 평균금리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고 이후 완만히 하락하였다.

고금리 대출을 대표하는 현금서비스 잔액은 정책자금 이용 7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상품 이용시점에 현금서비스 이용 잔액이 크게 감소한다. 현금서비스가 총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반면, 장·단기 카드 신용대출의 총합은 정책서민자금 이용 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이 고금리의 단기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을 줄이고 장기 카드론을 더욱

늘렸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권 금융 접근성으로 대표되는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인 DTI는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 햅살론 발급 시기부터 1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14년, 2016년 햅살론 이용자의 DTI는 70~80% 내외로 상당히 높게 유지되었다.

요약하면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의 금리부담이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차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대출 잔액은 정책상품 이용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에는 DTI가 상품 이용 1년 이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책효과를 보다 염밀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상품 미이용자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러한 성과분석 결과는 제4장과 제5장에 제시되어 있다.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될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 등에서 저신용층에 제공된 신용대출금리가 30% 후반 수준으로 매우 높아 서민들이 높은 금리부담과 자금부족을 겪었다. 이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역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여 시중의 일반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상품을 공급해 왔으며, 그간 저금리 기조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민간 신용대출상품의 금리수준도 20%대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리부담은 상당히 낮아졌으며, 신용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비중은 일반 민간 신용대출시장은 물론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시장에서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최고금리 인하, 채무조정제도 감면율 인상 등의 제도 변화와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인해 일반 신용대출시장의 수요자가 축소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상기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용은 제도 수정 과정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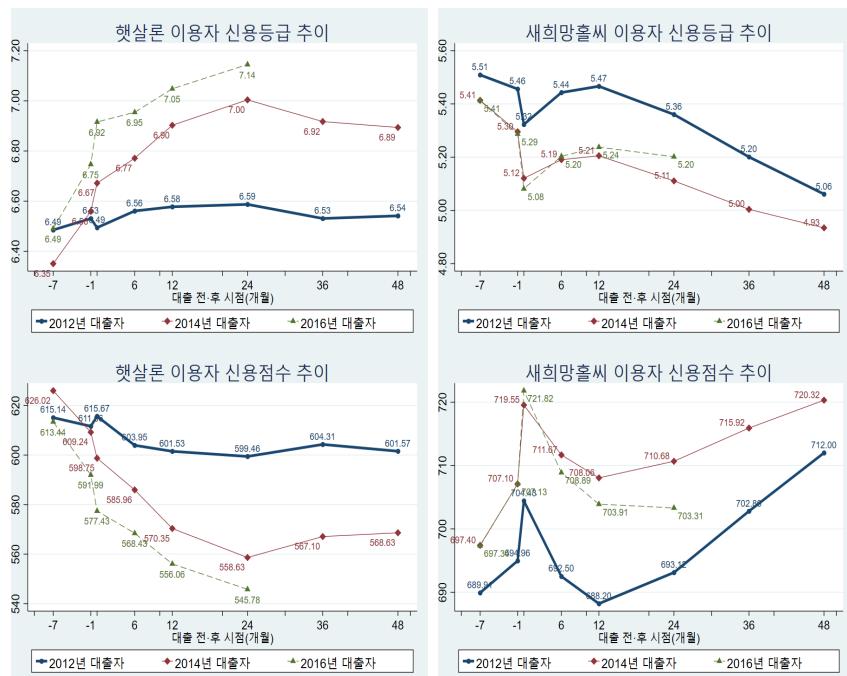
부 록

부록 1. 햅살론,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행태

[부도 3-1]~[부도 3-4]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2회 이상 이용한 대출자의 행태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본문의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1회 이용한 대출자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3-1]~[그림 3-4]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각 서민금융상품을 2회 이상 이용한 대출자들의 각 대출시점을 특정할

[부도 3-1] 햅살론 ·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 등급 ·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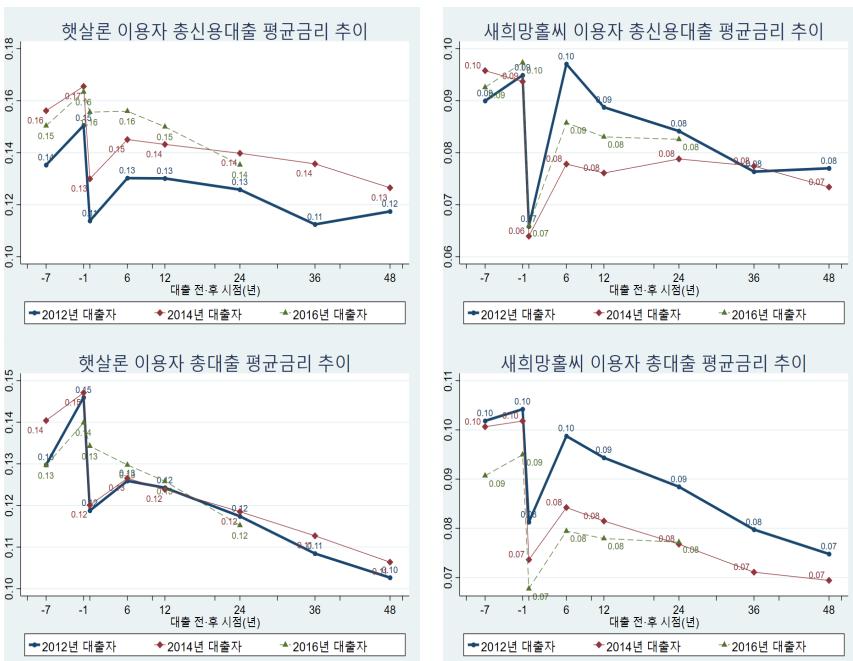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수 없어 최초 대출의 발급 이전 달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부도 3-1]에 나타난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의 변화 추이와 평균값은 [그림 3-1]의 대출 1회 이용자와 상당히 유사한데, 2016년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 2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등급 평균이 1회 이용자에 비해 0.03~0.06 정도 높다.

[부도 3-2]에 나타난 대출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와 등급과 신용점수의 변화 추이와 평균값은 [그림 3-2]의 대출 1회 이용자와 거의 유사한 값과 추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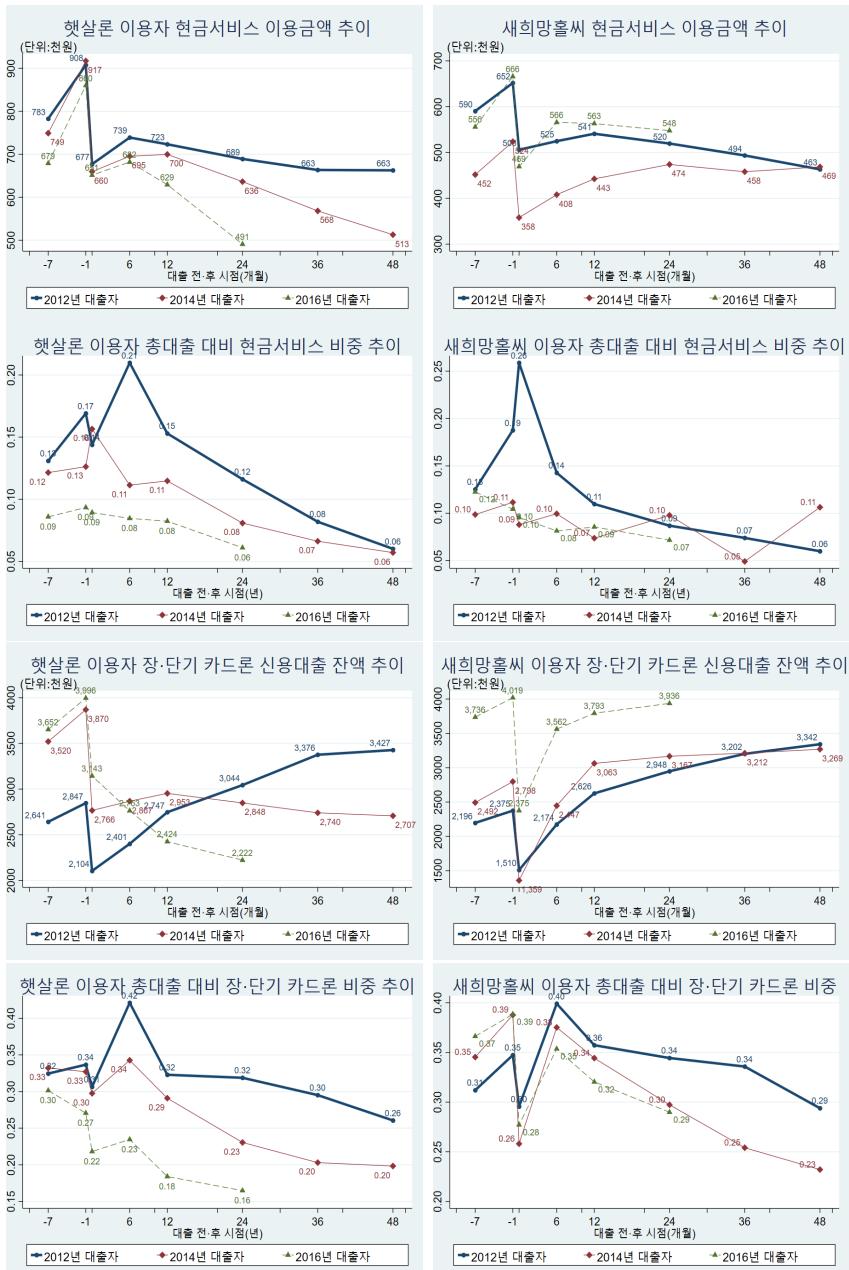
[부도 3-3]에 나타난 햅살론,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대출 이용 추이도 [그림 3-3]의 대출 1회 이용자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4년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 대출 이용 직전 현금서비스 잔액 규모가 2회 대출자에서 1회 대출자보다 2.1만원 정도 작다.

[부도 3-2] 햅살론 ·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평균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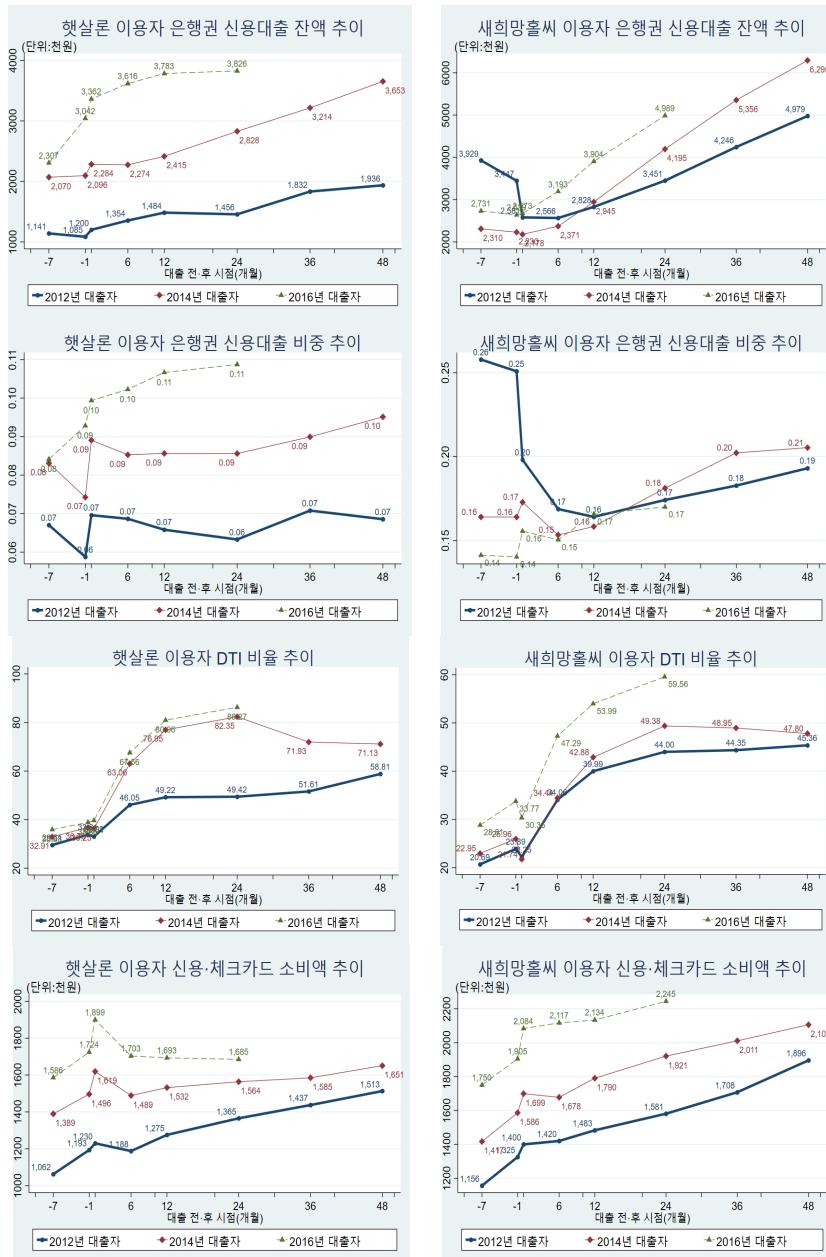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3-3] 헛살론 ·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신용대출 이용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3-4] 햄살론 · 새희망홀씨 다회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DTI, 월 카드지출



주: 은행권 신용대출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나타냄.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3-4]의 햅살론, 새희망홀씨 2회 이상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비중, DTI, 월 카드지출액 추이도 [그림 3-4]의 대출 1회 이용자의 추이와 거의 유사하다. 2014년, 2016년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경우 2회 이상 대출자가 1회 대출자에 비해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이용자의 경제적 상태에 미친 영향 분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개인 신용정보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채무자에게 미친 정책효과를 판별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0년 전후에 정부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서민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제3장에서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채무자들의 상품 이용 전후 행태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이들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잔액이 감소하고 은행권의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기 카드대출을 포함한 카드대출 잔액 및 DTI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용 점수·등급에서도 뚜렷한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기초자료 분석만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효과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환경에는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제도 변화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대출자의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던 대조군과 비교하여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개편계획을 밝히고, 보증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 출연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금융위원회, 2018. 12. 21). 그런데 정책서민금융의 추가재원 마련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채무자에 미친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구정한 · 이규복 · 이수진(2016)이 본 연구의 제3장과 유사하게 서민금융대출 전후 1년간 대출자의 경제적 지표에 나타난 변화를 추적하고 있으나 대조군과 비교한 성과분석은 아니었다. 윤상용 · 강만수 · 손희영(2017), 최진배 · 김명록(2017)이 햅살론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대조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체발생 외에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햅살론 대출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경제적 성과를 대조군과 비교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KCB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단위로 구축한 장기간의 월별 패널 자료(KCB 저신용 차주 DB)를 활용해 이용자와 비용자 간 행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노용환 외, 2010; 남주하 외, 2015)이나 정책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성호, 2017; 장우현 외, 2014)도 다수 존재하나 이들 연구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대조군을 찾고 지원효과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상기의 연구와 유사점이 있지만 개인의 신용도, 평균금리, 지출 변화 등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책성 서민금융이 일차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서민의 고금리 대출 이용 부담을 낮추어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정책상품 이용자가 스스로 신용을 높여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같은 제도권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 여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가 고금리 상품 이용을 감소시키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에서 발급되는 신용대출이 현금서비스에 비해 금리가 더 높지만 본 자료를 통해 분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했다. KCB에서는 2016년까지 대부업 및 저축은행 회원사를 확충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때문에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이용 여부나 대출금액이 2014~16년 시기에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2016년 이전에 정책성 서민금융을 이용한 채무자의 정보를 통해서는 정책상품 이용 이후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이용 변화를 단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금리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신용 등급·점수가 상승하거나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 신청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정책상품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지출의 수준이 증가하여 예산제약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와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의 변화가 채무자의 상황이 열악할수록, 즉 저신용등급이거나 기존에 평균금리 수준이 높거나 신용대출 발급기관의 수가 많을 때 정책서민자금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 판별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절에서는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향살론 이용자의 성과분석 결과를 논의하며, 제4절에서는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성과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절의 소결에서는 본 장을 마무리한다.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1. 계량분석 방법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정책자금 공급이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기법(PSME-DID)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성향점수 매칭기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E)을 통해 이용자와 유사한 미이용자 대조군을 설정한다. 그 이후 이중차분기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적용하여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분에 비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추가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정책효과로 규정하게 된다.

사실 정책수혜자가 처음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경우라면 대조군과의 단순한 비교를 통해 정책효과를 보다 염밀히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작위 실험이 아닌 현실 상황에서 지원된 정책자금의 경우 정책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 선정의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책서민자금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전후 변화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PSME는 관찰데이터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짓(logit) 혹은 프로빗(probit) 모형을 통해 정책상품을 이용할 확률을 대출자의 관찰된 특성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각 대출자의 성향점을 계산한 후 정책상품을 이용한 대출자와 가장 근접한 성향점을 가진 대조군을 짹짓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을 결정하는 특성변수로 햄살론(새희망홀씨) 발급일자, 대출 1개월 전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대부업 이용 여부, 연소득, 연령, 성별, 거주지역(서울, 경기, 인천, 5개 광역시 구분), 총대출 잔액,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신용·체크카드 소비액, 장·단기 카드론 비중, 채무조정 신청 여부, DTI 비

율, 총대출 금리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는 PSME 분석이 타당성을 갖기 위한 두 가지 가정, 즉 정책자금 이용 여부가 관찰 가능한 특성들에 의해서만 선정된다는 조건부 독립 가정과, 어떤 관찰 가능한 특성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확률이 0 또는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대조군을 매칭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가 가장 가까운 대상을 1명씩 고르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중차분기법의 계량모형식 (4-1)을 설정하여 서민금융상품 이용 직전 1개월 전과 이용 이후 6개월, 1년, 2년, 4년 후에 각각의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변화, 즉 각 관심변수의 시간에 따른 차분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미이용자 대조군의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종속변수의 기준시점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매칭될 시점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1개월 전에 해당하는 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1달 후, 6개월, 1년 후, 2년, 4년 후의 종속변수 값과 기준시점 종속변수 값의 차분값을 계산하였다.

β_k 는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 이용자 더미의 추정계수인데, 이 값은 관심변수가 기준시점 대비 변화하는 정도가 미이용자에 비해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 추가적으로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 값을 나타낼 경우에 이를 정책효과로 판별할 수 있다. 종속변수로는 신용대출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대출 잔액 및 비중, 신용 등급 및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및 월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지출액의 시간에 따른 차분값을 활용하였다. 정책자금을 이용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자금 이용시점을 통제하는 변수의 집합인 T_i 를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차주의 고유한 특성변수는 차분과정에서 제거되므로 추정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Delta_t Y_i = \alpha + \beta_k Treat_{i,k} + T_i \gamma + \Delta \varepsilon_i \quad (4-1)$$

$t = 1/6$ 개월, $1/2/4$ 년 후, $k =$ 햅살론, 새희망홀씨, $T_i :$ 대출발급 시기

또한 신용등급, 이자비용 등 대출자의 성격에 따라 정책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관측하기 위해 다음의 계량식 (4-2)를 설정하였으며, θ_k 는 채무자 특성 X_i 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관심변수 변화분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채무자 특성 X_i 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이용의 효과도 상이한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Delta_t Y_i = \alpha + \theta_k Treat_{i,k} \times X_i + \delta X_i + \beta_k Treat_{i,k} + T_i \gamma + \Delta \varepsilon_i \quad (4-2)$$

$k =$ 햅살론, 새희망홀씨, $X_i :$ 세부특성, $T_i :$ 대출발급 시기

세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 여부 더미, 총대출 금리수준,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 대출자의 연소득을 활용하였다. 햅살론 분석에서는 햅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저축은행이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2. 분석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KCB에서 제공한 햅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 표본과 정책서민금융 미이용자 표본을 활용하였다. 이를 표본의 2011년 1월~2018년 12월까지의 신용대출 이용 현황, 금리 정보 등과 함께 성별, 지역 등을 포함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 표본은 2018년 12월까지 정책상품을 이용한 차주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미이용자 표본은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표 2-3>에 제시된 2018년 자격기준인 6등급 이하, 소득 4,500만원 이하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소득 4,800만원 이하 차주 중에서 5%, 5등급 이하 신용 차주 중에서 5%를 무작위 추출한 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차주를 제외하였다. 미이용자 표본 중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대출

1달 전 시점에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부 차주의 정보만이 최종 회귀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대부분의 미이용자 표본은 대조군 선정에만 활용되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에서도 상품 이용 이후 관측시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2012년과 2014년 이용자를 선택하였다. 각 연도의 4~11월에 각 서민금융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한 차주 중에서⁷ 전 기간 동안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적이 없으며, 각 상품을 1회만 이용한 차주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소득 4,700만원 이상인 차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자격에서 벗어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소득, 대출량과 같이 금액과 관련된 변수는 극단치가 존재하였는데, 특성변수에 활용되는 변수가 다수이므로 해당 관측치를 제거하기보다는 상위 0.05% 수준의 값으로 극단치를 winsorization 처리하였다. 소득 1억원 이상, 총대출량 20억원 이상, 저축은행 신용대출 총잔액 5억원 이상, 카드 사용액 5천만원 이상, 카드론 2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winsorization 처리한 후 성향점수 매칭과 DID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3절 햇살론 이용자의 성과분석

1. 기초통계량 및 대조군 비교

가. 대출 1개월 전 시점 관심변수의 요약통계량

<표 4-1>은 2012년과 2014년 4~11월에 햇살론을 발급받은 이용자 7,365명과 PSME에서 추정된 성향점수가 햇살론 이용자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짹지어진 미이용자 7,365명 표본의 요약통계량이다. 햇살론 대출

⁷ 4~11월에 정책상품을 이용한 차주로 대상을 설정한 이유는,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의 월별 계절인자에 따르면, 연말(12월)에는 평소보다 소비가 높고 연초(2월)에는 소비가 낮아지는 모습이 매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데(통계청, 2019. 11. 29), 월별 소비의 변동성이 따른 대출수요 및 지출 변화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표 4-1>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구 분	햇살론 이용자		미이용자 매칭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대출 평균금리	0.15	0.11	0.14	0.11
신용대출 평균금리	0.17	0.13	0.16	0.14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천원)	942.00	1905.73	726.86	1959.29
총대출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	0.14	1.06	0.13	0.96
장·단기 카드론 신용대출 잔액(천원)	3,657.05	5,035.62	3,887.64	6,505.69
총대출 대비 장·단기 카드론 비중	0.33	0.47	0.36	0.52
신용등급(1~10등급)	6.57	1.18	6.58	1.68
신용점수	608.43	93.87	608.51	145.57
채무조정 여부	0.00	0.00	0.00	0.01
DTI 비율(%)	36.24	33.77	38.63	65.68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천원)	1,509.81	5,604.44	1,508.95	7,145.20
총대출 대비 은행권 신용대출 비중	0.06	0.19	0.06	0.21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천원)	1,397.15	1,613.99	1,374.66	2,452.98
관측치	7,365명		7,365명	

주: 신용대출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과 비중의 관측치는 매칭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 관측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신용대출 평균금리 관측치는 이용자와 미이용자 각각 5,184명, 3,759명이며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과 비중은 이용자와 미이용자 각각 7,327명과 7,210명임.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개월 전 시점에서 관찰된 다양한 관심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햇살론 이용 1개월 전 시점에서는 신용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차주가 있어 신용대출 평균금리에 대한 관측치가 다른 변수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햇살론 이용자, 미이용자 모두에서 16%대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총대출 평균금리는 미이용자 대조군이 14%로 이용자의 15%보다 조금 낮았다. 현금서비스 이용 잔액은 햇살론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22만원가량 더 높았으며, 현금서비스 이용 비중도 다소 높았다.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6.6등급이었다. 햇살론 이용 1달 전 시점에 이미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던 이용자가 10명 내외 존재하였는데, 해당 차주와 매칭 대조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 대출 전후 햅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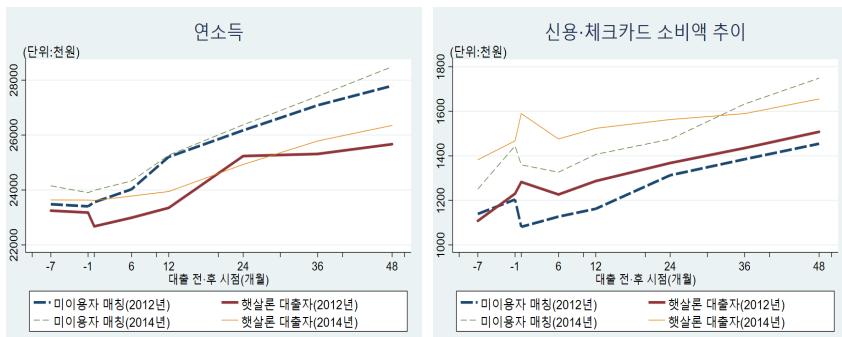
[그림 4-1]~[그림 4-3]은 햅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각 종속변수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1]에 나타난 햅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기준시점 7개월 전의 연소득과 카드지출액 수준은 유사하다. 그러나 햅살론 발급 이후 연소득 수준은 햅살론 이용자가 대조군에 비해 더 낮아지지만, 카드지출액은 대조군이 더 낮게 나타난다.⁸ 햅살론 이용자는 대출 1개월 전에 비해 햅살론 발급시점에 카드지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미이용자는 카드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특이하다.

[그림 4-2]에 나타난 DTI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준시점 이전에는 미이용자와 햅살론 이용자가 유사한 수준이나 햅살론 발급 1년 이후에는 햅살론 이용자의 DTI가 대조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에 햅살론을 이용한 대출자의 DTI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의 추이는 기준시점 전후 햅살론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햅살론 미이용자의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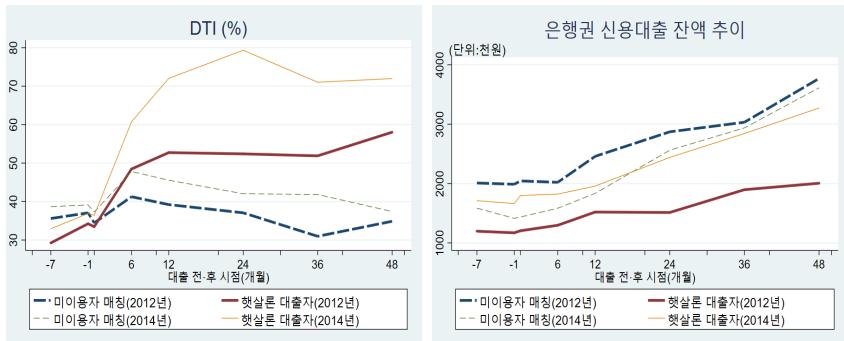
[그림 4-1] 햅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연소득, 소비지출액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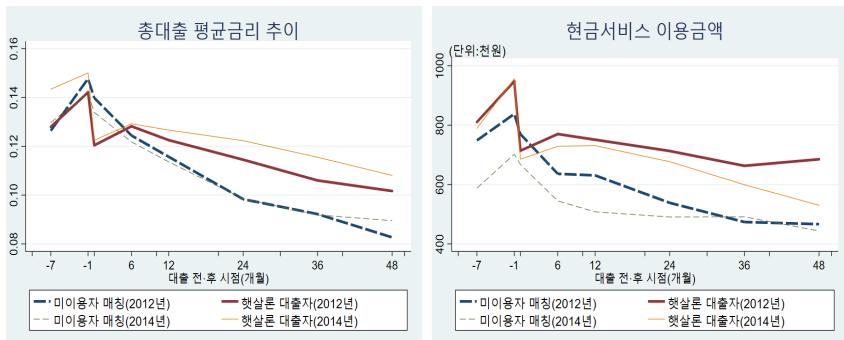
8 KCB 연소득은 실제 과세 소득이라기보다는 추정소득이므로 절대적 수준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상대적인 소득을 비교하는 분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DTI(DSR),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3]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현금서비스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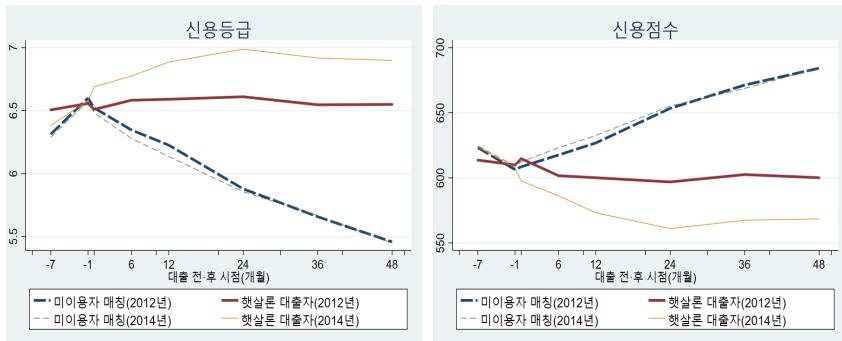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권 신용대출 증가 추세가 조금 더 가파르며, 2012년 햄살론 이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햄살론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햄살론 이용자는 햄살론 이용시점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대출 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이용 대조군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나타내는 현금서비스 이용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준시점 이전에는 햄살론 이용자가 미이용자에 비해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더 높았으나 햄살론 이용시점에는 현금서비스 잔액이 급격히 감소

[그림 4-4]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 등급 · 점수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햄살론 미이용 대조군에서도, 햄살론 이용자와 같은 급격한 감소는 없지만,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햄살론 이용자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낮게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에 나타난 햄살론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은 기준시점 이전에는 매우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햄살론 이용 이후에 햄살론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다소 악화되거나 유지되고 신용점수도 악화되는 반면, 햄살론 미이용자의 신용 등급 및 점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가. 금리비용 및 현금서비스 이용

<표 4-2>는 성향점수 매칭-이중차분기법을 이용하여 햄살론 이용이 차주의 평균금리 및 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분석 결과는 계량식 (4-1)을 적용하여 PSME-DID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종류가 총대출 평균금리일 경우에 각 계량식의 종속변수는 햄살론 발급 이전 달의 평균금리 수준에서 대출시기,

<표 4-2> 햄살론 이용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

PSME-DID 종속변수: 햄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3*** (0.002)	-0.001 (0.005)	0.010*** (0.002)	0.018*** (0.002)	0.014***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3,861	13,012	12,500	11,857	10,895
	R-sq.	0.007	0.005	0.008	0.009	0.007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4*** (0.002)	-0.011 (0.009)	0.013*** (0.003)	0.018*** (0.003)	0.011*** (0.004)
	표준오차					
	관측치	8,318	7,240	6,859	6,256	5,345
	R-sq.	0.018	0.010	0.010	0.009	0.007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221.320*** (21.093)	-58.626** (23.679)	-23.811 (26.486)	-35.144 (28.763)	-100.753*** (31.529)
	표준오차					
	관측치	14,533	14,429	14,491	14,455	14,398
	R-sq.	0.009	0.002	0.001	0.001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대출 후 6개월, 1년, 2년 및 4년 시점에 총대출 평균금리가 변화한 차이인 차분값이 적용된다.

총대출 평균금리에서 대출시점의 차분값을 활용할 경우, 햄살론 더미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는 햄살론 미이용자와 비교할 때 햄살론을 이용한 차주에서는 대출시점에 총대출 평균금리가 약 1.3%p가량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출 1년 이후의 시점부터는 햄살론 더미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햄살론 이용자의 평균금리는 미이용자에 비해 더 많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의 종류가 신용대출의 평균금리일 경우에도 햄살론 이용자들이 대출시점에 미이용자에 비해 2.4%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1년 후의 움직임도 총대출 평균금리와 마찬가지로 미이용자들보다 햄살론 이용자에서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부록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칭 방식을 달리해 대조군을 설정한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났

으나, 특성변수에 이자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의 경우에는 대출시점에 이용자가 대조군보다 22만원가량 현금서비스 잔액을 낮추며 대출 1년 및 2년 이후에는 대조군과 이용자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부록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칭 방식을 변화시킬 경우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단기적으로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햅살론 이용이 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대출시기에 금리비용을 낮추는 양상을 보였으나, 금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았다.

나.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표 4-3>은 햅살론 이용이 차주의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햅살론 미이용자와 비교할 때 대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햅살론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커지고 신용점수는 더욱 유의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햅살론 이용은 차주의 신용 등급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여부는 햅살론 발급 1년까지는 미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신청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년 후 시점부터는 햅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햅살론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단기적인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줄었지만 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결과는 ‘부록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조군 설정방식을 달리하여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표 4-3> 햄살론 이용이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PSME-DID 종속변수: 햄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164***	0.450***	0.667***	1.045***	1.374***
	표준오차	(0.011)	(0.020)	(0.024)	(0.028)	(0.033)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17	0.034	0.052	0.088	0.107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9.614***	-32.558***	-51.471***	-85.068***	-108.437***
	표준오차	(0.886)	(1.790)	(2.160)	(2.486)	(2.757)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12	0.024	0.040	0.077	0.097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1***	-0.006***	-0.007***	0.011***	0.080***
	표준오차	(0.000)	(0.001)	(0.002)	(0.003)	(0.005)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02	0.004	0.002	0.004	0.026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DTI, 은행 신용대출 및 카드지출액

<표 4-4>는 햄살론 이용이 부채부담을 나타내는 DTI, 제도권 대출에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은행 신용대출 잔액과 차주의 생활여건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햄살론 이용자는 대출시점에서 미이용자와 DTI 수준이 유사하지만, 대출 6개월 이후부터는 미이용자 보다 DTI가 유의하게 더욱 높아지고 있어 햄살론 이용자가 정책자금 이용 이후에도 부채부담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햄살론 이용자는 미이용자와 비교할 때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대출시점에 1개월 전보다 4만 5천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햄살론 이용자가 햄살론 대출원금을 상환 완료하기 이전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으로 인해 은행권 신용대출 접근성이 제한됨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햄살론 이용자의 카드지출액은 미이용

<표 4-4> 햄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PSME-DID 종속변수: 햄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DTI (부채상환 /연소득)	추정계수	1.505**	13.982***	25.797***	34.418***	34.186***
	표준오차	(0.621)	(1.772)	(2.020)	(2.225)	(2.206)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01	0.006	0.013	0.018	0.017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45.740*	-13.004	-58.730	-181.895	-330.422*
	표준오차	(23.621)	(58.038)	(85.487)	(135.693)	(197.584)
	관측치	13,861	13,215	12,746	12,128	11,219
	R-sq.	0.002	0.002	0.002	0.002	0.002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195.424***	83.396**	95.263***	59.219	-82.918*
	표준오차	(29.063)	(33.250)	(35.474)	(38.670)	(42.469)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04	0.002	0.001	0.001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 차이를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에 비해 대출시점에서 19.5만원 더 증가하며, 대출 1년 후까지도 미이용자보다 유의하게 높다. 따라서 햄살론으로 완화된 차입제약이 이용자의 소비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칭방식을 달리 한 ‘부록 3’의 강건성 검정에서 상기의 결과는 유지되며, 매칭방식 3, 4에서는 카드지출액 증가가 대출 2년 및 4년 이후까지 지속되기도 하였다.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가. 저신용등급 여부

<표 4-5>는 햄살론 이용이 신용대출 평균금리, 신용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차입제약이 더 큰 저신용등급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PSME-DID 분석 결과이다.

<표 4-5> 햅살론 이용이 신용대출 평균금리에 미치는 효과: 신용등급별

종속변수	설명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햇살론 이용	Coef. S.E.	-0.023*** (0.003)	-0.015 (0.011)	0.012*** (0.003)	0.018*** (0.004)	0.011*** (0.004)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03 (0.004)	-0.021 (0.015)	-0.020*** (0.005)	-0.021*** (0.006)	-0.025*** (0.007)
	햇살론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002 (0.005)	0.012 (0.021)	0.002 (0.006)	-0.001 (0.008)	-0.001 (0.009)
	관측치		8,318	7,240	6,859	6,256	5,345
	R-sq.		0.018	0.010	0.015	0.014	0.014
신용점수	햇살론 이용	Coef. S.E.	-12.222*** (0.992)	-30.417*** (1.995)	-45.482*** (2.391)	-73.668*** (2.719)	-91.965*** (2.973)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6.397*** (1.473)	42.052*** (2.959)	69.019*** (3.547)	105.268*** (4.034)	142.311*** (4.411)
	햇살론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14.735*** (2.155)	-2.245 (4.324)	-17.127*** (5.191)	-37.768*** (5.904)	-56.511*** (6.456)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25	0.047	0.076	0.131	0.174
채무조정 신청 여부	햇살론 이용	Coef. S.E.	0.00003 (0.000)	0.0001 (0.001)	-0.001 (0.002)	0.017*** (0.004)	0.079*** (0.005)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06*** (0.001)	0.025*** (0.002)	0.034*** (0.003)	0.055*** (0.005)	0.046*** (0.008)
	햇살론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06*** (0.001)	-0.025*** (0.002)	-0.024*** (0.004)	-0.020*** (0.008)	0.013 (0.011)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06	0.020	0.012	0.014	0.03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상수항과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 햅살론으로 인해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변화하는 효과는 7 등급 이하 저신용등급과 6등급 이상 신용등급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신용점수에서는 저신용등급 차주들이 햅살론 대출을 발급받을 시점에 신용점수가 고신용 차주에 비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

었다. 6등급 이상 고신용등급에서는 미이용자에 비해 햄살론 대출시점에 신용점수가 12.2점 하락하는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차주에서는 추가적으로 14.7점 더 증가하여 총 2.5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햄살론 대출 이후 1년 이후에는 저신용등급 차주가 고신용 차주에 비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폭이 더 커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신용등급의 추가적인 신용점수 하락 폭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햄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대출시점과 2년 이후까지 감소하는 현상은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자비용, 신용대출기관 수

<표 4-6>은 기준 대출의 평균금리가 높았던 햄살론 이용자에서 햄살론 이용으로 인한 신용대출 평균금리 감소효과, 신용점수 개선 및 채무조정 신청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분석 결과이다.

<표 4-6> 총대출 금리수준별 햄살론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햇살론 이용 x 총대출 금리	-0.119*** (0.019)	-0.205*** (0.079)	-0.071*** (0.022)	-0.082*** (0.025)	-0.037 (0.028)
	관측치	8,318	7,240	6,859	6,256	5,345
	R-sq.	0.072	0.013	0.151	0.232	0.320
신용점수	햇살론 이용 x 총대출 금리	57.303*** (8.094)	109.288*** (16.331)	113.779*** (19.727)	88.162*** (22.718)	145.396*** (25.184)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16	0.028	0.044	0.079	0.100
채무조정 신청 여부	햇살론 이용 x 총대출 금리	0.007* (0.004)	0.020** (0.009)	0.008 (0.016)	0.009 (0.029)	0.111*** (0.042)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02	0.004	0.003	0.006	0.030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총대출 금리, 햄살론 더미, 대출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출 이후 2년까지 기존 총 대출 평균금리가 높았던 차주에서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용점수도 기존에 평균금리가 높은 차주일수록 더욱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서는 교호작용 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자부담이 높았던 햅살론 이용 차주는 이후에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오히려 더 커진다.

<표 4-7>은 기존에 신용대출을 발급받은 기관 수가 많아 채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들에게서 햅살론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결과이다. 신용대출 채무기관이 많아 채무구조가 복잡할수록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많고, 복잡한 채무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기존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가 많을수록 1개월 전에 비해 대출시점과 4년 후에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은 다중채무

<표 4-7>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별 햅살론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햇살론 이용 x 대출기관 수	0.034*** (0.003)	0.016 (0.013)	0.004 (0.004)	0.002 (0.004)	0.015*** (0.005)
	관측치	8,318	7,161	6,711	6,000	5,072
	R-sq.	0.064	0.011	0.022	0.023	0.015
신용점수	햇살론 이용 x 대출기관 수	1.597 (1.029)	9.918*** (2.128)	7.203*** (2.556)	5.562* (2.943)	4.627 (3.248)
	관측치	13,861	13,781	13,859	13,860	13,859
	R-sq.	0.014	0.025	0.041	0.076	0.096
채무조정 신청 여부	햇살론 이용 x 대출기관 수	-0.0003 (0.001)	-0.004*** (0.001)	-0.009*** (0.002)	-0.008** (0.004)	0.004 (0.005)
	관측치	13,861	13,781	13,859	13,860	13,859
	R-sq.	0.002	0.006	0.008	0.015	0.038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 의미를 의미함. 신용대출기관 수, 햅살론 더미, 대출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들에서는 햅살론 이용으로 인한 금리 감소 효과가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기존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을수록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신청 여부는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을수록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가 많은 대중채무자에게 햅살론 이용을 통해 신용점수가 개선되고 채무조정 신청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햅살론 취급 금융기관

<표 4-8>은 햅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업권에 따라 햅살론 이용으로 인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이다. 신용대출 평균금리에서는 저축은행과 햅살론 이용 변수의 교호 작용에 대한 추정계수가 대출시점에 유의한 음의 값을, 1년 이후에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저축은행에서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가 상호금융에서 햅살론을 발급받은 차주에 비해 대출시점에는 평균금리가 1.5%p 더 감소 하지만, 대출 2년 후에는 상호금융에서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에 비해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5%p 더 증가하였다.

대출시점의 신용점수 변화도 저축은행에서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가 상호금융에서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에 비해 30점가량 더욱 낮게 나타났으며,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햅살론 대출 2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현상도 저축은행에서 햅살론을 발급받을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축은행에서 햅살론을 이용한 경우 상호금융 이용자 대비 햅살론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출모집인의 영업에 의존하는 저축은행과 조합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금융권역의 영업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상호금융 햅살론의 금리가 저축은행 햅살론 금리 보다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표 4-8> 햅살론 취급 금융기관별 햅살론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햇살론 이용 x 저축은행	-0.015*** (0.005)	0.014 (0.023)	0.012* (0.006)	0.015** (0.007)	0.017** (0.008)
	관측치	6,644	5,795	5,492	5,051	4,387
	R-sq.	0.023	0.012	0.016	0.017	0.016
신용점수	햇살론 이용 x 저축은행	-29.659*** (1.953)	-22.470*** (3.936)	-31.212*** (4.696)	-38.123*** (5.433)	-25.544*** (6.106)
	관측치	11,832	11,764	11,831	11,831	11,830
	R-sq.	0.048	0.025	0.037	0.074	0.100
채무조정 신청 여부	햇살론 이용 x 저축은행	-0.001 (0.001)	-0.002 (0.002)	-0.003 (0.004)	0.024*** (0.007)	0.085*** (0.010)
	관측치	11,832	11,764	11,831	11,831	11,830
	R-sq.	0.002	0.004	0.006	0.007	0.037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저축은행 더미, 햅살론 더미, 대출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연소득

<표 4-9>는 햅살론 이용의 효과가 차주의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햅살론 대출 1년 이후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나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효과는 연소득이 높은 차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공급의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소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정책자금만 공급하는 것보다는 취업지원과 같은 소득창출과 관련된 복지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햅살론 이용이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대출 후 4년 이후 외에는 연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채무조정 신청에는 연소득 자체보다는 부채와 연소득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9> 연소득별 햄살론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햇살론 이용 x 연소득	0.001*** (0.000)	0.002 (0.001)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관측치	8,318	7,240	6,859	6,256	5,345
	R-sq.	0.019	0.010	0.011	0.011	0.010
신용점수	햇살론 이용 x 연소득	0.108 (0.132)	0.650** (0.270)	1.470*** (0.323)	1.790*** (0.371)	2.589*** (0.411)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12	0.026	0.043	0.081	0.103
채무조정 신청 여부	햇살론 이용 x 연소득	0.0001 (0.000)	-0.0001 (0.000)	0.00001 (0.000)	-0.001 (0.000)	-0.003*** (0.001)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02	0.004	0.003	0.004	0.027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연소득, 햄살론 더미, 대출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4절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성과분석

1. 기초통계량 및 대조군 비교

가.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표 4-10>은 2012년과 2014년 4~11월에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 17,409명과 PSME 방식으로 짹지어진 미이용자 17,409명의 요약통계량을 나타낸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새희망홀씨 이용 1개월 전 시점에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이용자, 미이용자 모두 9%로 유사했다.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도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61.0만원으로 미이용자의 65.3만원에 비해 다소 작았다.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도 이용자, 미이용자가 유사하였으며,

<표 4-10>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구 분	새희망홀씨 이용자		미이용자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대출 평균금리	0.10	0.09	0.10	0.09
신용대출 평균금리	0.09	0.10	0.09	0.11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천원)	610.23	1687.00	653.86	1835.91
총대출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	0.16	2.03	0.17	2.58
장·단기 카드론 신용대출 잔액(천원)	2,637.11	4,095.12	3,144.70	5,469.22
총대출 대비 장·단기 카드론 비중	0.37	0.52	0.36	0.54
신용등급(1~10등급)	5.38	1.45	5.38	1.74
신용점수	701.07	103.31	701.26	128.32
채무조정 여부	0.00	0.00	0.00	0.01
DTI 비율(%)	25.20	37.65	25.95	41.16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천원)	2,921.03	8,388.62	2,708.52	9,418.87
총대출 대비 은행권 신용대출 비중	0.21	0.36	0.12	0.30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천원)	1,445.39	1,587.87	1,500.85	2,566.52
관측치	17,409명		17,409명	

주: 신용대출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과 비중의 관측치는 매칭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 관측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신용대출 평균금리 관측치는 이용자와 미이용자 각각 9,270명, 7,886명이며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과 비중은 이용자와 미이용자 각각 17,333명과 17,103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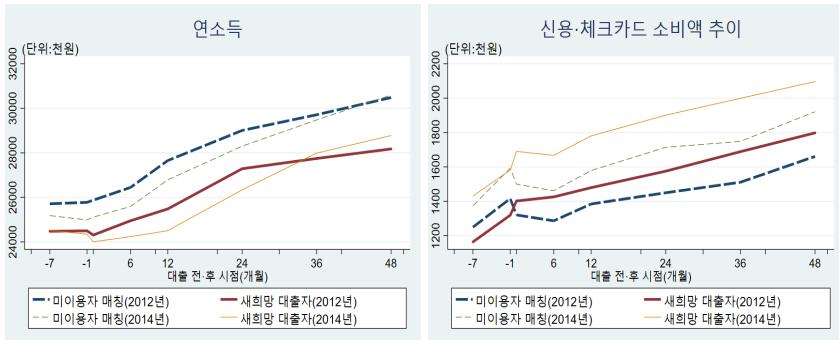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평균적인 신용등급은 5.4등급이었다.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 모두 기준시점에서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 잔액은 새희망홀씨 이용자가 292만원으로, 미이용자의 271만원에 비해 다소 높았다.

나. 대출 전후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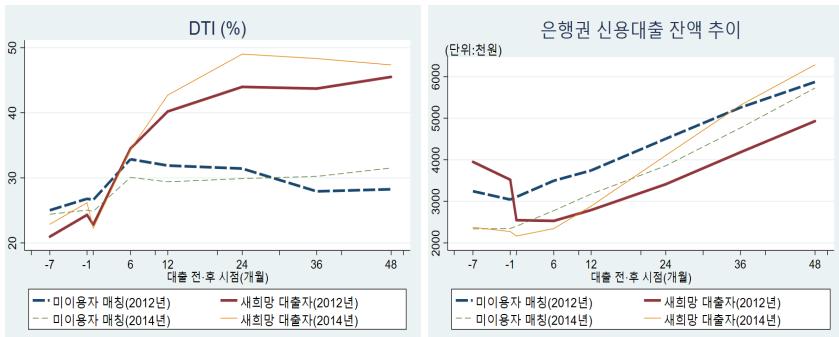
[그림 4-5]~[그림 4-8]은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각 종속변수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5]의 새희망홀씨 이용자·대조군의 연소득과 카드지출액 추이는 [그림 4-1] 햅살론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연소득 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다소 낮게 유지

[그림 4-5]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연소득, 소비지출액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6]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DTI,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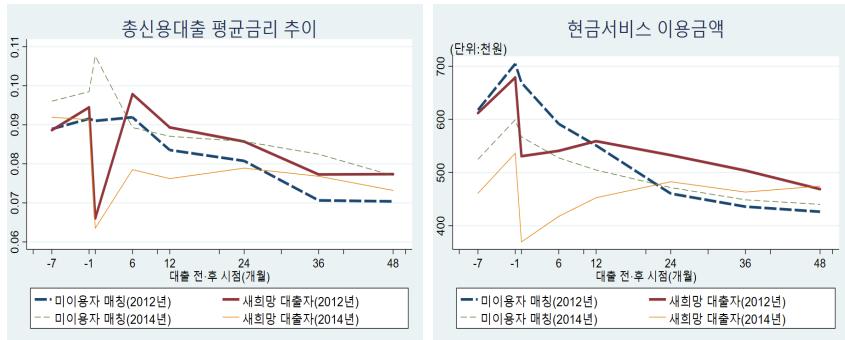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되는 반면, 카드지출액은 대조군에 비해 더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새희망홀씨 발급시점에 지출액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은 미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할 때 연소득 대비 지출 수준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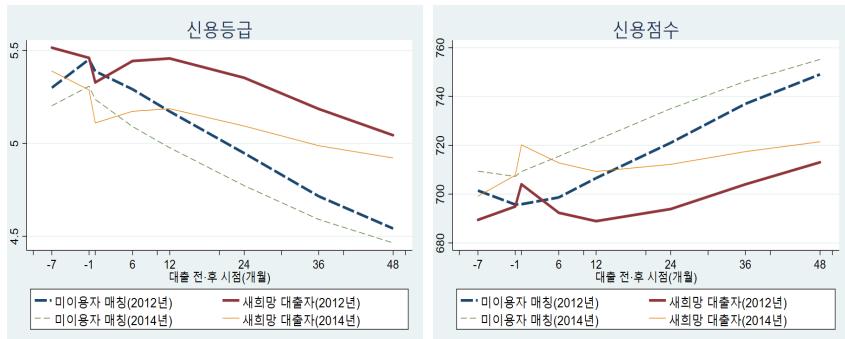
[그림 4-6]의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DTI 변화 추이에서도 향실론과 유사하게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1년 이후부터 DTI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반면, 미이용자 대조군은 기준시점 전후 DTI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증가 속도는 향실론의 경우와 달리 미이용자 대조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7]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현금서비스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8]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신용 등급 · 점수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7]의 신용대출 평균금리에서도 햇살론의 경우와 유사하게 새희망홀씨 미이용자들의 평균금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시점에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다시 기준과 유사하게 반등한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기준시점에서부터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대조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새희망홀씨 대출시점에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크게 감소시킨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시키고 있는 반면, 대조군은 기준에 높은 수준이었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이용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림 4-8]은 새희망홀씨 미이용자들에서 신용이 더욱 빠른 속도로 개선됨을 나타낸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시점에 잠시 신용도를 개선하였다가 1년 후 원래 수준을 회복한 후 서서히 신용도를 개선한다.

2.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가. 금리비용 및 카드대출 이용

<표 4-11>은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에서 미이용자에 비해 평균금리가 낮아지고 현금서비스 이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PSME-DID 분석 결과이다. 햄슬론과 마찬가지로 새희망홀씨 이용시점에 신용대출 및 총대출의 평균금리가 미이용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지만, 대출시점 6개월 후부터 이용자의 평균금리가 미이용자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만, ‘부록 3’에서 현금서비스

<표 4-11>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

PSME-DID 종속변수: 새희망홀씨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4년 후 $\Delta y_{-49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4*** (0.003)	0.003* (0.002)	0.003*** (0.001)	0.002** (0.001)	0.003** (0.001)
	표준오차					
	관측치	30,725	29,021	28,047	26,835	25,815
	R-sq.	0.001	0.004	0.004	0.004	0.002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4*** (0.006)	0.010*** (0.003)	0.006*** (0.002)	0.006*** (0.002)	0.005**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5,049	12,453	11,594	10,446	9,561
	R-sq.	0.002	0.005	0.005	0.005	0.002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123.474*** (12.338)	-43.646*** (15.573)	22.587 (16.939)	87.534*** (17.762)	86.399*** (20.313)
	표준오차					
	관측치	34,427	34,072	34,335	34,244	34,104
	R-sq.	0.004	0.001	0.001	0.002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잔액 · 비중과 장 · 단기 카드론 비중을 적용한 ‘매칭 3’에서는 평균금리가 미이용자에 비해 더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현금서비스 잔액은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미이용자에 비해 대출 시점과 6개월 후까지 잔액을 감소시키지만, 대출 2년 이후부터는 미이용자에 비해 현금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부록 3’에 제시된 다양한 매칭방식에서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나.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표 4-12>는 새희망홀씨 이용자 차주의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변화하는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PSME-DID로 분석한 결과이다.

새희망홀씨 이용자 더미의 신용 등급 · 점수의 추정계수가 새희망홀씨

<표 4-12> 새희망홀씨 이용이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PSME-DID 종속변수: 새희망홀씨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086*** (0.008)	0.139*** (0.013)	0.256*** (0.016)	0.371*** (0.019)	0.486*** (0.022)
	표준오차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05	0.005	0.009	0.012	0.014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9.627*** (0.512)	-5.489*** (1.003)	-15.173*** (1.217)	-24.890*** (1.478)	-34.716*** (1.684)
	표준오차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11	0.002	0.005	0.009	0.013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02* (0.000)	-0.001*** (0.000)	-0.003*** (0.001)	0.001 (0.001)	0.016*** (0.002)
	표준오차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005	0.001	0.001	0.000	0.00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대출시점에서 유의한 음·양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새희망홀씨를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이 미이용자에 비하여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등급의 개선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차입구조 개선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새희망홀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차주들이 대출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신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 6개월 이후에는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미이용자에 비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이용자 대비 정책자금 이용자의 신용등급 악화가 햇살론 이용자에서는 대출 1년, 2년, 3년 각각 0.67, 1.05, 1.37로 크게 나타난 것에 비하면(표 4-3),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는 0.26, 0.37, 0.4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서도 햇살론과 유사하게 새희망홀씨 발급 1년 후 까지는 미이용자보다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나, 4년 이후부터는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상기의 분석 결과는 ‘부록 3’에서 매칭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한 강건성 검정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 DTI, 은행 신용대출 및 카드지출액

<표 4-13>은 기준시점(새희망홀씨 이용 1개월 전)에 비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과 신용카드 지출액이 변화하는 정도에 새희망홀씨 이용 여부가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햇살론 이용자를 분석한 <표 4-4>와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DTI 수준은 햇살론의 경우와 유사하게 새희망홀씨 이용시점에 미이용자보다 하락하지만, 대출 6개월 이후부터는 이용자의 DTI가 유의하게 더 높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그림 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출 1년 후 DTI는 40%대로 나타나 70%대의 햇살론 이용자 DTI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할 때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DTI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새희망홀씨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PSME-DID 종속변수: 새희망홀씨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4년 후 $\Delta y_{49개월}$
DTI (부채상환 /연소득)	추정계수	-2.509***	3.617***	11.493***	16.358***	17.328***
	표준오차	(0.296)	(0.778)	(0.945)	(1.081)	(1.086)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03	0.001	0.005	0.007	0.008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991.800***	-987.248***	-760.343***	-357.783***	63.302
	표준오차	(50.547)	(81.368)	(101.725)	(134.662)	(195.515)
	관측치	30,725	29,705	28,815	27,643	26,750
	R-sq.	0.016	0.007	0.004	0.003	0.003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189.206***	193.726***	201.792***	207.491***	210.128***
	표준오차	(21.684)	(23.100)	(24.564)	(26.974)	(31.073)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04	0.004	0.003	0.003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접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미이용자에 비해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 유의하게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소폭은 대출시점에 99만 원 정도이다. 대출자의 새희망홀씨 이용금액이 증가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가 최대 3,000만원, 소득의 80~1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의 감소 수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카드지출액은 미이용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가 수준은 19만원 정도로 핵심은 이용자의 경우(표 4-4)와 유사하다. 새희망홀씨의 공급도 대출자의 차입계약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소비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의 분석 결과는 매칭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여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부록 3).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가. 저신용등급 여부

<표 4-14>는 저신용등급의 차주에서 새희망홀씨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PSME-DID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대출

<표 4-14> 신용등급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새희망 이용	Coef. S.E.	-0.025*** (0.006)	0.006* (0.003)	0.003* (0.002)	0.003 (0.002)	0.001 (0.002)
	새희망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15 (0.014)	-0.024*** (0.007)	-0.028*** (0.004)	-0.033*** (0.005)	-0.047*** (0.006)
	새희망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11 (0.024)	0.055*** (0.013)	0.030*** (0.006)	0.033*** (0.008)	0.040*** (0.009)
	관측치		15,049	12,453	11,594	10,446	9,561
	R-sq.		0.002	0.007	0.010	0.010	0.009
신용점수	새희망 이용	Coef. S.E.	9.062*** (0.527)	-4.262*** (1.030)	-12.261*** (1.246)	-20.457*** (1.505)	-28.418*** (1.704)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4.998*** (1.300)	33.424*** (2.539)	60.072*** (3.076)	94.426*** (3.717)	129.973*** (4.208)
	새희망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21.832*** (2.320)	10.688** (4.522)	-1.958 (5.489)	0.910 (6.631)	-4.072 (7.508)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17	0.011	0.021	0.035	0.050
채무조정 신청 여부	새희망 이용	Coef. S.E.	-0.000001 (0.000)	-0.0001 (0.000)	-0.001** (0.001)	0.003*** (0.001)	0.019*** (0.002)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02*** (0.000)	0.011*** (0.001)	0.019*** (0.001)	0.030*** (0.003)	0.037*** (0.005)
	새희망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02*** (0.000)	-0.007*** (0.001)	-0.011*** (0.003)	-0.019*** (0.005)	-0.015* (0.009)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02	0.007	0.006	0.003	0.005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시점에 저신용 더미와 새희망홀씨 이용 더미 간 교호작용 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대출시점에서 하락하는 효과는 저신용등급과 6등급 이상 등급 간에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출 6개월 이후부터는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저신용 차주에서 평균 신용대출금리가 고신용등급 차주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신용등급에 적용되는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대출자가 정책서민금융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출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평균금리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신용등급에서는 대출시점에 고신용등급보다 신용점수가 유의하게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6등급 이상 고신용등급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시점에 신용점수가 9.1점 상승하는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차주에서는 21.8점이 추가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저신용 차주에서 새희망홀씨 이용으로 인해 채무구조를 개선할 여지가 더 많았거나, 새희망홀씨를 이용하기 위해서 채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서도 대출 이후 6개월까지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에서만 나타난다.

나. 이자비용, 신용대출기관 수

<표 4-15>는 대출자가 이용하던 총대출의 기준 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새희망홀씨의 이용으로 인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총대출 평균금리가 높았던 차주에서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든 시점에서 관찰되며 금리 감소 효과도 햇살론 이용자에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기존 총대출의 평균금리가 10%p 높았던 차주에게는 새희망홀씨 이용으로 인해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시기에 따라 1.34~2.00%p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신용점수도 기준에 평균금리가 높은 차주 일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준 평균금리가 10%p 더 높

<표 4-15> 총대출 금리수준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새희망 이용 x 총대출 금리	-0.134* (0.070)	-0.017 (0.038)	-0.144*** (0.017)	-0.189*** (0.019)	-0.200*** (0.020)
	관측치	15,049	12,453	11,594	10,446	9,561
	R-sq.	0.006	0.017	0.149	0.225	0.343
신용점수	새희망 이용 x 총대출 금리	89.434*** (5.689)	88.656*** (11.172)	92.551*** (13.573)	89.714*** (16.493)	73.074*** (18.791)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21	0.005	0.007	0.011	0.013
채무조정 신청 여부	새희망 이용 x 총대출 금리	-0.001 (0.001)	-0.004 (0.004)	-0.024*** (0.007)	-0.024* (0.013)	-0.001 (0.021)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00	0.001	0.002	0.004	0.007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새희망홀씨, 총대출 금리,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았던 햇살론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하여 신용점수가 대출시점, 6개월 후, 1년, 2년, 4년 차에 5.7, 10.9, 11.4, 8.8, 14.5 더 증가(표 4-6)하는 반면, 같은 경우 미이용자 대비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신용점수 증가는 8.9, 8.9, 9.3, 9.0, 7.3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서도 대출시점과 1년, 4년 이후 시점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리가 10%p 높은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1년 후에는 0.24%p 낮아졌다.

<표 4-16>은 새희망홀씨 이용 이전에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에 따라서 새희망홀씨 이용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이다. 햇살론을 분석한 <표 4-7>과 유사하게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을 수록 채무조정 신청의 감소와 신용점수 개선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기존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채무자들은 신용대출 발급기관이

<표 4-16>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새희망 이용 x 대출기관 수	0.053*** (0.011)	0.009 (0.006)	0.011*** (0.003)	0.018*** (0.003)	0.018*** (0.003)
	관측치	15,049	12,243	11,245	9,891	8,805
	R-sq.	0.004	0.006	0.013	0.014	0.010
신용점수	새희망 이용 x 대출기관 수	-0.699 (0.762)	1.317 (1.562)	2,413 (1.875)	4.136* (2.279)	5.154** (2.594)
	관측치	30,725	30,414	30,723	30,720	30,718
	R-sq.	0.004	0.004	0.007	0.009	0.012
채무조정 신청 여부	새희망 이용 x 대출기관 수	-0.0002* (0.000)	0.0004 (0.001)	-0.002* (0.001)	-0.005** (0.002)	-0.008*** (0.003)
	관측치	30,725	30,414	30,723	30,720	30,718
	R-sq.	0.001	0.001	0.003	0.005	0.005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새희망홀씨, 총대출 금리,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적은 새희망홀씨 이용자에 비해 정책자금을 이용한 이후에도 이자비용을 충분히 낮추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 연소득

<표 4-17>은 연소득 수준별로 새희망홀씨 이용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연소득과 새희망홀씨 이용 변수 간 교호작용의 추정계수는 신용대출 평균금리에서 대출 6개월 후, 1년 후 및 4년 후에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또한 신용점수의 변화는 연소득이 높은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 대출 이후 모든 시점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햄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비용 감소 및 신용점수 개선의 효과는 연소득이 높은 차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도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연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7> 연소득별 새희망홀씨 성과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Δy_{13}	2년 후 Δy_{25}	4년 후 Δy_{49}
신용대출 평균금리	새희망 이용 x 연소득	-0.001 (0.001)	-0.001** (0.000)	-0.0005** (0.000)	-0.0002 (0.000)	-0.001*** (0.000)
	관측치	15,049	12,453	11,594	10,446	9,561
	R-sq.	0.002	0.006	0.006	0.006	0.004
신용점수	새희망 이용 x 연소득	0.159** (0.068)	0.307** (0.135)	0.511*** (0.161)	0.509*** (0.196)	0.853*** (0.223)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12	0.003	0.006	0.011	0.017
채무조정 신청 여부	새희망 이용 x 연소득	0.000005 (0.000)	0.00002 (0.000)	0.00007 (0.000)	-0.0001 (0.000)	0.0002 (0.000)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00	0.001	0.001	0.000	0.00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새희망홀씨, 총대출 금리,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이 차주의 금리비용, 신용도, 채무조정 신청 여부, 현금서비스 잔액, 지출 수준, 제도권 신용대출에의 접근성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제3장에서는 2012년, 2014년, 2016년에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의 행태 변화를 추적하여 기초통계 수준을 해석한 바와 달리, 제4장에서는 보다 염밀한 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상품 이용자와 유사한 미이용자 대조군을 정책자금을 이용할 확률을 나타내는 성향점수를 활용하여 짚짓기하였다. 이후 미이용자의 경제적 지표가 기준시점 대비 변화한 정도와 비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지표가 대출시점 전월에 비해 변화한 정도에 추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중차분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제3장의 기초자료에 나타난 각 지표의 행

태 변화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 여러 차이가 발견되는 반면, 각 상품 이용자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두 상품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미이용자 대조군에 비해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는 대출시점에 대출 1개월 전보다 평균금리, 고금리 현금서비스 잔액, 채무조정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햅살론 대출 6개월 이후부터 DTI, 1년 이후부터는 평균금리, 2년 이후부터는 채무조정 확률이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도 대출 6개월 후부터 신용대출의 평균금리와 DTI가, 4년 후부터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미이용자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정책자금 이용이 금리비용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유지되지 못함을 발견하였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신용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햅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카드지출액은 미이용자에 비해 대출시점에서 20만원가량 증가하며, 그 이후에도 지출액 증가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완화된 차입제약이 이용자의 소비 및 생활 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용도 개선 정도는 상품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났는데,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대출시점에만 신용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미이용자에 비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반면, 햅살론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는 저신용 여부, 기존의 이자비용 수준, 신용대출기관 수,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채무자 특성별로 정책자금 이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신용도별로 구분하면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에서 채무조정 신청확률의 감소 효과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신용등급 차주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외의 다른 상품을 이용하였을 경우 적용 금리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존에 채무조정 신청 비

중이 높은 저신용자에서 정책자금 공급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화률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용점수에 대한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대출 1년 이후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저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가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햅살론 이용자에서는 저신용등급의 신용점수가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 금리수준별로 정책자금의 효과를 구분하면,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 차주 모두에서 기준의 대출 평균금리가 높을수록 신용대출금리 감소 효과, 신용점수 개선 효과, 채무조정 신청 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을수록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에 따른 신용점수 개선 및 채무조정 신청 감소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났다. 따라서 기준에 금리부담이 높고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가 많아서 채무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높았던 차주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효과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정책서민금융의 효과를 비교하면 두 상품 모두에서 평균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나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효과는 연소득이 높은 차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자금 공급의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소득 개선을 위한 취업알선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장의 분석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 대조군과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을 비교하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의 성과를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료상의 한계로 불법사채 및 고금리 대부업 이용 잔액에 대한 분석은 제외되어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시 배경을 감안하면 정책자금을 이용한 차주가 미이용 차주에 비해 불법사채 및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덜 이용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분석은 다른 형태의 자료와 분석기법을 통해 접근해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하였다.

또한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공급되는 다른 형태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그 내역이 KCB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소금융을 이용한 차주의 정보가 본 분석에서 미이용자 대조군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본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미소금융의 공급규모가 헛살론 및 새희망홀씨에 비해 상당히 작고 헛살론과 새희망홀씨의 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소금융의 존재가 본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부록 2. 추가 분석 결과

장·단기 카드론 잔액, 총대출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 총대출 대비 은행 신용대출 비중의 변화는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본문에서는 생략되었다. 아래에서는 해당 변수가 햅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변화한 정도를 PSME-DID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부표 4-1>은 햅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비교 결과이다. 햅살론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대출시점과 6개월 후 장·단기 카드론 잔액을 각각 90.7만원, 25.7만원 감소시켰다. <표 4-2>에서 햅살론 이용자가 대출시점과

<부표 4-1> 햅살론이 카드론 잔액, 현금서비스·은행 대출 비중에 미친 효과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장·단기 카드론 잔액	추정계수	-907.590*** (38.595)	-257.931*** (65.770)	95.822 (82.894)	124.816 (98.931)	33.318 (112.002)
	표준오차					
	관측치	14,730	14,649	14,728	14,729	14,728
	R-sq.	0.038	0.003	0.003	0.003	0.006
총대출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	추정계수	0.025	0.018	0.033	-0.041	0.001
	표준오차	(0.019)	(0.022)	(0.025)	(0.045)	(0.022)
	관측치	13,594	12,848	12,417	11,767	10,841
	R-sq.	0.001	0.002	0.001	0.001	0.002
총대출 대비 은행권 신용대출 비중	추정계수	0.007*** (0.001)	0.003 (0.002)	-0.003 (0.003)	-0.008** (0.004)	-0.001 (0.005)
	표준오차					
	관측치	13,787	13,041	12,613	11,948	10,989
	R-sq.	0.003	0.002	0.001	0.002	0.00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2> 새희망홀씨가 카드론, 현금서비스·은행 대출 비중에 미친 효과

PSME-DID 종속변수: 새희망홀씨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장·단기 카드론 잔액	추정계수	-1,085.108***	-32,374	574.955***	826.398***	897.698***
	표준오차	(26.772)	(42.444)	(50.992)	(59.598)	(72.118)
	관측치	34,818	34,501	34,816	34,813	34,810
	R-sq.	0.048	0.001	0.004	0.006	0.005
총대출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	추정계수	0.037	-0.011	0.001	0.025	0.045
	표준오차	(0.028)	(0.028)	(0.030)	(0.040)	(0.048)
	관측치	30,032	28,726	28,061	26,763	25,745
	R-sq.	0.000	0.000	0.000	0.001	0.000
총대출 대비 은행권 신용대출 비중	추정계수	-0.023***	-0.040***	-0.043***	-0.028***	-0.008*
	표준오차	(0.002)	(0.002)	(0.003)	(0.004)	(0.005)
	관측치	30,390	29,075	28,400	27,086	26,023
	R-sq.	0.012	0.013	0.012	0.009	0.008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를을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6개월 이후 대조군에 비해 현금서비스 이용을 22만원, 5.8만원가량 감소 시킨 것을 감안하면 장기 카드대출 감소폭이 현금서비스 감소보다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대출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햄살론 이용자는 은행 신용대출의 비중도 대조군에 비해 대출시점에 잠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표 4-2>는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이다. 새희망
홀씨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대출시점에 장·단기 카드론 잔액을 각각
108.5만원 감소시켰지만 대출 1년 및 2년 이후에는 57.4만원, 82.6만원 증
가시키고 있다. <표 4-11>에서 햄살론 이용자가 대출시점에는 현금서비
스를 대조군에 비해 12.3만원 감소시켰으나, 대출 2년 후 8.7만원 더 증
가시키는 것을 감안하면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대출 1년 이후부터 장기
카드대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대출 대비 현금

서비스 비중은 햅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표 4-11>에서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바와 같이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의 총대출 대비 비중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부록 3. 성향점수 매칭의 특성변수를 다르게 적용한 PSME-DID 분석 결과: 강건성 검정

제4장에서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비교 대상인 미이용자 대조군의 성과 변화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각 상품 이용자의 대조군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의 대조군을 찾기 위하여 많은 특성변수를 포함하였다(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대부업 이용 여부, 연소득, 연령, 성별, 거주지역, 총대출 잔액,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신용·체크카드 소비액, 총대출 대비 장·단기 카드론 비중, 장·단기 카드론 잔액, 채무조정 신청 여부, DTI 비율, 총대출 금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특성변수를 매칭과정에 포함할 경우 적절한 짹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KCB의 풍부한 표본자료를 활용한 결과, 각 이용자와 유사한 대조군이 대부분 선정될 수 있었다.

본 부록에서는 매칭과정에 활용된 특성변수의 일부를 변화시켜 대조군을 설정한 후에도 본문의 분석 결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매칭방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켰는데, 첫째로 ‘매칭방식 2’에서는 장·단기 카드론 비중 및 잔액 대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과 비중을 특성변수에 포함시켰다. 둘째로 ‘매칭방식 3’에서는 카드대출 비중과 현금서비스 비중 및 잔액을 특성변수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매칭방식 4’에서는 총대출 평균금리를 특성변수에서 제외시켰다. 특성변수 설정방식에 따라 매칭이 안 되는 관측치가 더러 존재하여, 이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매칭방식에 따라 관측치 수에 차이

가 발생하였다.

다음에서는 본문에 활용된 ‘매칭방식 1’을 이하의 세 매칭방식 2, 3, 4 보다 우선하여 선택하게 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세 가지 매칭방식으로 선정된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강건성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매칭방식 선택 기준

앞서의 강건성 검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의 추정 결과는 매칭 대조군을 선정하는 특성변수에 이자비용, 카드대출 비중·잔액, 현금서비스 비중·잔액을 포함하는 방식을 달리하여도 유사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여러 방식 중에서 본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장·단기 카드론 비중·잔액을 포함하고 현금서비스 비중 및 잔액은 제외하는 매칭방식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간략히 요약하면, 각 연도별 정책상품 이용자 결정식을 이항 Logit 모형을 통해 추정하여 추정식의 의사결정계수(Pseudo R-square) 값이 크게 나타나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후 각 매칭방식에서 선정된 대조군과 실제 이용자의 각 변수별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평균 차이가 크지 않은 매칭방식을 결정하였다.

1) 햅살론

<부표 4-3>에 따르면 햅살론 이용자 결정 추정식의 의사결정계수는 2012년 대출자에서는 0.089~0.098, 2014년 대출자에서는 0.124~0.138에서 분포하며, 값의 크기는 ‘매칭 1 – 매칭 3 – 매칭 2 – 매칭 4’의 순으로 높다. 따라서 ‘매칭 1’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부표 4-4>는 각 매칭방식에서 계산된 대조군을 활용하여 햅살론 이용자와 대조군 간 주요 변수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문에 사용된 ‘매칭 1’을 적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할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액 평균의 차이가 ‘매칭 3’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다소 크게 계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요 변수에서 이용자와 대조군의 평균

<부표 4-3> 햄살론 이용자 선정 추정식(Logit)의 Pseudo 결정계수(R-square)

	매칭 1(본문)	매칭 2(강건성)	매칭 3(강건성)	매칭 4(강건성)
	카드론 비중 및 잔액만 활용	현금서비스 비중 · 잔액만 활용	현금서비스 비중 · 잔액+ 카드론 비중	현금서비스 및 이자비용 제외
2012년	0.0988	0.0973	0.0977	0.0892
2014년	0.1382	0.1342	0.1344	0.1245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4> 햄살론 이용자와 각 매칭방식에서 선정된 대조군의 평균 차이

	매칭 1(본문) 평균		햄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의 평균 차이			
	이용자	대조군	매칭 1	매칭 2	매칭 3	매칭 4
신용등급(1~10등급)	6.57	6.58	-0.01	-0.04	-0.05	-0.02
신용점수	608.43	608.51	-0.08	1.36	2.09	0.54
대부업 이용 여부	0.05	0.06	-0.01	-0.01	-0.01	0.00
연소득	23443	23746	-303.0	-523.0	-318.0	-489.0
연령	34.04	33.22	0.82	0.87	0.64	0.45
성별(남자=1)	0.55	0.55	0.00	-0.01	0.00	0.00
직업	6.71	7.36	-0.65	-0.08	-0.66	-0.34
거주지역	3.68	3.61	0.06	0.04	0.11	-0.03
총대출 잔액	23339	22158	1181	680	1196	1394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1558.2	883.2	675.0	478.3	571.4	666.6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0.15	0.12	0.03	0.02	0.02	0.03
신용 · 체크카드 월 지출액	1397.1	1374.7	22.4	23.5	-4.8	-2.6
채무조정 신청 여부	0.00	0.00	0.00	0.00	0.00	0.00
현금서비스 이용액	942.0	726.9	215.1	133.4	98.6	242.6
현금서비스 이용액 비중	0.14	0.13	0.01	0.02	0.01	0.02
장 · 단기 카드대출	3657.1	3887.6	-230.5	630.3	418.6	-82.6
장 · 단기 카드대출 비중	0.33	0.36	-0.02	0.02	-0.02	-0.01
DTI	35.69	36.58	-0.50	0.59	-0.88	0.42
총대출 금리	0.15	0.14	0.00	0.01	0.01	0.04

주: 2012년, 2014년 4~11월에 햄살론을 이용한 대출자와 각 매칭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한 대조군의 주요 변수별 평균의 차이를 계산한 것임.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차이가 ‘매칭 1’을 적용할 때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조군을 설정하는 방식에서도 ‘매칭 1’의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매칭 1’의 방식으로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 새희망홀씨

<부표 4-5>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이용자 결정 추정식의 의사결정계수는 2012년 대출자에서는 0.038~0.040, 2014년 대출자에서는 0.047~0.052로 나타나 햇살론 이용자 결정식의 결정계수보다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낸다. 결정계수 값의 크기는 ‘매칭 1 – 매칭 4 – 매칭 3 – 매칭 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매칭 1, 4방식의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부표 4-6>을 살펴보면 카드 월 지출액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들에서 대조군과 이용자의 평균 차이는 매칭방식 1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매칭 1’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부표 4-5> 새희망홀씨 이용자 선정식(Logit)의 Pseudo 결정계수(R-square)

	매칭 1(본문)	매칭 2(강건성)	매칭 3(강건성)	매칭 4(강건성)
카드론 비중 및 잔액만 활용	현금서비스 비중 · 잔액만 활용	현금서비스 비중 · 잔액+ 카드론 비중	현금서비스 및 이자비용 제외	
2012년 표본	0.0386	0.0379	0.0384	0.0405
2014년 표본	0.0520	0.0468	0.0495	0.0510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6>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각 매칭방식에서 선정된 대조군의 평균 차이

	평균-매칭 1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대조군의 평균 차이			
	이용자	대조군	매칭 1	매칭 2	매칭 3	매칭 4
신용등급(1~10등급)	5.38	5.38	-0.01	-0.05	-0.05	-0.02
신용점수	701.07	701.26	-0.19	2.90	3.02	1.34
대부업 이용 여부	0.00	0.01	0.00	0.00	0.00	0.00
연소득	24425	25397	-972	-962	-1011	-1036
연령	34.39	34.40	-0.01	0.10	-0.08	-0.02
성별(남자=1)	0.58	0.59	-0.01	-0.01	-0.01	-0.01
직업	8.21	7.33	0.88	0.68	1.10	0.88
거주지역	2.99	3.01	-0.03	-0.04	-0.02	-0.02
총대출 잔액	21929	24854	-2925	-3447	-3595	-2873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237.49	313.44	-75.95	-85.14	-77.04	-37.19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0.03	0.04	0.00	0.00	0.00	0.00
신용·체크카드 월 지출액	1445.4	1500.8	-55.40	-69.10	-43.20	-79.80
채무조정 신청 여부	0.00	0.00	0.00	0.00	0.00	0.00
현금서비스 이용액	610.23	653.86	-43.63	-95.99	-114.2	-48.23
현금서비스 이용액 비중	0.16	0.17	-0.01	0.01	0.01	-0.01
장·단기 카드대출	2637.1	3144.7	-507.6	-51.4	-287.0	-456.8
장·단기 카드대출 비중	0.37	0.36	0.01	0.06	0.01	0.01
DTI	22.54	25.77	-3.23	-3.70	-3.35	-3.45
총대출 금리	0.10	0.10	0.00	0.00	0.00	0.01

주: 2012년, 2014년 4월~11월에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와 각 매칭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한 대조군의 주요 변수별 평균의 차이를 계산한 것임.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강건성 검정 결과

가. 매칭방식 2: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 비중 활용(카드론 비중 제외)

1) 햇살론

<부표 4-7>~<부표 4-8>은 햇살론의 미이용자 대조군에 대하여 현금서비스 잔액 및 비중을 장·단기 카드대출 잔액과 비중 대신 활용한 ‘매칭방식 2’를 적용한 것이다. 본문과 동일하게 햇살론 이용이 평균금리,

<부표 4-7> (강건성 검정) 햅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4*** (0.003)	0.006*** (0.002)	0.009*** (0.002)	0.014*** (0.002)	0.014***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3,811	12,980	12,372	11,738	10,856
	R-sq.	0.003	0.004	0.005	0.006	0.007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7*** (0.003)	0.009*** (0.003)	0.015*** (0.003)	0.017*** (0.003)	0.015*** (0.004)
	표준오차					
	관측치	8,468	7,403	6,953	6,289	5,469
	R-sq.	0.009	0.006	0.009	0.007	0.009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199.051*** (21.708)	-41.071* (23.922)	14.443 (27.113)	18.325 (29.610)	-65.079* (34.698)
	표준오차					
	관측치	14,667	14,552	14,615	14,587	14,494
	R-sq.	0.007	0.002	0.002	0.001	0.001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8> (강건성 검정) 햅살론이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
치는 효과: 매칭방식 2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156*** (0.012)	0.412*** (0.020)	0.657*** (0.024)	1.026*** (0.029)	1.392*** (0.033)
	표준오차					
	관측치	14,674	14,584	14,671	14,670	14,673
	R-sq.	0.014	0.030	0.050	0.084	0.110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8.976*** (0.889)	-28.274*** (1.792)	-49.173*** (2.169)	-81.844*** (2.516)	-108.729*** (2.789)
	표준오차					
	관측치	14,674	14,584	14,671	14,670	14,673
	R-sq.	0.010	0.018	0.036	0.070	0.097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1** (0.000)	-0.006*** (0.001)	-0.010*** (0.002)	0.008** (0.003)	0.075*** (0.005)
	표준오차					
	관측치	14,674	14,584	14,671	14,670	14,673
	R-sq.	0.001	0.004	0.004	0.003	0.02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9> (강건성 검정) 햄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2

PSME-DID 종속변수: 햄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DTI (부채상환 /소득)	추정계수	0.869	12.276***	21.474***	31.189***	34.035***
	표준오차	(0.625)	(1.708)	(2.025)	(2.238)	(2.153)
	관측치	14,674	14,584	14,671	14,670	14,673
	R-sq.	0.001	0.005	0.009	0.015	0.018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54.692**	-8.762	38.900	-33.414	-459.584**
	표준오차	(25.904)	(55.895)	(89.245)	(133.716)	(217.420)
	관측치	13,811	13,174	12,616	12,006	11,170
	R-sq.	0.001	0.001	0.001	0.001	0.002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178.155***	119.933***	105.433***	53.007	-133.321***
	표준오차	(30.681)	(32.678)	(35.220)	(41.646)	(44.797)
	관측치	14,674	14,584	14,671	14,670	14,673
	R-sq.	0.004	0.003	0.002	0.001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신용카드 대출,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 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카드지출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유의성과 방향은 본문의 <표 4-2>~<표 4-4>에 제시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 새희망홀씨

<부표 4-10>~<부표 4-12>는 앞서와 동일하게 ‘매칭방식 2’를 적용하여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조군을 찾고, 평균금리, 신용카드 대출, 신용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 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카드지출 수준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햄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 <표 4-11>~<표 4-13>상에 제시된 추정계수의 부호 및 크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부표 4-10>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PSME-DID 종속변수: 새희망홀씨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0*** (0.001)	0.004* (0.002)	0.005*** (0.001)	0.003*** (0.001)	0.003** (0.001)
	표준오차					
	관측치	30,720	29,055	28,047	26,847	25,816
	R-sq.	0.005	0.004	0.005	0.004	0.001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8*** (0.002)	0.007* (0.004)	0.009*** (0.002)	0.007*** (0.002)	0.009***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5,480	12,818	11,887	10,617	9,726
	R-sq.	0.012	0.006	0.008	0.005	0.003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95.021*** (13.873)	-18.128 (16.742)	81.712*** (18.090)	126.733*** (18.839)	146.046*** (21.351)
	표준오차					
	관측치	34,783	34,451	34,677	34,601	34,454
	R-sq.	0.002	0.001	0.002	0.004	0.004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11>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2

PSME-DID 종속변수: 햄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096*** (0.008)	0.143*** (0.013)	0.276*** (0.016)	0.411*** (0.019)	0.514*** (0.022)
	표준오차					
	관측치	34,790	34,502	34,787	34,787	34,782
	R-sq.	0.006	0.005	0.010	0.014	0.015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10.273*** (0.514)	-5.968*** (0.995)	-16.410*** (1.221)	-27.614*** (1.479)	-36.308*** (1.692)
	표준오차					
	관측치	34,790	34,502	34,787	34,787	34,782
	R-sq.	0.013	0.003	0.007	0.011	0.014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01	-0.001*** (0.000)	-0.003*** (0.001)	0.000 (0.001)	0.019*** (0.002)
	표준오차					
	관측치	34,790	34,502	34,787	34,787	34,782
	R-sq.	0.0005	0.001	0.001	0.001	0.00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12>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2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y_1개월	6개월 후 △y_7개월	1년 후 △y_13개월	2년 후 △y_25개월	4년 후 △y_49개월
DTI (부채상환 /소득)	추정계수	-2.430***	5.461***	12.194***	17.102***	17.718***
	표준오차	(0.333)	(0.760)	(0.956)	(1.093)	(1.085)
	관측치	34,790	34,502	34,787	34,787	34,782
	R-sq.	0.003	0.003	0.005	0.008	0.008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964.825***	-950.203***	-729.611***	-279.387**	-14.228
	표준오차	(48.795)	(73.812)	(103.609)	(132.988)	(191.914)
	관측치	30,720	29,725	28,821	27,645	26,692
	R-sq.	0.016	0.007	0.004	0.004	0.004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192.555***	169.781***	227.396***	225.824***	220.731***
	표준오차	(20.807)	(24.161)	(24.888)	(27.467)	(32.095)
	관측치	34,790	34,502	34,787	34,787	34,782
	R-sq.	0.004	0.004	0.004	0.003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매칭방식 3: 현금서비스 금액 · 비중과 장 · 단기 카드론 비중 활용

1) 햅살론

<부표 4-13>~<부표 4-15>는 현금서비스 잔액 및 비중과 장 · 단기 카드대출 비중을 특성변수에 모두 활용하여 햅살론 이용자의 대조군을 설정한 ‘매칭 3’을 적용한 것이다. 햅살론 이용이 평균금리, 신용카드 대출,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 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카드지출 수준에 미친 영향은 본문의 <표 4-2>~<표 4-4>에 제시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대출 2년 후 햅살론 이용자가 대조군에 비해 현금서비스 잔액과 카드 월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부표 4-13> (강건성 검정) 햄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PSME-DID 종속변수: 햄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Δy_{-1} 개월	6개월 후 Δy_{-7} 개월	1년 후 Δy_{-13} 개월	2년 후 Δy_{-25} 개월	4년 후 Δy_{-49} 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1*** (0.007)	-0.0002 (0.004)	0.010*** (0.002)	0.015*** (0.002)	0.016***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3,848	12,972	12,389	11,729	10,883
	R-sq.	0.001	0.004	0.007	0.006	0.008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8*** (0.003)	-0.008 (0.008)	0.016*** (0.003)	0.016*** (0.003)	0.019*** (0.004)
	표준오차					
	관측치	8,401	7,332	6,908	6,266	5,429
	R-sq.	0.016	0.008	0.009	0.006	0.011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177.966*** (21.594)	-34.466 (24.609)	-6.162 (27.307)	60.183** (30.123)	-27.398 (42.775)
	표준오차					
	관측치	14,700	14,585	14,657	14,618	14,538
	R-sq.	0.007	0.002	0.001	0.002	0.001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14> (강건성 검정) 햄살론이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PSME-DID 종속변수: 햄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Δy_{-1} 개월	6개월 후 Δy_{-7} 개월	1년 후 Δy_{-13} 개월	2년 후 Δy_{-25} 개월	4년 후 Δy_{-49} 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163*** (0.012)	0.465*** (0.020)	0.722*** (0.024)	1.102*** (0.028)	1.452*** (0.033)
	표준오차					
	관측치	14,704	14,606	14,699	14,702	14,702
	R-sq.	0.017	0.037	0.061	0.098	0.121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8.706*** (0.902)	-32.909*** (1.775)	-55.067*** (2.125)	-88.403*** (2.464)	-113.365*** (2.743)
	표준오차					
	관측치	14,704	14,606	14,699	14,702	14,702
	R-sq.	0.011	0.024	0.046	0.084	0.108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1** (0.000)	-0.004*** (0.001)	-0.007*** (0.002)	0.009*** (0.003)	0.086*** (0.005)
	표준오차					
	관측치	14,704	14,606	14,699	14,702	14,702
	R-sq.	0.001	0.003	0.003	0.002	0.029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햄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15> (강건성 검정) 햅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3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DTI (부채상환 /연소득)	추정계수	0.505	13.820***	25.089***	36.042***	32.912***
	표준오차	(0.593)	(1.705)	(2.019)	(2.172)	(2.203)
	관측치	14,704	14,606	14,699	14,702	14,702
	R-sq.	0.002	0.006	0.012	0.022	0.017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53.735**	-24.361	33.746	131.387	-315.992
	표준오차	(22.261)	(59.532)	(91.130)	(127.303)	(200.821)
	관측치	13,848	13,173	12,636	12,001	11,168
	R-sq.	0.002	0.001	0.002	0.001	0.001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223.472***	129.236***	120.769***	102.936**	-41.179
	표준오차	(30.445)	(33.159)	(35.111)	(40.096)	(43.136)
	관측치	14,704	14,606	14,699	14,702	14,702
	R-sq.	0.005	0.003	0.002	0.002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새희망홀씨

<부표 4-16> ~ <부표 4-18>은 ‘매칭방식 3’을 적용하여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조군을 찾은 결과이다. 평균금리, 신용카드 대출,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 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카드지출 수준의 변화 정도는 본문의 <표 4-11> ~ <표 4-13>상에 제시된 평균금리, 신용카드 대출, 신용 등급 · 점수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 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카드지출 수준 변화의 추정계수의 크기 및 유의성과 유사하다.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서 대출시점, 6개월 후, 2년 후의 결정계수와 추정값이 매우 작게 추정되어 해당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표 4-16>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1*** (0.001)	0.004** (0.002)	0.004*** (0.001)	0.002* (0.001)	0.002 (0.001)
	표준오차					
	관측치	30,527	28,870	27,891	26,776	25,671
	R-sq.	0.005	0.003	0.004	0.004	0.001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9*** (0.001)	0.009** (0.004)	0.007*** (0.002)	0.004** (0.002)	0.002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5,004	12,369	11,514	10,387	9,557
	R-sq.	0.014	0.004	0.004	0.003	0.001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96.466*** (12,459)	-23,318 (15,820)	71.041*** (16,947)	130.984*** (18,116)	138.772*** (20,713)
	표준오차					
	관측치	34,606	34,242	34,493	34,400	34,235
	R-sq.	0.003	0.001	0.002	0.004	0.004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17>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3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086*** (0.008)	0.153*** (0.013)	0.276*** (0.016)	0.395*** (0.019)	0.519*** (0.023)
	표준오차					
	관측치	34,614	34,305	34,611	34,607	34,607
	R-sq.	0.004	0.006	0.010	0.013	0.016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9.423*** (0.514)	-6.053*** (1.004)	-15.523*** (1.228)	-26.408*** (1.477)	-36.674*** (1.700)
	표준오차					
	관측치	34,614	34,305	34,611	34,607	34,607
	R-sq.	0.011	0.003	0.006	0.010	0.014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1*** (0.000)	-0.002*** (0.001)	0.0004 (0.001)
	표준오차	-				
	관측치		34,305	34,611	34,607	34,607
	R-sq.		0.0004	0.001	0.0004	0.00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대출시점의 채무

조정 신청자는 총 1명(미이용자)으로 추정이 불가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18>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3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DTI (부채상환 /소득)	추정계수	-2.628*** (0.306)	3.905*** (0.790)	10.434*** (0.949)	17.482*** (1.057)	18.198*** (1.077)
	표준오차					
	관측치	34,614	34,305	34,611	34,607	34,607
	R-sq.	0.003	0.002	0.004	0.009	0.009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959.240*** (49.238)	-874.215*** (83.104)	-678.694*** (107.591)	-336.167** (134.098)	81.336 (192.157)
	표준오차					
	관측치	30,527	29,554	28,676	27,602	26,592
	R-sq.	0.016	0.006	0.004	0.005	0.003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194.892*** (20.398)	142.718*** (24.236)	212.033*** (24.690)	224.654*** (26.845)	224.144*** (30.361)
	표준오차					
	관측치	34,614	34,305	34,611	34,607	34,607
	R-sq.	0.004	0.003	0.004	0.003	0.00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매칭방식 4: 카드대출 잔액 · 비중 활용 및 이자비용 변수 제외

1) 햅살론

<부표 4-19>~<부표 4-21>은 햅살론 이용자의 대조군을 ‘매칭방식 4’, 즉 이자비용을 특성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서비스 잔액 및 비중 대신에 카드대출 잔액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부표 4-19>의 첫 행에서 햅살론 이용자의 금리비용 감소 효과가 대출 4년 후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본문의 <표 4-2>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부도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성변수에서 금리수준을 제외하였을 경우 햅살론 미이용자의 평균 금리가 햅살론 이용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햅살론 미이용자의 평균금리가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시기에 따라 이자비용을 더 낮출 여지가 적기 때문에 ‘매칭방식 3’을 적용한 대조군에 비해 햅살론 이용자의 금리비용 감소가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의 결과는 본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표 4-19> (강건성 검정) 햅살론이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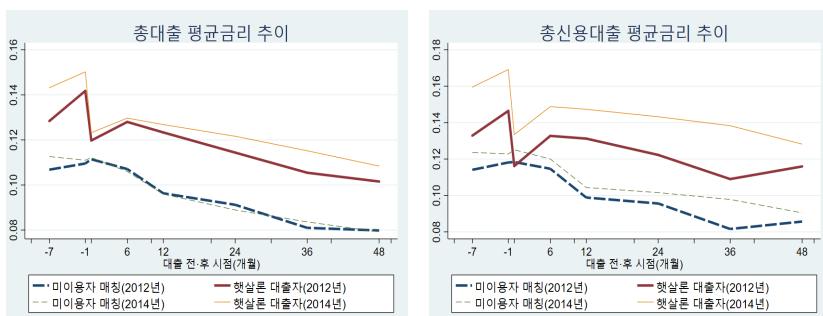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2*** (0.002)	-0.008*** (0.002)	-0.004** (0.002)	-0.003 (0.002)	-0.008***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3,866	13,019	12,461	11,863	10,977
	R-sq.	0.018	0.004	0.004	0.002	0.003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9*** (0.002)	-0.004 (0.003)	0.004 (0.003)	0.001 (0.003)	-0.010*** (0.004)
	표준오차					
	관측치	8,340	7,239	6,852	6,286	5,494
	R-sq.	0.024	0.004	0.006	0.002	0.007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182.604*** (20.838)	-88.723*** (23.714)	-63.017** (26.466)	-27.181 (28.467)	-84.289*** (31.495)
	표준오차					
	관측치	14,903	14,789	14,859	14,824	14,725
	R-sq.	0.008	0.002	0.001	0.001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4-1] 햅살론 이용자와 매칭방식 4 적용 대조군의 평균금리 추이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20> (강건성 검정) 햅살론이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177*** (0.011)	0.481*** (0.020)	0.731*** (0.023)	1.078*** (0.028)	1.495*** (0.032)
	표준오차					
	관측치	15,084	14,995	15,082	15,083	15,084
	R-sq.	0.019	0.040	0.062	0.094	0.126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10.262*** (0.859)	-34.001*** (1.722)	-56.000*** (2.083)	-86.444*** (2.437)	-117.139*** (2.702)
	표준오차					
	관측치	15,084	14,995	15,082	15,083	15,084
	R-sq.	0.014	0.026	0.048	0.080	0.113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1*** (0.000)	-0.008*** (0.001)	-0.010*** (0.002)	0.009*** (0.003)	0.084*** (0.004)
	표준오차					
	관측치	15,084	14,995	15,082	15,083	15,084
	R-sq.	0.001	0.005	0.003	0.002	0.030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21> (강건성 검정) 햅살론 이용이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4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DTI (부채상환 /소득)	추정계수	1.820*** (0.611)	15.964*** (1.701)	26.852*** (1.981)	33.666*** (2.234)	36.730*** (2.151)
	표준오차					
	관측치	15,084	14,995	15,082	15,083	15,084
	R-sq.	0.002	0.008	0.014	0.017	0.020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17.278 (20.440)	-65.202 (57.970)	-81.955 (84.875)	-56.067 (129.464)	-377.766* (199.495)
	표준오차					
	관측치	14,174	13,519	13,001	12,396	11,529
	R-sq.	0.001	0.001	0.001	0.002	0.003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248.650*** (32.943)	174.112** (36.740)	174.787*** (37.541)	132.494*** (41.905)	5.970 (42.756)
	표준오차					
	관측치	15,084	14,995	15,082	15,083	15,084
	R-sq.	0.004	0.003	0.003	0.001	0.001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새희망홀씨

<부표 4-22>~<부표 4-24>는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대조군을 ‘매칭방식 4’, 즉 이자비용을 특성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서 이용자와 비교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부표 4-22>에서 금리 감소 효과가 대출 이후 4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도출된 점이 본문의 <표 4-11>에서 금리 감소 효과가 대출 직후에만 있었다는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햇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성변수에서 이자비용이 제외되었을 때 미이용자 대조군의 평균금리가 새희망홀씨 이용자에 비해 훨씬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의 분석 결과는 본문의 <표 4-11>~<표 4-13>상에 제시된 추정계수와 유사한 부호와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표 4-22>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차주의 평균금리와 신용카드 대출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PSME-DID 종속변수: 햇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총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16*** (0.001)	-0.001 (0.002)	-0.001 (0.001)	-0.004*** (0.001)	-0.004*** (0.001)
	표준오차					
	관측치	30,665	28,988	27,953	26,858	25,798
	R-sq.	0.009	0.004	0.003	0.004	0.001
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정계수	-0.022*** (0.001)	0.003 (0.005)	0.002 (0.002)	0.001 (0.002)	-0.003 (0.002)
	표준오차					
	관측치	15,053	12,398	11,533	10,404	9,521
	R-sq.	0.018	0.006	0.003	0.002	0.002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124.313*** (11.852)	-40.396*** (15.036)	24.576 (16.144)	65.443*** (17.398)	90.057*** (19.892)
	표준오차					
	관측치	35,385	35,030	35,285	35,200	35,071
	R-sq.	0.004	0.001	0.001	0.002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햇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23>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신용 등급 · 점수,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미치는 효과: 매칭방식 4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신용등급 (높을수록 저신용)	추정계수	-0.087*** (0.007)	0.159*** (0.013)	0.276*** (0.015)	0.390*** (0.019)	0.510*** (0.022)
	표준오차					
	관측치	35,782	35,480	35,777	35,773	35,776
	R-sq.	0.005	0.005	0.010	0.013	0.015
신용점수 (높을수록 고신용)	추정계수	9.189*** (0.504)	-7.285*** (0.987)	-16.185*** (1.210)	-26.445*** (1.470)	-36.256*** (1.680)
	표준오차					
	관측치	35,782	35,480	35,777	35,773	35,776
	R-sq.	0.010	0.003	0.006	0.010	0.014
채무조정 신청 여부	추정계수	-0.0004*** (0.000)	-0.002*** (0.000)	-0.003*** (0.001)	-0.0002 (0.001)	0.015*** (0.002)
	표준오차					
	관측치	35,782	35,480	35,777	35,773	35,776
	R-sq.	0.001	0.001	0.001	0.001	0.002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24> (강건성 검정) 새희망홀씨가 DTI, 은행 신용대출 잔액, 카드지출액에 미친 효과: 매칭방식 4

PSME-DID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text{개월}}$	6개월 후 $\Delta y_{7\text{개월}}$	1년 후 $\Delta y_{13\text{개월}}$	2년 후 $\Delta y_{25\text{개월}}$	4년 후 $\Delta y_{49\text{개월}}$
DTI (부채상환 /소득)	추정계수	-2.157*** (0.320)	5.204*** (0.779)	11.494*** (0.949)	16.364*** (1.103)	17.880*** (1.081)
	표준오차					
	관측치	35,782	35,480	35,777	35,773	35,776
	R-sq.	0.002	0.002	0.005	0.007	0.008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	추정계수	-922.124*** (48,749)	-887.110*** (80,236)	-641.545*** (103,018)	-276.420** (133,953)	84,575 (186,963)
	표준오차					
	관측치	31,504	30,520	29,530	28,426	27,439
	R-sq.	0.014	0.005	0.003	0.003	0.004
신용 · 체크 카드 월 지출액	추정계수	236.654*** (20,996)	178.615*** (24,069)	225.943*** (25,175)	255.907*** (27,267)	270.664*** (30,958)
	표준오차					
	관측치	35,782	35,480	35,777	35,773	35,776
	R-sq.	0.006	0.005	0.003	0.004	0.004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햅살론 발급 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외에도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신용도, 금리수준,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 저축은행 여부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이용의 효과가 상이
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매칭기법에 관계없이 본문에 제시된 추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분석 결과는 생략하였다.

제5장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이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제1절 문제제기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2016년에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의 대부업 이용확률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이용 잔액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하고 PSME-DID 기법으로 분석한다.

앞서 제4장에서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에게 평균 대출 금리, 신용도, 채무조정 신청 여부, 현금서비스 이용액, 카드대출 수준 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성향점수를 통해 짹지어진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다. 2012년과 2014년에 각 상품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 4년 이후 각 항목에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할 수 있었다.

그런데 햇살론, 새희망홀씨 상품이 출시된 2010년경의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서민이 최고금리 수준에 육박하는 대부업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햇살론도 대환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바꿔 드림론 등의 대환상품이 제공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직접적인 목표는 서민의 고금리 대출 이용부담을 낮추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가 미이용자에 비해 최고금리 수준에 가까

운 대부업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감소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잠시 소개하면, 햅살론 이용자 는 미이용자에 비해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감소시켰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햅살론 이용자들의 금리비용이 대출 1년 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들이 정 책상품 이용 이후에 고금리 상품인 대부업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다시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16년 9~11월에 햅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 주가 미이용자에 비해 대부업 이용확률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이용 잔 액을 변화시키는지 분석한다. 분석대상을 2016년 9~11월로 한정한 이유 는 최대한 늦은 시기에 각 상품을 이용한 차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2015~16년은 분석자료의 조사기관인 KCB에서 저축은행 회원 협약사를 확충하던 시기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KCB 신용정보상 파악되는 저축 은행 종류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저축은행업권의 신용대출 잔액도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대부업 이용 여부는 KCB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활용하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대부업권의 정보가 보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⁹ 따라서 앞서 제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12년 혹은 2014년의 정책상품 이용자를 분 석하는 방식으로는 기준시점의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이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장의 계량분석 방식은 제4장과 동일하게 PSME-DID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성향점수 매칭의 방법으로는 동일하게 로짓(logit) 모형으로 각 정책상품 이용확률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으며, 특성변수로는 각 상품 이용 1개월 전의 이자비용, 대부업 이용 여 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신용등급을 포함한 여러 변수를 활용하였 다.¹⁰ 이중차분기법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에는 계량식 (5-1)이 제4장과 동

⁹ 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대부업체는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이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부업은 상당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¹⁰ 성향점수를 결정하는 변수로 햅살론(새희망홀씨) 발급 시기, 대출 1개월 전 신용등급 및

일하게 적용되며, 햇살론 혹은 새희망홀씨 이용 여부 더미의 추정계수 β_k 는 정책효과를 의미한다.

$$\Delta_t Y_i = \alpha + \beta_k Treat_{i,k} + T_i \gamma + \Delta \varepsilon_i \quad (5-1)$$

$t = 1$ 개월 후, $1, 2$ 년 후, $k =$ 햇살론, 새희망홀씨, $T_i :$ 대출발급 시기

사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기법(DID)을 활용하므로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에게 존재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 정보 파악에 따른 측정오차는 이중차분 과정에서 상쇄된다. 따라서 정책효과로 판별된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대부 이용확률 및 저축은행 이용 잔액에서 정보 누락으로 인한 편의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본 장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고금리 대출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2016년 9~11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제2절 PSME-DID 회귀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표 5-1>과 <표 5-2>는 각각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와 대조군에 해당하는 미이용자 표본에서 대부업 이용 여부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총대출 대비 비중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5-1>의 햇살론 이용자 표본과 대조군에서는 햇살론 이용 한 달 전 (대조군은 기준시점)에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던 비율이 각각 46.3%, 41.3%였다. 따라서 햇살론 이용자들의 절반가량은 이미 대부업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햇

신용점수, 대부업 이용 여부, 연소득, 연령, 성별, 거주지역(서울, 경기, 인천, 5개 광역시 구분), 총대출 잔액,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신용·체크카드 소비액, 장·단기 카드론 잔액 및 총대출 대비 비중, DTI 비율, 총대출 금리, 채무조정 신청 여부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표 5-1> 햅살론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구 분	햇살론 이용자		매칭 대조군 미이용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부업 이용 여부(더미)	0.463	0.499	0.413	0.493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천원)	4,359.193	8,122.437	2,950.917	10,871.862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0.260	0.383	0.222	0.383
관측치	2,495명		2,495명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2> 새희망홀씨 대출 1달 전 시점 종속변수의 요약통계량

구 분	새희망홀씨 이용자		매칭 대조군 미이용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부업 이용 여부(더미)	0.064	0.246	0.074	0.262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천원)	590.267	3,385.092	549.982	3,701.867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0.041	0.178	0.053	0.212
관측치	2,017명		2,017명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살론 이용자 436만원, 미이용자 295만원으로 이용자가 대조군에 비해 저축은행 대출량이 다소 높았다. 총대출에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햅살론 이용자와 대조군에서 26%, 22%로 상당히 높다.

<표 5-2>에서는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미이용자 대조군이 대출 1개월 전에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던 비율이 각각 6%, 7%로 나타나 새희망홀씨 이용자들 중 대부업을 이용한 비중은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량은 새희망홀씨 이용자, 대조군 각각에서 59만원과 55만원으로 나타나 햅살론 이용자 및 대조군보다 낮은 수준이다.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비중도 새희망홀씨 이용자, 대조군 모두 4%, 5%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상품 이용 전후 대조군과 이용자에서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추세선을 살펴본 결과, 평행추세가 관찰되어 DID 분석에 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KCB 및 신용정보원상에서 파악되는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자료 성격의 한계로 추세 자체보다는 대조군과 이용자 간의 차이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 증가의 실제 추세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활용한 추세선 그림은 제시하지 않는다.

2. 성과분석 결과

가. 햅살론 이용자

<표 5-3>을 살펴보면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의 대부업 대출 이용확률이 햅살론 대출을 발급받을 시점에는 미이용자 대조군에 비해 1%p 소폭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햅살론 대출 6개월, 1년, 2년 이후부터는 대부업 이용확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각각 5%p, 8.5%p, 12.4%p만큼 더 증가한다.

<표 5-3> 햅살론 대출이 대부업 이용 여부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햅살론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추정계수	-0.010** (0.005)	0.050*** (0.008)	0.085*** (0.010)	0.124*** (0.012)
	표준오차	4,990	4,936	4,990	4,990
	관측치	0.001	0.007	0.015	0.023
	R-sq.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추정계수	-36.500 (81.702)	831.797*** (205.816)	1,710.516*** (280.490)	2,734.589*** (349.268)
	표준오차	4,841	4,602	4,529	4,172
	관측치	0.001	0.004	0.008	0.015
	R-sq.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추정계수	-0.005* (0.003)	0.025*** (0.006)	0.043*** (0.008)	0.055*** (0.011)
	표준오차	4,831	4,587	4,509	4,128
	관측치	0.001	0.004	0.006	0.007
	R-sq.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비중에서도 햅살론 대출시점에는 미이용자 대비 감소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하다가, 대출 1년, 2년 이후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 종합하면, 햅살론 대출이 대부업 이용확률을 단기적으로 소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대출 1년 이후에는 대부업 이용 확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미이용자에 비해 오히려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햅살론 이용자들은 대출 2년 이후에 대조군에 비해 273만원 더 증가시키고 있다.

나. 새희망홀씨 이용자

<표 5-4>에서 기준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인 대출시점에 새희망홀씨 이용 더미의 추정계수는 모든 경우에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 이용 여부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의 감소폭은 0.5%p로 큰

<표 5-4> 새희망홀씨 대출이 대부업 이용 여부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새희망홀씨 대출 1개월 전 대비 이후 시점별 값의 차이					
종속변수	항목	대출시점 $\triangle y_{1\text{개월}}$	6개월 후 $\triangle y_{7\text{개월}}$	1년 후 $\triangle y_{13\text{개월}}$	2년 후 $\triangle y_{25\text{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추정계수	-0.005**	-0.001	0.007	0.020***
	표준오차	(0.002)	(0.005)	(0.006)	(0.008)
	관측치	4,034	3,980	4,034	4,034
	R-sq.	0.003	0.0003	0.001	0.002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추정계수	-88.469*	-52.748	34.326	473.407**
	표준오차	(50.431)	(114.326)	(159.340)	(184.603)
	관측치	3,629	3,573	3,552	3,431
	R-sq.	0.002	0.0004	0.001	0.002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추정계수	-0.005**	-0.007*	-0.009	0.005
	표준오차	(0.002)	(0.004)	(0.005)	(0.007)
	관측치	3,599	3,533	3,513	3,373
	R-sq.	0.003	0.001	0.001	0.001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값은 아니며, 5% 유의수준에서만 유의성을 나타낸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도 9만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도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이다.

반면, 새희망홀씨 대출 2년 이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대부업 이용은 2%p 증가하고,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이 47만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들에서도 햇살론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출 이후 장기적으로는 고금리 대출 이용이 대조군에 비해 다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무자 특성별 성과 차이 분석

가. 신용등급별

<표 5-5>와 <표 5-6>에서는 7등급 이하 저신용 계층에서 고신용등급보다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 이후 고금리 대출을 더 크게 감소시키는지 확인하고자 각 상품 이용 여부 더미와 저신용 더미의 교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햇살론 이용자에서는 대부업 이용 여부가 저신용 · 고신용 등급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에서는 저신용자가 대출 시점에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업 이용이 햇살론 이용자에서는 보편적인 반면,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는 저신용 차주에 국한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에서는 두 상품 모두에서 저신용 여부에 따른 정책상품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비중은 대출시기의 저신용 햇살론 이용자에서만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였다. 6등급 이상 고신용의 햇살론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이 1.1%p 감소하는 반면, 저신용 햇살론 이용자는 2.3%p 추가되어 대조군에 비해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이 1.2%p 증가한다.

<표 5-5> 햅살론이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신용등급별

종속변수	설명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햇살론 이용	Coef. S.E.	-0.007 (0.006)	0.054*** (0.010)	0.088*** (0.011)	0.118*** (0.013)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02 (0.007)	-0.002 (0.013)	-0.023 (0.015)	-0.063*** (0.018)
	햇살론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13 (0.011)	-0.019 (0.019)	-0.016 (0.022)	0.018 (0.026)
	관측치		4,990	4,936	4,990	4,990
	R-sq.		0.002	0.008	0.017	0.026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햇살론 이용	Coef. S.E.	-66.560 (95.041)	783.822*** (238.578)	1,689.793*** (323.210)	2,779.051*** (399.281)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19.507 (127.242)	-212.456 (329.192)	-237.368 (458.648)	-777.051 (594.896)
	햇살론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121.607 (186.536)	171.880 (472.642)	64.171 (651.295)	-210.380 (822.547)
	관측치		4,841	4,602	4,529	4,172
	R-sq.		0.001	0.004	0.008	0.016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햇살론 이용	Coef. S.E.	-0.011*** (0.003)	0.018** (0.008)	0.041*** (0.010)	0.060*** (0.012)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01 (0.004)	0.001 (0.010)	-0.005 (0.013)	-0.028 (0.018)
	햇살론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23*** (0.006)	0.027* (0.015)	0.011 (0.019)	-0.022 (0.025)
	관측치		4,831	4,587	4,509	4,128
	R-sq.		0.005	0.005	0.006	0.010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6> 새희망홀씨가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친 영향:
신용등급별

종속변수	설명변수	항목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새희망 이용	Coef. S.E.	-0.006** (0.002)	-0.002 (0.005)	0.007 (0.006)	0.019** (0.008)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10 (0.007)	-0.014 (0.014)	0.020 (0.017)	-0.005 (0.021)
	새희망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33*** (0.013)	0.042 (0.027)	0.010 (0.033)	0.040 (0.040)
	관측치		4,034	3,980	4,034	4,034
	R-sq.		0.004	0.001	0.001	0.002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새희망 이용	Coef. S.E.	-85.338* (51.670)	-85.129 (117.057)	-12.437 (162.945)	411.482** (188.418)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82.012 (131.645)	-457.351 (314.160)	-712.344 (455.660)	-1,155.080** (570.748)
	새희망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251.089 (265.928)	490.414 (630.558)	752.216 (885.904)	1,005.250 (1,027.136)
	관측치		3,629	3,573	3,552	3,431
	R-sq.		0.002	0.001	0.001	0.003
총대출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	새희망 이용	Coef. S.E.	-0.005** (0.002)	-0.008* (0.004)	-0.009 (0.006)	0.006 (0.007)
	저신용 더미 (7등급 이하)	Coef. S.E.	0.002 (0.005)	-0.012 (0.012)	-0.018 (0.016)	-0.025 (0.021)
	새희망 이용 x 저신용 더미	Coef. S.E.	0.001 (0.011)	0.015 (0.023)	-0.032 (0.030)	-0.050 (0.036)
	관측치		3,599	3,533	3,513	3,373
	R-sq.		0.003	0.001	0.002	0.003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대출 발급시 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기존의 이자비용

<표 5-7>과 <표 5-8>은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대출자 중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수준이 높을수록 고금리 대출 이용이 더욱 크게 감소함

을 나타낸다. <표 5-7>에서는 한 달 이전에 대출금리가 10%p 더 높았던 햇살론 이용자가 햇살론을 이용할 시기의 대부업 이용확률은 0.99%p,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은 29만원,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은 0.98%p만큼 더 유의하게 감소한다. 또한 <표 5-8>에서는 새희망홀씨 이용 한 달 이전에 대출금리가 10%p 더 높았던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에 비해 새희망홀씨 대출 발급시기에 대부업 이용확률을 0.59%p,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은 16.9만원,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을 0.1%p 더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나타낸다. 이렇게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에서 기존 금리비용이 높았던 이용자가 고금리 대출 이용을 더 크게 감소시키는 현상은 대출 이후 2년까지도 지속된다.

따라서 기존에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 총대출의 평균금리비용이 매우 높았던 차주일수록,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와 같은 저금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업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정책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표 5-7> 총대출 금리수준별 햇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차이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부부업 이용 여부	햇살론 이용 x	-0.099** (0.046)	-0.169** (0.082)	-0.185* (0.097)	-0.179 (0.113)
	관측치	4,990	4,936	4,990	4,990
	R-sq.	0.003	0.008	0.016	0.025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햇살론 이용 x	-2,907.488*** (810.709)	-3,578.948* (2,052.641)	-4,101.442 (2,802.460)	-7,431.358** (3,552.209)
	관측치	4,841	4,602	4,529	4,172
	R-sq.	0.003	0.004	0.009	0.016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총대출 대비)	햇살론 이용 x	-0.098*** (0.028)	-0.143** (0.065)	-0.117 (0.082)	-0.361*** (0.108)
	관측치	4,831	4,587	4,509	4,128
	R-sq.	0.005	0.008	0.015	0.034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총대출 금리, 햇살론 이용 더미,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8> 총대출 금리수준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차이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새희망 이용 x 총대출 금리	-0.059** (0.030)	-0.020 (0.062)	-0.018 (0.076)	0.122 (0.092)
	관측치	4,034	3,980	4,034	4,034
	R-sq.	0.005	0.0003	0.002	0.003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새희망 이용 x 총대출 금리	-1,693.057*** (656.787)	-764.222 (1,438.253)	622.862 (1,981.786)	1,015.215 (2,263.659)
	관측치	3,629	3,573	3,552	3,431
	R-sq.	0.004	0.001	0.001	0.003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총대출 대비)	새희망 이용 x 총대출 금리	-0.106*** (0.027)	-0.230*** (0.054)	-0.284*** (0.067)	-0.124 (0.080)
	관측치	3,599	3,533	3,513	3,373
	R-sq.	0.009	0.012	0.012	0.015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총대출 금리, 햄살론 이용 더미,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있다. 또한 기존 평균금리가 높을수록 정책자금 이용 이후 고금리 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신용대출기관 수

<표 5-9>와 <표 5-10>은 신용대출을 발급받은 기관 수가 많아 채무구조가 복잡할수록 햄살론 및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이후에도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표 5-9>에서는 기존 햄살론 이용자 중 신용대출기관 수가 1개 더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햄살론 이용 이후에도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6개월 후와 2년 후에 2%p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과 비중은 기존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을수록 대출시점부터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해당 결과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 기존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아 채무구조가

<표 5-9> 신용대출기관 수별 햅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triangle y_{1\text{개월}}$	6개월 후 $\triangle y_{7\text{개월}}$	1년 후 $\triangle y_{13\text{개월}}$	2년 후 $\triangle y_{25\text{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햇살론 이용 x 대출기관 수	0.002 (0.004)	0.020** (0.008)	0.008 (0.009)	0.020* (0.011)
	관측치	3,629	3,576	3,629	3,629
	R-sq.	0.002	0.003	0.001	0.003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햇살론 이용 x 대출기관 수	151.250** (71.141)	531.124*** (166.299)	538.306** (232.784)	300.831 (264.346)
	관측치	3,629	3,381	3,299	3,137
	R-sq.	0.004	0.003	0.002	0.002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총대출 대비)	햇살론 이용 x 대출기관 수	0.009*** (0.003)	0.014** (0.006)	0.015** (0.007)	0.016* (0.008)
	관측치	3,599	3,343	3,261	3,082
	R-sq.	0.008	0.003	0.002	0.007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를을 의미함. 총대출 금리, 햅살론 이용 더미,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10> 신용대출기관 수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triangle y_{1\text{개월}}$	6개월 후 $\triangle y_{7\text{개월}}$	1년 후 $\triangle y_{13\text{개월}}$	2년 후 $\triangle y_{25\text{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새희망 이용 x 대출기관 수	-0.001 (0.003)	0.008 (0.007)	0.010 (0.009)	0.009 (0.011)
	관측치	3,744	3,702	3,744	3,744
	R-sq.	0.001	0.004	0.003	0.006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새희망 이용 x 대출기관 수	164.572** (56.490)	369.209*** (111.735)	535.407*** (163.449)	803.644*** (235.371)
	관측치	3,744	3,494	3,362	3,215
	R-sq.	0.006	0.005	0.006	0.009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총대출 대비)	새희망 이용 x 대출기관 수	0.009*** (0.002)	0.008* (0.005)	0.010 (0.006)	0.015* (0.008)
	관측치	3,716	3,461	3,332	3,164
	R-sq.	0.008	0.002	0.002	0.006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를을 의미함. 총대출 금리, 햅살론 이용 더미,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복잡할수록 이후에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5-7>과 <표 5-8>에서 금리수준이 높았던 채무자에게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라. 연소득 수준

<표 5-11>과 <표 5-12>는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 이용자가 대조군에 비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대출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햅살론 이용자 중에서는 대출시점과 1년 후에 연소득이 높을수록 저축은행 신용 대출 잔액이 대조군에 비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이며 증가 수준도 2.7만원, 8.2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그 외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고금리 대출 변화는 연

<표 5-11> 연소득별 햅살론 이용이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햇살론 이용 x 연소득	0.002*** (0.001)	0.002 (0.001)	0.002 (0.002)	0.002 (0.002)
	관측치	4,990	4,936	4,990	4,990
	R-sq.	0.004	0.008	0.016	0.023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햇살론 이용 x 연소득	27.173** (12.495)	-4.908 (31.781)	82.632* (42.497)	45.087 (52.767)
	관측치	4,841	4,602	4,529	4,172
	R-sq.	0.002	0.004	0.011	0.016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총대출 대비)	햇살론 이용 x 연소득	0.0002 (0.000)	-0.002 (0.001)	0.0002 (0.001)	-0.001 (0.002)
	관측치	4,831	4,587	4,509	4,128
	R-sq.	0.001	0.004	0.006	0.007

주: *, **, ***은 각각 1/5/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의미함. 총대출 금리, 햅살론 이용 더미,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12> 연소득별 새희망홀씨가 고금리 대출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출시점 $\Delta y_{-1개월}$	6개월 후 $\Delta y_{-7개월}$	1년 후 $\Delta y_{-13개월}$	2년 후 $\Delta y_{-25개월}$
대부업 이용 여부	새희망 이용 x 연소득	-0.0002 (0.000)	0.0001 (0.001)	-0.0003 (0.001)	-0.0001 (0.001)
	관측치	4,034	3,980	4,034	4,034
	R-sq.	0.003	0.001	0.001	0.002
저축은행 신용대출량	새희망 이용 x 연소득	1.096 (6.311)	12.439 (14.570)	5.314 (20.024)	32.061 (23.262)
	관측치	3,629	3,573	3,552	3,431
	R-sq.	0.003	0.001	0.001	0.003
저축은행 신용대출 비중(총대출 대비)	새희망 이용 x 연소득	-0.0002 (0.000)	-0.0001 (0.001)	-0.0001 (0.001)	-0.0004 (0.001)
	관측치	3,599	3,533	3,513	3,373
	R-sq.	0.004	0.001	0.001	0.002

주: *, **, ***은 각각 1/5/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름을 의미함. 총대출 금리, 헛살론 이용 더미, 대출 발급시점 더미, 상수항, 연도 더미는 생략함.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소 결

본 장의 분석 결과, 정책서민금융을 발급받을 시점에는 이용자들의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 이용이 미이용자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미이용자에 비해 대부업 이용,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잔액 및 비중을 대출시점 혹은 6개월 후까지 미이용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대출 2년 후에는 새희망홀씨 이용자가 대조군에 비해 대부업 이용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다시 증가시켰다. 또한 헛살론 이용자도 대출 발급시점에 대부업 이용률 및 저축은행 이용 비중을 대조군에 비해 감소시키지만, 대출 6개월 이후부터는 대조군보다 대부업 이용률

및 저축은행 이용금액을 더욱 증가시켰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자가 고금리 대출을 추가적으로 발급받기 쉬운 환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장기적인 신용관리를 위한 정책이 지원되지 않으면,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총대출의 평균금리비용이 매우 높았던 차주일수록,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이후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금리비용이 높아 채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차주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이용하던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아 채무구조가 복잡할수록 정책서민금융 이용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는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 채무구조가 복잡한 다중채무자에게, 이들이 다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대출시점에 신용관리교육 및 신용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6장

햇살론 보증비율이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사건연구)

제1절 문제제기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 햇살론은 부분보증부 상품이다. 따라서 보증이 없을 때는 상환여력이 충분함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계층에게 적절한 금리수준의 신용대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증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반면, 보증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사전심사나 사후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상품에서는 적절한 보증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햇살론이 대상으로 하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상환여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차주이다. 따라서 보증비율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기관의 사전심사가 약화되어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햇살론의 보증기금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출연한 재원과 복권기금의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기존에 85%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햇살론 공급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공급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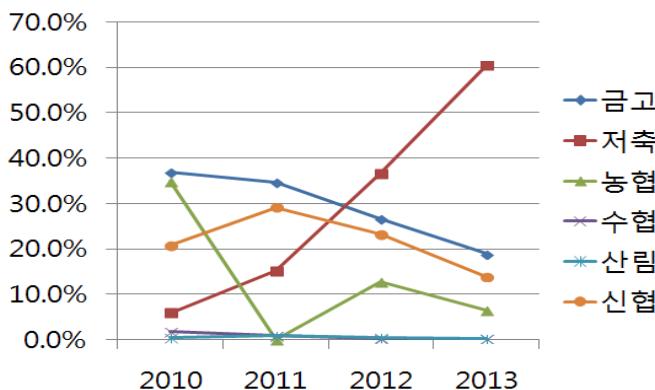
<표 6-1> 보증비율 상향 전후 햅살론의 일평균 대출금액 변화

(단위: 억원)

	보증비율 상향 전(85%)			보증비율 상향 후(95%)	
	2010년 (7~12월)	2011년	2012년 (1~8월)	2012년 (8월 6일~12월)	2013년 (1~4월)
대출실적	13,859	4,835	2,265	3,844	5,011
일평균 대출금액	124	19	15	38	60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오윤해(2013), p.24에서 재인용.

[그림 6-1] 햅살론 취급 금융기관의 연도별 대출 점유비율 추이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오윤해(2013), p.24에서 재인용.

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12년 8월 6일부터(대환대출은 2012년 2월 13일부터) 보증비율을 95%로 상향 조정하였다. <표 6-1>에 나타나듯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출취급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그림 6-1]에 나타나듯이 보증비율의 상향 조정을 전후하여 지역농협의 취급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저축은행의 취급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근로자 대상의 햅살론 보증비율은 기존 95%에서 90%로 하향 조정되었다.

본 연구는 보증부 근로자·사업자 대출상품인 햅살론의 보증비율이 조정되었던 과거의 외생적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보증비율 수준이 금융기

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될 때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액 중 보증비율만큼을 대신하여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발생할 확률과 햅살론을 이용한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확률에 보증비율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용보증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보증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노용환 외, 2010; 남주하 외, 2015). 그러나 보증비율의 수준이 채무자의 상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상용 · 강만수 · 손희영(2017)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급된 햅살론 대출 차주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보증사고까지 소요된 기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바 있으며, 보증비율을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윤상용 · 강만수 · 손희영(2017)은 2013년 12월 시점에서 연체 여부를 판별하였는데, 2012년 8월부터 보증비율 95%가 적용되었으므로 사업자 대출의 경우 1년 이내 거치기간에 있거나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보증비율 수준에 따른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대위변제 발생 여부와 채무조정 신청 여부를 관측하였으므로 중도절단의 문제 없이 차주의 신용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윤상용 · 강만수 · 손희영(2017)에서는 1달 이상 지속된 연체에 해당하는 보증사고의 발생에 주목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3달 이상 지속된 연체에 해당하는 대위변제의 발생과 채무조정제도 신청 여부에 주목하였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박창균(2008)은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이용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김두얼 외(2013)와 오윤해(2014)는 각각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이용자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조정 성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 당시의 개인 특성 정보만을 활용한 반면에, 본 연구는 채무조정 미신청자의 정보를 포함하였고 대출시점의 차주 특성 및 대출 보증비율의 특성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햅살론 보증비율이 장기연체에 해당하는 대위변제(3개월 이상 지속된 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1회 연체에 해당하는 보증사고를 분석한 윤상용·강만수·손희영(2017)보다 개선된 연구이다. 또한 대출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조정제도 신청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서론이며, 제2절에서는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과 자료의 성격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며, 제4절의 소결에서 본 장을 마무리한다.

제2절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소개

1. 연구가설 설정

보증상품은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신용위험 판별이 어렵거나,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본 연구는 대위변제 발생확률과 채무조정 신청 정보를 활용하여 보증비율 수준이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보증비율이 낮을 때 대위변제 발생확률도 더 낮을 것이라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6-1: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햅살론 차주에서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더 낮다.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보증부 상품인 햅살론에서는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할 경우에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부분보증비율만큼 채무금액을 대신해서 변제하는 대위변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햅살론 대출에서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의 채무불이행을 일으켜도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받는다.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받는 대위변제금의 크기가 커지므로 대출자가 채무불이행을 일으켜도 금융기관의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를 구분하려는 사전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대출 발급 이후에도 차주의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하거나, 대위변제 이후에도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사후관리 노력도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더 약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낮은 햅살론 보증비율을 적용받은 차주가 법원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확률이 더 낮음을 판별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6-2: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햅살론 차주가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더욱 낮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이용하게 되면 햅살론과 같은 신용대출의 원금 및 이자가 감면된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는 3년의 변제기간 동안 월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¹¹ 그 이상의 상환의무는 면제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상황과 상각채권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원금감면율을 적용하여 채무를 감면해 준다. 채무조정 신청 후 감면받는 원금은 채무자의 전체 대출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므로 사전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가

¹¹ 햅살론을 포함한 다른 신용대출 채권자들이 변제금을 나누어 갖는다.

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구분하려 노력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보증비율이 높으면 이러한 유인이 낮아져 사전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채무자가 햅살론 대출을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이 노력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기능보다는 사전심사 기능과 더욱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보증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면 그 변화 정도는 취급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햅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지역농·수협, 신협을 포함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있는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대출취급 영업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호금융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보증비율이 상향 조정되어도 햅살론 공급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기반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림 6-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증비율 변화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출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 대출모집인은 계약된 대출금액의 일정부분(현재 2%)을 수수료로 수취하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더라도 대출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대출금액을 최대한 높이려 노력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모집인 기반의 저축은행에서 햅살론 보증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사전심사 기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 6-3’을 설정하여 검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6-3: 보증비율이 낮을수록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감소하는 정도는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 대출에서 더욱 클 것이다.

또한 대출자의 근로형태와 신용도도 보증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노력이 달라지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사전심사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정보수집이 어려울수록 사

전심사에 요구되는 노력 수준이 더욱 높을 것이다. 이에 보증비율이 변화하여 사전심사 수준에 차이가 생길 경우, 대출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수록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근로자보다는 사업자가, 고신용자보다는 저신용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근로자는 소득이 안정적이고 소득의 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한 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소득수준이 불안정할 수 있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 또한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연체 발생확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소득과 같은 관찰 가능한 정보로 신용위험을 판별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외에도 상환의지 등과 같은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수집해야 할 수 있어 사전심사에 더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 6-4’와 ‘연구가설 6-5’를 설정하여 검증하도록 하겠다.

연구가설 6-4: 보증비율이 낮을수록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감소하는 변화 정도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햅살론 대출에서 더욱 클 것이다.

연구가설 6-5: 보증비율이 낮을수록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감소하는 변화 정도는 고신용자보다는 저신용자에 대한 햅살론 대출에서 더욱 클 것이다.

2. 계량분석 모형 및 변수 구성

$$\ln\left(\frac{y_i}{1-y_i}\right) = \beta_{low} D_{low rate} + X_i \gamma + \varepsilon_i, \quad y_i = 0 \text{ or } 1, \quad X_i : \text{통제변수} \quad (6-1)$$

본 연구는 보증비율의 변화라는 사건이 채무자의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건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계량모형은 상기 식 (6-1)과 같이 설정되며, 이항로짓(Logit)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계수를 추정한다.

자료의 구성형식은 개별 차주의 정보를 한 차례 이용하는 횡단면 자료로서,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햅살론 최초 대출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 y_i 는 차주 i 가 보유한 햅살론 대출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하였거나, 햅살론 발급 이후 4년 이내에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이산 변수이다. 여기서 대위변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차주가 연체한 금액에서 보증비율만큼의 일부 금액을 보증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을 뜻한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여부는 햅살론 발급시점 이후 4년 이내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채무조정 중에 있을 때 1의 값을 갖는다. 대위변제 발생 여부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채무조정 신청 여부는 햅살론 대출 이후 4년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다.

$D_{lowrate}$ 의 더미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보증비율(85%)을 적용받은 차주의 경우에 1의 값을 갖는다. 한편, 이 변수는 보증비율 95%를 적용받은 차주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β_{low} 는 95%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에 비해 10%p 낮은 85%의 보증비율이 적용되었을 때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한다.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햅살론 차주에서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가설 6-1’과 ‘연구가설 6-2’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X_i 는 통제변수의 그룹을 나타내며, 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여성 더미, 연령, 로그 연소득,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 근로형태(근로자, 사업자),¹² 연평균 이

¹² 여기서 근로형태는 금융기관에서 KCB에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근로형태 구분이 정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 햅살론 이용자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근로형태가 금융기관에 노출되었을 것

자, 신용등급, 신용등급의 제곱항, 전체 햅살론 대출량, 햅살론 대출횟수와 대출시점의 월별 고정효과도 통제변수에 포함되었다. ε_i 는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신용등급은 KCB 신용등급을 의미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신용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자비용은 연체기간을 제외하고 나타나는 월 상환이자를 전월 원금잔액으로 나누어 월별 평균 이자를 계산한 값에 12를 곱하여 연평균 이자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월 이자가 0.0035보다 낮거나 0.015보다 높은 관측치는 제외하고 평균이자를 계산하였다.¹³

해당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를 미리 예측해 보면 신용등급 및 연평균 이자 변수에서는 양의 추정계수를 예측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커질수록 연체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도 높아질 것이며, 이자비용이 높을수록 상환부담이 커서 연체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축은행 더미는 표본기간 내에 발생한 햅살론 대출이 저축은행에서 발급되었을 경우 1, 상호금융권에서 발급되었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해당 변수가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저축은행의 평균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더 높고, 대위변제 비율도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에서 더 높게 나타나므로 저축은행 더미의 변수는 채무조정 신청 및 대위변제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대위변제율의 차이는 저축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상호금융권보다 더 낮은 신용등급에 햅살론을 발급하는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회귀식에서는 신용등급의 영향을 통제하므로, 저축은행 발급 여부가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한 가지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차주의 경우 근로자 혹은 사업자들 중 하나로만 구분되어 근로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13 일부 금융기관에서 햅살론 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극단치라 판단되는 월 이자를 0.5%, 99.5% 수준의 월 이자 값으로 대체하였다.

햇살론 총대출량은 차주가 2018년 12월까지 이용한 햇살론의 대출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햇살론 대출횟수는 차주가 발급받은 햇살론 대출횟수를 의미한다. 햇살론 대출량과 대출횟수가 많을수록 자금공급이 원활하여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근로자, 사업자 등의 직종은 KCB 자료상에 나타난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근로자에서 채무조정 신청 및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채무불이행 관련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 여성, 연소득 변수에서는 음의 추정계수가 예상된다. 또한 연소득이 높을수록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으므로 연소득¹⁴이 높을수록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내 대체 소득원의 존재 가능성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낙인효과에 더 민감한 이유 등으로 연체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연령이 아주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소득학보가 어려워 연체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령대 변수에 대한 값은 한 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 여기서 연령은 연속변수 형태로 활용되었으며, 10살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햇살론 발급 연·월과 차주의 거주지역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차주의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5개 광역시, 지방의 5개 범주로 구분한 지역 더미를 활용하였다.

3. 표본 구성과 기초통계량

가.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한 표본 자료는 개인신용정보회사인 KCB에서 제공한 햇살론 이용자 표본이다. 2012년 8월 보증비율의 상향 조정 전후

14 여기서 연소득 9천만원 이상의 채무자는 연소득을 9천만원으로 대체하였다.

시점을 포함하기 위하여 2012년 3~7월과 2012년 9~12월에 햅살론 대출을 최초로 발급받은 차주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햅살론 이외에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등의 여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는 차주의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자상환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햅살론 대출 발급액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차주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의 강건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분석 표본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는 95%의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의 그룹은 기준과 동일하게 2012년 9~12월에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로 설정하고, 85% 보증비율이 적용된 대조군을 전년도의 같은 달, 즉 2011년 9월~2012년 1월에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2014년 1월부터 근로자에 한해서 햅살론 보증비율이 95%에서 90%로 하향 조정된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2013년 9~12월에 95%의 보증비율로 햅살론 대출을 이용한 근로자와 2014년 1~4월에 90%의 보증비율로 햅살론을 이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분석 표본을 구성하였다.

나. 기초자료 분석

<표 6-2>는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보증비율이 85%로 적용된 차주 그룹에는 1,791명, 보증비율 95% 그룹에는 2,396명이 포함되었다.

두 가지 종속변수 중 먼저 대위변제 발생 여부의 평균값은 보증비율 85%, 95% 차주 그룹에서 모두 29%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햅살론의 상환기간이 3년 혹은 5년으로 정해지므로 2018년 12월 시점에서 관측하면 2012년에 발급된 햅살론은 상환기간이 만료된 대출이다. 이 중에서 30% 정도에 대해 대위변제가 일어났으므로 햅살론의 대위변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채무조정 신청 여부의 평균은 보증비율 85% 및 95% 차주 그룹 각각에서 17%와 18%로 보증비율이 높은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위변제 발생 수준보다는 적은 비율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신청은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위변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 상환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위변제 비율과 채무조정 신청 비율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두 변수 간 Pearson correlation을 계산하면 0.55로 계산된다.¹⁵

두 그룹 모두에서 여성의 비중은 42%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햅살론을 많이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의 평균은 두 그룹에서 모두 32살로 이 시기 햅살론 이용차주의 연령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 발급대출의 비중은 85% 그룹에서는 34%였으나 95% 그룹에서 40%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CB 자료상에서 근로자로 파악

<표 6-2>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

구 분	보증비율 85% (2012년 3~7월) 1,791명		보증비율 95% (2012년 9~12월) 2,396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위변제 발생 여부	0.29	0.45	0.29	0.46
채무조정 신청 여부(4년 이내)	0.17	0.37	0.18	0.39
85% 보증비율(더미)	1	0	0	0
여성(더미)	0.42	0.49	0.42	0.49
연령대(10살 간격)	32.51	10.51	32.53	10.31
연소득(백만원)	21.94	8.88	23.61	8.43
저축은행 발급대출(더미)	0.34	0.47	0.40	0.49
근로자(더미)	0.35	0.48	0.51	0.50
사업자(더미)	0.07	0.26	0.14	0.35
연평균 이자율	0.10	0.02	0.09	0.01
햇살론 총대출량(백만원)	12.70	6.97	14.38	7.18
신용등급(1~10등급)	6.64	1.27	6.54	1.35
햇살론 대출횟수	1.35	0.61	1.34	0.62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5 2013년 9월에서 2014년 4월에 발급된 햅살론 대출을 포함한 표본에서는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0.60으로 더 높게 도출되었다.

되는 차주의 비중도 보증비율이 높아지면서 35%에서 51%로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그림 6-1], <표 6-1>에서 보증비율 상향 조정 이후 근로자에 대한 대출과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이 증가한 사실과 일치한다.

연평균 이자율은 85%의 보증비율에서는 10%였으나 95%의 보증비율 차주에서는 9%로 다소 낮아진다. 실제로 이 시기에 햅살론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의 상향 조정과 함께 평균이자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제도 개편이 있었다. 햅살론 총대출량의 평균은 85% 보증비율에서는 1,270 만원이었으나 보증비율 상향 조정 이후 1,438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높아진 보증비율로 인해 부담이 감소한 금융기관이 햅살론 차주 1인당 대출 공급액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햅살론 대출횟수는 두 그룹에서 모두 1.34회로 나타났다. 한편,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은 저신용등급에 대한 공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보증비율 95% 그룹에서 신용등급의 평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보증비율이 85%인 그룹에서 6.64로, 보증비율이 95%인 그룹의 6.5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3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1. 기본모형 추정

가. 대위변제 발생확률

<표 6-3>은 대위변제 발생확률의 결정요인을 Logit 분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주요 관심변수인 85% 보증비율 더미변수의 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보증비율이 낮을수록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가설 6-1’을 지지한다. 신용등급을 통제하지 않았거나(열 (1)), 연평균 이자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거나(열 (2)),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DTI) 및 신용등급의 제곱항을

<표 6-3> 보증비율 변화가 햄살론 대위변제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대위변제 발생=1, 미발생=0, Logit 분석					
	(1)	(2)	(3)	(4)	(5)	(6) 한계효과
85% 보증비율 (더미)	-1.7500*** (0.1880)	-1.5706*** (0.1842)	-1.7442*** (0.1906)	-1.7430*** (0.1905)	-1.6416*** (0.1923)	-0.3069*** (0.0355)
여성 (더미)	-0.2170*** (0.0780)	-0.1748** (0.0784)	-0.1555** (0.0792)	-0.1576** (0.0791)	-0.1587** (0.0795)	-0.0294** (0.0146)
연령	-0.0099** (0.0040)	-0.0098** (0.0040)	-0.0073* (0.0040)	-0.0069* (0.0040)	-0.0080** (0.0040)	-0.0015** (0.0008)
로그연소득 (백만원)	-0.2771** (0.1210)	-0.3053** (0.1211)	-0.3084*** (0.1228)	-0.3215*** (0.1221)	-0.4025*** (0.1229)	-0.0753*** (0.0229)
저축은행 발급 (더미)	-0.7860*** (0.1338)	-0.5753*** (0.1215)	-0.9535*** (0.1362)	-0.9552*** (0.1364)	-1.0754*** (0.1399)	-0.2011*** (0.0259)
근로자 (더미)	-0.0122 (0.0788)	0.0142 (0.0793)	0.0483 (0.0799)	0.0528 (0.0798)	0.0320 (0.0805)	0.00060 (0.0150)
사업자 (더미)	-0.2855** (0.1455)	-0.2614* (0.1470)	-0.3117** (0.1473)	-0.2953** (0.1466)	-0.3865*** (0.1470)	-0.0723*** (0.0274)
연평균 이자 1	71.6610*** (4.3194)		69.4374*** (4.3370)	69.4479*** (4.3367)	63.8979*** (4.4432)	11.9470*** (0.8080)
햇살론 대출량 (백만원)	-0.0031 (0.0058)	-0.0002 (0.0058)	-0.0008 (0.0058)	-0.0005 (0.0058)	0.0248*** (0.0072)	0.0046*** (0.0013)
DTI (상환부담/소득)	0.0017* (0.0009)		0.0008 (0.0009)			
연평균 이자 2		57.7905*** (3.2763)				
신용등급			0.3227*** (0.0348)	0.4367* (0.2347)	0.3458*** (0.0349)	0.0647*** (0.0064)
신용등급^2				-0.0085 (0.0176)		
햇살론 대출횟수					-0.5207*** (0.0872)	-0.0974*** (0.0162)
상수항	-3.7287*** (1.2198)	-2.4893** (1.2085)	-5.4448*** (1.2522)	-5.6856*** (1.4652)	-3.7145*** (1.2731)	
관측치	4,187	4,207	4,187	4,187	4,187	
Pseudo R ²	0.120	0.133	0.138	0.138	0.14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 을 나타냄.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생략하였으며, '연평균 이자 1'은 월 이자율이 0.35% 이하 및 1.5% 이상인 관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한 이자율이며, '연평균 이자 2'는 winsorization 처리 후 계산한 평균 이자율임.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포함하거나(열 (3), (4)), 햅살론 대출횟수를 통제한(열 (5)) 모든 경우에 계수의 유의성은 유지되며 절댓값 크기도 유사하다.

마지막 열에 제시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보증비율 85%가 적용된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95%의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에 비해 30%p 더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상당히 큰 차이라고 판단된다. 윤상용·강만수·손희영(2017)에서도 햅살론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신용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보증비율 1단위 증가에 1.177배 사고위험이 증가(10단위 증가에 11.77배)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비해 보증비율이 연체에 미치는 위험을 더욱 과대하게 추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윤상용·강만수·손희영(2017)과 달리 연체 1회가 아닌 대위변제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므로 결과가 상이 할 수 있다. 또한 윤상용·강만수·손희영(2017)의 분석에서는 대부분 상환 만료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본 분석의 방식이 햅살론 차주의 신용위험 결정요인을 판별하는 데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여타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햅살론 대출횟수의 추정계수는 예상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반면, 햅살론 대출량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다가 햅살론 대출횟수를 함께 통제한 경우에 양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햅살론을 여러 번에 나누어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대위변제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햅살론 대출금액을 한 번에 크게 발급받는 것은 상환부담을 높여 대위변제 발생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 더미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2012년 시기가 저축은행에서 햅살론 취급을 폭발적으로 확대하기 이전이므로 저축은행의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의 성격상 2012년 시기에 일부 저축은행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평균 이자와 신용등급의 추정계수는 예상대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이자비용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을 때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높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계효과로는 연 이자가 1%p 증가할 때 대위변제 발생확률은 11% 증가하며, 신용등급이 1단위 상승하여 신용도가 나빠질 때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6.5%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더미의 추정계수에는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아 KCB에서 근무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유형과 비교하여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사업자 더미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사업자로 확인되는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에서 위탁심사를 하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보증심사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성, 연소득, 연령 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 소득 및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 발생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미소금융 이용자의 연체결정요인을 분석한 오윤해(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¹⁶

나. 채무조정 신청확률

<표 6-4>는 햅살론 이용 차주가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Logit 분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85% 보증비율 더미변수의 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보증비율이 낮을수록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가설 6-2’가 지지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용등급, 연평균 이자 계산 방식, 신용등급의 제곱항 포함 여부, 햅살론 대출횟수 통제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보증비율이 85%일 때 햅살론을 이용한 채무자가

16 반면, 햅살론 대출자의 연체 발생 기간의 생존분석을 시도한 윤상용·강만수·손희영(2017)은 여성의 신용위험이 낮고, 소득은 영향이 없음을 보고한다. 한편, 사업자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용위험이 증가하지만 근로자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6-4>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4년 내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채무조정 신청=1, 미신청=0, Logit 분석					
	(1)	(2)	(3)	(4)	(5)	(6) 한계효과
85% 보증비율 (더미)	-1.6879*** (0.2206)	-1.1194*** (0.2053)	-1.6764*** (0.2208)	-1.6662*** (0.2203)	-1.5209*** (0.2254)	-0.1703*** (0.0248)
여성 (더미)	0.2592*** (0.0908)	0.2871*** (0.0902)	0.2904*** (0.0914)	0.2796*** (0.0912)	0.2852*** (0.0922)	0.0325*** (0.0107)
연령	-0.0179*** (0.0049)	-0.0171*** (0.0048)	-0.0165*** (0.0049)	-0.0142*** (0.0049)	-0.0164*** (0.0049)	-0.0018*** (0.0005)
로그연소득 (백만원)	0.1245 (0.1442)	0.0943 (0.1442)	0.1124 (0.1449)	0.0501 (0.1464)	-0.0820 (0.1473)	-0.0092 (0.0165)
저축은행 발급 (더미)	-0.5915*** (0.1537)	0.0499 (0.1308)	-0.6752*** (0.1551)	-0.6843*** (0.1551)	-0.9209*** (0.1656)	-0.1031*** (0.0182)
근로자 (더미)	0.2304*** (0.0925)	0.2632*** (0.0916)	0.2579*** (0.0929)	0.2784*** (0.0926)	0.2349** (0.0940)	0.0263** (0.0105)
사업자 (더미)	-0.1329 (0.1773)	-0.0459 (0.1759)	-0.1466 (0.1776)	-0.0776 (0.1768)	-0.2431 (0.1775)	-0.0272 (0.0199)
연평균 이자 1	71.2266*** (4.9560)		69.8652*** (4.9606)	69.6312*** (4.9461)	61.8742*** (5.1746)	6.9298*** (0.5583)
햇살론 대출량 (백만원)	-0.0288*** (0.0073)	-0.0255*** (0.0071)	-0.0278*** (0.0073)	-0.0260*** (0.0072)	0.0132 (0.0088)	0.0015 (0.0010)
DTI (상환부담/소득)	0.0046*** (0.0011)		0.0041*** (0.0011)			
연평균 이자 2		41.3127*** (3.1824)				
신용등급			0.1577*** (0.0401)	0.6860** (0.2803)	0.2017*** (0.0402)	0.0226*** (0.0045)
신용등급^2				-0.0392* (0.0210)		
햇살론 대출횟수					-1.0661*** (0.1319)	-0.1194*** (0.0138)
상수항	-8.2512*** (1.4596)	-5.6487*** (1.4340)	-9.0981*** (1.4829)	-10.1690*** (1.7583)	-5.7127*** (1.5283)	
관측치	4,187	4,207	4,187	4,187	4,187	
Pseudo R ²	0.122	0.104	0.126	0.123	0.14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 을 나타냄.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생략하였으며, '연평균 이자 1'은 월 이자율이 0.35% 이하 및 1.5% 이상인 관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한 이자율이며, '연평균 이자 2'는 winsorization 처리 후 계산한 평균 이자율임.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95%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에 비해 1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때 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신청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더 높으나, 보증비율이 상향 조정된 이후에는 사전 심사 기능이 약화되어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높은 채무자가 햅살론을 많이 발급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타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햅살론 대출횟수의 추정계수는 예상한 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햅살론 대출횟수가 1회 늘수록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12%p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햅살론 대출량의 추정계수는 대출횟수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햅살론 대출량이 많을수록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출횟수가 통제될 경우에는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대출금액 자체보다는 대출횟수가 채무조정 신청확률 감소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저축은행 더미는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며, 이는 2012년에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가 상호금융권에서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에 비해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더 낮았음을 의미한다.

연평균 이자와 신용등급의 추정계수는 대위변제 발생확률 분석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며, 햅살론의 연간 금리가 1%p 증가할 때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6%p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1단위 나빠질 때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2%p 증가하였다.

또한 근로자 더미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소득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확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더미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 중 여성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2007~08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이 46%로 남성보다 더 낮다고 보고한 오윤해(2014)와, 2012년의 개인회생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이 49%라고 보고한 김두얼 외

(2013)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다만,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과 개인회생에서 면책판정을 받을 확률이 여성이 더 높다는 김두얼 외(2013)의 분석내용에 비추어 보아 햇살론 이용자 중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중에서 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연소득은 채무조정 신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데에는 소득수준 자체보다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 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앞의 대위변제 발생확률 분석과 동일하다.

2. 금융기관·근로형태·신용도별 보증비율 조정의 영향 차이

가. 대위변제 발생 확률

<표 6-5>는 보증비율의 수준이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근로형태, 저신용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이다.

<표 6-5>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친 영향(세부 효과)

종속변수: 대위변제 발생=1, 미발생=0, Logit 분석						
설명변수	(1)	(2)	(3)	(4)	(5)	(6)
85% 보증비율	-1.2704*** (0.1975)	-1.2548*** (0.1981)	-1.1539*** (0.3712)	-1.0777*** (0.3706)	-1.6425*** (0.2259)	-1.5496*** (0.2268)
저축은행 x 85% 보증비율	-1.4707*** (0.1675)	-1.3241*** (0.1711)				
근로자 x 85% 보증비율			-0.4550 (0.3037)	-0.4364 (0.3029)		
저신용(7~10등급) x 85% 보증비율					-0.1393 (0.1705)	-0.1293 (0.1704)
저축은행 햅살론	-0.6483*** (0.1441)	-0.7697*** (0.1476)	-0.8248*** (0.1928)	-0.9174*** (0.1962)	-0.9700*** (0.1371)	-1.0893*** (0.1405)
근로자	0.1173 (0.0808)	0.0963 (0.0813)	0.4311** (0.1764)	0.4846*** (0.1768)	0.0564 (0.0799)	0.0360 (0.0806)
저신용(7~10등급)					0.2545 (0.1572)	0.2279 (0.1553)
신용등급^2	-0.0068 (0.0179)		0.0023 (0.0210)		-0.0035 (0.0174)	
햇살론 대출량 (백만원)	-0.0020 (0.0059)	0.0166** (0.0073)	-0.0053 (0.0082)	0.0142 (0.0099)	-0.0006 (0.0058)	0.0245*** (0.0072)
햇살론 발급횟수		-0.3849*** (0.0883)		-0.4161*** (0.1190)		-0.5163*** (0.0872)
관측치	4,187	4,187	2,315	2,315	4,187	4,187
Pseudo R ²	0.154	0.158	0.143	0.148	0.139	0.14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 을 나타냄. 여성 더미, 연령, 로그연소득, 사업자 더미, 연평균 이자, 햅살론 대출량, 신용등급, 상수항,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하였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금융기관별

금융기관별 차이를 나타낸 열 (1), (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증비율이 85%일 때 발급된 햅살론을 나타내는 85% 보증비율 더미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상호금융권에서도 보증비율이 낮아질 때 대위변제 발생이 낮아지는 현상이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더미와 85% 보증비율 더미 교차항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절댓값이 더 크다. 이 추정계수의 한계효과를 별도로 계산하면, 보증비율이 95%일

때에 비해 85%일 때 대위변제 발생률은 상호금융권에서 23.0%p 감소 하지만 저축은행에서는 24.3%p 추가되어 47.3%p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가설 6-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증비율의 변화가 대위변제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호금융권보다는 대출모집인 기반의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대출에서 확연하게 더 커진다.

2) 근로형태별

근로형태별 차이를 나타낸 열 (3), (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85% 보증비율 더미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더미와 85% 보증비율 더미의 교차항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보증비율에 따라 대위변제 발생률이 변화하는 정도는 근로자임이 파악된 차주와 사업자나 근로형태를 특정하지 못한 유형에서 모두 유사한 정도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근로형태를 특정하지 못한 상당수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3) 신용도별

신용도별 차이를 나타낸 열 (5), (6)을 살펴보면, 저신용 더미와 85% 보증비율 더미의 교차항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 대한 햅살론 발급에서 보증비율이 낮아질 때 대위변제 발생률이 더욱 크게 낮아질 것이라 예상한 ‘연구가설 6-5’는 기각된다.

나. 채무조정 신청확률

<표 6-6>은 햅살론 취급 금융기관, 근로형태, 신용도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변화하는 정도가 보증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6-6>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세부 효과)

종속변수: 채무조정 신청=1, 미신청=0, Logit 분석						
종속변수	(1)	(2)	(3)	(4)	(5)	(6)
85% 보증비율	-1.0477*** (0.2303)	-1.0474*** (0.2333)	-1.1683*** (0.4364)	-1.0214** (0.4350)	-1.6547*** (0.2653)	-1.5090*** (0.2679)
저축은행 x 85% 보증비율	-1.7521*** (0.1989)	-1.4855*** (0.2022)				
근로자 x 85% 보증비율			-0.4097 (0.3618)	-0.3682 (0.3609)		
저신용(7~10등급) x 85% 보증비율					-0.0100 (0.2042)	-0.0124 (0.2042)
저축은행 햅살론	-0.3244* (0.1658)	-0.5795*** (0.1752)	-0.5670*** (0.2126)	-0.7645*** (0.2233)	-0.6940*** (0.1557)	-0.9317*** (0.1662)
근로자	0.3534*** (0.0935)	0.3091*** (0.0947)	0.5215** (0.2083)	0.6383*** (0.2093)	0.2821*** (0.0927)	0.2398** (0.0941)
저신용(7~10등급)					0.3006 (0.1836)	0.2835 (0.1817)
신용등급^2	-0.0370* (0.0214)		-0.0345 (0.0250)		-0.0324 (0.0205)	
햇살론 대출량 (백만원)	-0.0295*** (0.0075)	0.0034 (0.0089)	-0.0271*** (0.0098)	0.0115 (0.0119)	-0.0260*** (0.0072)	0.0130 (0.0088)
햇살론 발급횟수		-0.9059*** (0.1329)		-1.1170*** (0.1845)		-1.0571*** (0.1319)
관측치	4,187	4,187	2,315	2,315	4,187	4,187
Pseudo R ²	0.144	0.158	0.118	0.139	0.124	0.14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 을 나타냄. 여성 더미, 연령, 로그연소득, 사업자 더미, 연평균 이자, 햅살론 대출량, 신용등급, 상수항,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하였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금융기관별

열 (1)에서 저축은행 더미와 85% 보증비율 더미의 교차항 및 85% 보증비율 더미의 추정계수는 각각 -1.7521, -1.0477로 신뢰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증비율이 낮을 때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에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가설 6-3’이 지지된다. 표에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상호금융권에서는 보증비율 95%에 비해 보증비율 85%일 때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11.3%p 감소하며, 저축은행에서는 그 감소효과가 16.1%p 더 커서 총 27.4% 감소하게 된다.

2) 근로형태 · 신용도별

근로형태별 차이를 나타낸 열 (3), (4)와 신용도별 차이를 나타낸 열 (5), (6)을 살펴보면, 근로자 더미 및 저신용자 더미와 보증비율 85% 변수 더미 교차항의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위변제 발생확률 분석과 마찬가지로 근로형태와 저신용여부는 보증비율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비율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강건성 검증

가. 표본 구성 방식 조정

<표 6-7>은 표본 구성 방식을 조정하여 낮은 보증비율이 대위변제 ((1)~(3)) 및 채무조정((4)~(6))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1), (4)열은 2011~18년 기간 동안 햅살론을 2회 이상 대출하였던 차주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3), (6)열은 근로형태가 파악되지 않은 차주를 제외한 분석 결과이며, (2), (5)열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적용하여 표본을 구성한 후 분석한 결과이다.

<표 6-7>에 나타난 모든 추정계수의 부호와 유의성은 앞서 제시한 <표 6-2> 및 <표 6-3>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햅살론을 1회만 이용한 차주 표본으로 분석한 경우에 추정계수의 크기가 조금 더 크게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햅살론 대출을 1회만 이용한 차주의 경우에는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표 6-7> 보증비율 변화가 햅살론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 (표본 구성 방식 조정)

종속변수	대위변제=1			채무조정 신청=1		
	구분	(1)	(2)	(3)	(4)	(5)
85% 보증비율 (더미)	-2.1823*** (0.2400)	-1.5418*** (0.3191)	-1.5349*** (0.2741)	-1.7028*** (0.2510)	-1.4514*** (0.3456)	-1.5171*** (0.3135)
여성 (더미)	-0.0449 (0.0920)	-0.0610 (0.1238)	-0.1899* (0.1101)	0.3533*** (0.0993)	0.3845*** (0.1317)	0.2791** (0.1235)
연령	-0.0026 (0.0046)	0.0015 (0.0064)	-0.0069 (0.0057)	-0.0134** (0.0052)	-0.0016 (0.0069)	-0.0028 (0.0065)
로그연소득	-0.5312*** (0.1414)	-0.4495** (0.1838)	-0.3211* (0.1662)	-0.1592 (0.1573)	-0.1450 (0.2016)	0.0655 (0.1932)
저축은행 햅살론 (더미)	-1.8050*** (0.1887)	-1.1369*** (0.2335)	-0.7962*** (0.1914)	-1.2183*** (0.1934)	-0.8171*** (0.2418)	-0.5404** (0.2109)
근로자 (더미)	0.0242 (0.0943)	0.4489*** (0.1636)	0.3007** (0.1505)	0.2554** (0.1021)	0.4777*** (0.1836)	0.4072** (0.1783)
사업자 (더미)	-0.5026*** (0.1642)			-0.2023 (0.1854)		
연평균 이자 1	85.4449*** (6.0116)	66.8218*** (7.3461)	69.8911*** (6.0715)	69.5257*** (6.0283)	57.1456*** (7.4567)	67.2435*** (6.6237)
햇살론 대출량 (백만원)	0.0405*** (0.0097)	0.0384*** (0.0130)	-0.0053 (0.0082)	0.0251** (0.0102)	0.0248* (0.0136)	-0.0271*** (0.0098)
신용등급	0.4133 (0.2666)	0.1841 (0.2949)	0.2564 (0.2738)	0.6681** (0.2920)	0.5970* (0.3348)	0.6095* (0.3279)
신용등급^2	-0.0012 (0.0201)	0.0136 (0.0228)	0.0033 (0.0210)	-0.0355 (0.0220)	-0.0308 (0.0257)	-0.0340 (0.0250)
상수항	-5.3487*** (1.6870)	-4.5730** (2.1148)	-5.4004*** (1.9310)	-8.2957*** (1.8726)	-7.9227*** (2.3471)	-10.4592*** (2.2723)
햇살론 1회만 이용	O	O	X	O	O	X
근로형태 미확인 제거	X	O	O	X	O	O
관측치	3,020	1,740	2,315	3,020	1,740	2,315
Pseudo R ²	0.165	0.149	0.143	0.117	0.105	0.11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 을 나타냄.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하였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표본의 시기 조정

1) 대위변제 발생확률

<표 6-8>은 분석 표본의 시기를 달리하여 대위변제 발생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표 6-3>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표본의 시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달리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방식은 동일하게 2012년 8월 6일에 보증비율이 95%에서 85%로 변경된 제도 변화를 이용한 것으로, 95% 보증비율이 적용된 대상은 제도 변화 직후의 4개 월간에도 여전히 95% 보증비율로 햅살론을 발급받은 차주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85% 보증비율이 적용된 대상을 구성할 때는 <표 6-3>에서 같은 해 제도 변화 이전에 햅살론을 발급받은 차주를 선택한 것과 달리 전년도 같은 달, 즉 2011년 9~12월에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로 선정하였다 ((1)~(3)열).

두 번째 방식은 2014년 1월부터 근로자에 한하여 보증비율을 다시 90%로 하향 조정한 제도 변화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제도 변화 전후 4개 월간 햅살론을 처음으로 이용한 차주를 분석표본으로 활용하였으며, 근로자로 파악된 차주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방식에서는 <표 6-3>과 거의 유사한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다른 시기의 제도 변화를 활용한 두 번째 방식에서도 낮은 보증비율, 즉 90% 보증비율의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0.4812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시기의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도 보증비율이 낮게 적용될 때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추정계수의 크기가 85%에서 95%로 변화한 데 비해 낮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보증비율의 변화폭이 5%p 더 작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쉽게 풀이된다. <표 6-3>과 달리 두 번째 방식에서는 연령, 연소득, 저축 은행 햅살론 더미의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표 6-8> 햄살론 보증비율이 대위변제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I
(표본의 시기 조정)

종속변수: 대위변제 발생	85%(2011년 9월~2012년 1월), 95%(2012년 9~12월)			95%(2013년 9~12월), 90%(2014년 1~4월)		
설명변수	(1)	(2)	(3)	(4)	(5)	(6)
낮은 보증비율 (더미)	-1.7429*** (0.1905)	-1.7430*** (0.1905)	-1.6416*** (0.1923)	-0.4812*** (0.1019)	-0.4873*** (0.1020)	-0.4404*** (0.1025)
여성 (더미)	-0.1584** (0.0791)	-0.1576** (0.0791)	-0.1587** (0.0795)	-0.2522*** (0.0586)	-0.2525*** (0.0586)	-0.2571*** (0.0590)
연령	-0.0069* (0.0040)	-0.0069* (0.0040)	-0.0080** (0.0040)	-0.0046 (0.0030)	-0.0046 (0.0030)	-0.0044 (0.0030)
로그연소득	-0.3227*** (0.1221)	-0.3215*** (0.1221)	-0.4025*** (0.1229)	-0.1026 (0.1037)	-0.1024 (0.1037)	-0.2103** (0.1047)
저축은행 햄살론 (더미)	-0.9511*** (0.1361)	-0.9552*** (0.1364)	-1.0754*** (0.1399)	-0.1075 (0.1197)	-0.1503 (0.1224)	-0.1605 (0.1205)
근로자 (더미)	0.0519 (0.0798)	0.0528 (0.0798)	0.0320 (0.0805)			
사업자 (더미)	-0.2985** (0.1465)	-0.2953** (0.1466)	-0.3865*** (0.1470)			
연평균 이자	69.4364*** (4.3360)	69.4479*** (4.3367)	63.8979*** (4.4432)	60.6738*** (4.5374)	61.2204*** (4.5509)	55.8951*** (4.5144)
햇살론 대출량 (백만원)	-0.0005 (0.0058)	-0.0005 (0.0058)	0.0248*** (0.0072)	-0.0113*** (0.0042)	-0.0116*** (0.0042)	0.0108** (0.0048)
신용등급	0.3255*** (0.0346)	0.4367* (0.2347)	0.3458*** (0.0349)	0.2738*** (0.0308)	0.6479*** (0.2355)	0.2824*** (0.0310)
신용등급^2		-0.0085 (0.0176)			-0.0269 (0.0168)	
햇살론 발급횟수			-0.5207*** (0.0872)			-0.6064*** (0.0606)
상수항	-5.3178*** (1.2469)	-5.6856*** (1.4652)	-3.7145*** (1.2731)	-6.5283*** (1.1062)	-7.8114*** (1.3699)	-4.6124*** (1.1248)
관측치	4,187	4,187	4,187	6,844	6,844	6,844
Pseudo R ²	0.138	0.138	0.146	0.0757	0.0760	0.088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을 나타냄.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하였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채무조정 신청확률

<표 6-9>는 <표 6-8>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표본의 시기를 달리하여

<표 6-9> 햅살론 보증비율이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정 II
(표본의 시기 조정)

표본 구성 방식	85%(2011년 9월~2012년 1월), 95%(2012년 9~12월)			95%(2013년 9~12월), 90%(2014년 1~4월)		
	(1)	(2)	(3)	(4)	(5)	(6)
낮은 보증비율 (더미)	-1.6610*** (0.2202)	-1.6662*** (0.2203)	-1.5209*** (0.2254)	-0.3612*** (0.1123)	-0.3798*** (0.1126)	-0.3295*** (0.1131)
여성 (더미)	0.2759*** (0.0913)	0.2796*** (0.0912)	0.2852*** (0.0922)	-0.0033 (0.0650)	-0.0039 (0.0651)	-0.0047 (0.0654)
연령	-0.0145*** (0.0048)	-0.0142*** (0.0049)	-0.0164*** (0.0049)	-0.0172*** (0.0034)	-0.0172*** (0.0034)	-0.0169*** (0.0035)
로그연소득	0.0449 (0.1463)	0.0501 (0.1464)	-0.0820 (0.1473)	0.3607*** (0.1174)	0.3611*** (0.1177)	0.2462** (0.1180)
저축은행 햅살론 (더미)	-0.6619*** (0.1545)	-0.6843*** (0.1551)	-0.9209*** (0.1656)	-0.0118 (0.1329)	-0.1396 (0.1358)	-0.0834 (0.1347)
근로자 (더미)	0.2744*** (0.0926)	0.2784*** (0.0926)	0.2349** (0.0940)			
사업자 (더미)	-0.0868 (0.1766)	-0.0776 (0.1768)	-0.2431 (0.1775)			
연평균 이자	69.4595*** (4.9370)	69.6312*** (4.9461)	61.8742*** (5.1746)	54.2213*** (4.7554)	55.8592*** (4.8162)	49.6757*** (4.7717)
햇살론 대출량 (백만원)	-0.0259*** (0.0072)	-0.0260*** (0.0072)	0.0132 (0.0088)	-0.0038 (0.0046)	-0.0046 (0.0046)	0.0189*** (0.0053)
신용등급	0.1718*** (0.0398)	0.6860** (0.2803)	0.2017*** (0.0402)	0.1488*** (0.0339)	1.1840*** (0.2860)	0.1552*** (0.0341)
신용등급^2		-0.0392* (0.0210)			-0.0742*** (0.0202)	
햇살론 발급횟수			-1.0661*** (0.1319)			-0.6635*** (0.0719)
상수항	-8.4701*** (1.4958)	-10.1690*** (1.7583)	-5.7127*** (1.5283)	-10.2713*** (1.2484)	-13.8371*** (1.5954)	-8.2213*** (1.2642)
관측치	4,187	4,187	4,187	6,844	6,844	6,844
Pseudo R ²	0.122	0.123	0.143	0.0543	0.0564	0.067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을 나타냄.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하였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채무조정 신청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표 6-4>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는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85% 보증비율이 적용된 시기를 달리하여 동일하게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조정된 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1)~(3)열에서는 <표 6-4>와 유사한 추정계수와 유의성을 나타낸다. 2014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보증비율을 95%에서 90%로 하향 조정한 제도 변화를 활용한 (4)~(6)열의 결과에서도 90% 보증비율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 변화 시기 및 종류에 관계없이 낮은 보증비율에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도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연령, 연소득, 저축은행 햅살론 더미의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다. 금융기관 · 근로형태 · 신용도별 차이

1) 85% 보증비율 적용 시기 조정

<표 6-10>은 85% 보증비율이 적용된 시기를 달리하여 금융기관 · 근로형태 · 신용도별 세부적 효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표 6-4>, <표 6-5>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햅살론 대출을 이용한 채무자에서 보증비율이 낮을 때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대위변제 발생확률은 저축은행 햅살론에서 보증비율 수준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표 6-4>에서는 상호금융 햅살론을 이용한 차주들의 대위변제 발생확률도 보증비율 수준에 반응하였던 것과 달리, 저축은행 햅살론 이용자에서만 해당 결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근로자 및 저신용자 더미에서는 추가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10> 햅살론 보증비율 변화가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세부 효과: 강건성 검정 I (85% 2011년 9월~2012년 1월 활용)

Logit, 종속변수	대위변제 발생=1			채무조정 신청=1		
	(1)	(2)	(3)	(4)	(5)	(6)
85% 보증비율 (더미)	-0.6992 (0.4845)	-0.6289 (0.8666)	-0.8824 (0.5839)	-1.4091* (0.7832)	-2.2916* (1.3456)	-2.5769*** (0.9772)
저축은행 x 85% 보증비율	-1.6008*** (0.4396)			-2.1961*** (0.5202)		
근로자 x 85% 보증비율		-0.7214 (0.6544)			-0.3212 (0.7872)	
저신용(7~10등급) x 85% 보증비율			-0.1015 (0.3724)			0.3030 (0.5140)
저축은행 햅살론	-0.5316*** (0.1595)	-0.3929* (0.2146)	-0.5623*** (0.1584)	-0.1551 (0.1811)	-0.0486 (0.2382)	-0.1804 (0.1798)
근로자	0.1710* (0.1005)	0.2399 (0.1830)	0.1429 (0.0998)	0.3119*** (0.1145)	0.2726 (0.2183)	0.2801** (0.1138)
저신용(7~10등급)			0.1459 (0.1771)			0.0764 (0.2039)
관측치	2,753	1,686	2,753	2,753	1,686	2,753
Pseudo R ²	0.163	0.166	0.160	0.149	0.147	0.14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을 나타냄. 여성 더미, 연령, 로그연소득, 사업자 더미, 연평균 이자, 햅살론 대출량, 신용등급, 상수항,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하였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95%→90% 보증비율 변화 시기 활용

<표 6-11>은 95%에서 90%로 보증비율이 하향 조정된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신용도별 세부적 효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이다. 본 분석에서는 표본을 근로자에 한정하였으므로 근로형태별 차이는 분석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 신청확률 모두에서 저축은행 햅살론 이용자에서만 해당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저신용자 여부는 보증비율 수준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여부에 추가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6-11> 햄살론 보증비율 변화가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
세부 효과: 강건성 검정 II (2013년 9월~2014년 4월 시기 활용)

Logit 분석, 종속변수	대위변제		채무조정 신청 여부	
	(1)	(2)	(3)	(4)
설명변수				
90% 보증비율 (더미)	0.0822 (0.1747)	-0.3425** (0.1589)	0.0562 (0.2041)	-0.3590** (0.1796)
저축은행 x 90% 보증비율	-0.6864*** (0.1717)		-0.5107** (0.1998)	
저신용(7~10등급) x 90% 보증비율		-0.1755 (0.1471)		-0.0251 (0.1667)
저축은행 햄살론	0.1222 (0.1437)	-0.1562 (0.1226)	0.0690 (0.1626)	-0.1405 (0.1359)
저신용(7~10등급)		0.0604 (0.1387)		0.0052 (0.1578)
관측치	6,844	6,844	6,844	6,844
Pseudo R ²	0.0779	0.0762	0.0572	0.056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p<0.01$, $p<0.05$, $p<0.1$ 을 나타냄. 여성 더미, 연령, 로그연소득, 사업자 더미, 연평균 이자, 햄살론 대출량, 신용등급, 상수항, 대출 발급 시기별 고정효과와 지역별 고정효과 결과는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하였음.

자료: KCB 저신용 차주 표본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CB사에서 보유한 개인 신용자료와 햄살론 보증비율의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햄살론 보증비율이 낮을 때 채무자의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더 낮음을 분석하였다. 2012년 8월에 햄살론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변화한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증비율 85%가 적용된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95%의 더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에 비해 30%p 더 낮았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보증비율이 85%일 때 17%p 더 낮았다. 이를 통해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때 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신청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전심사 노력이나, 대위변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사 및 사후관리 노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호금융권보다는 대출모집인 기반의 저축은행에서 발급된 대출에서 확연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햅살론 대출횟수가 높을수록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낮아지며, 대출 발급액이 큰 것보다는 햅살론을 여러 번에 나누어 이용하는 것이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자비용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을 때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높아졌다.

상기의 분석 결과는 햅살론을 1회만 이용한 표본으로 조정한 분석에서나 근로자 햅살론의 보증비율이 95%에서 90%로 하향 조정된 다른 시기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보증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되면 금융기관이 정책상품을 소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햅살론과 같은 부분보증 상품에서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증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장

결론: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제3장에서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행태 변화를 기초 자료 분석으로 추적한 결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대출자들에게서는 금리부담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 은행 신용 대출 잔액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저금리 은행 신용 대출 잔액을 시간에 따라 점차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인 DTI는 햅살론 발급시기부터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또한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자금 이용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제3장의 후반에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전후 신용대출시장의 변화 추이를 개괄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으로 인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리부담이 낮아졌으며, 신용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채무조정제도의 감면율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일반 민간 신용대출시장은 물론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시장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 비중

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여전히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햅살론·새희망홀씨의 이용자와 유사한 미이용자 대조군을 성향점수 매칭기법을 활용하여 선정하고, 이중차분기법을 이용하여 미이용자 대비 정책상품 이용자의 경제적 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에서는 대출시점에는 평균금리가, 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미이용자 대조군에 비해 낮아졌다. 또한 정책상품 이용자의 카드지출액이 미이용자에 비해 높아져 완화된 차입제약으로 이용자의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미이용 대조군에 비하여 햅살론 이용자의 평균금리는 대출 1년 후부터,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대출 2년 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평균금리는 대출 6개월 이후부터,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대출 4년 후에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기대되는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장기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 특성별로 정책상품 이용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기존에 채무조정 신청 비중이 높은 저신용자에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 이후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컸다. 또한 기존의 총대출 평균금리가 높았던 차주에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 감소 효과, 신용점수 개선 효과 및 채무조정 신청 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정책서민상품의 궁정적 효과는 금리부담 완화에서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균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나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효과는 연소득이 높은 차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정책자금의 궁정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소득개선을 확보하기 위한 취업알선 등의 정책연계가 필요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이 대부업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2016년에 각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햅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미이용자에 비

해 정책자금 대출시점에 대부업 이용 확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비중을 줄였다. 또한 정책자금으로 인해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비중이 감소하는 효과는 햅살론 및 새희망홀씨를 발급받기 이전의 평균금리가 높아 금리부담이 높았던 차주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햅살론 대출 6개월 이후, 그리고 새희망홀씨 대출 2년 이후부터는 이용자들의 대부업 이용확률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이용금액이 오히려 미이용자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 특히 햅살론 이용자들은 정책자금 이용 직후 고금리 대출에 다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과도한 고금리 대출 이용을 방지하는 신용 상담 및 교육이 정책자금과 함께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햅살론 보증비율이 낮게 적용될 때 채무자의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더 낮아짐을 분석하였다. 과거 보증비율 85%가 적용된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에 비해 30%p 더 낮았으며,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보증비율이 85%일 때 17%p 더 낮았다. 이를 통해 보증비율 수준이 높으면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노력이 실제로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호금융권보다는 대출모집인 기반의 저축은행의 햅살론에서 확연하게 더 컸다. 따라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비율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햅살론 대출횟수가 많아질수록 대위변제 및 채무조정 발생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금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연체관리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제2절 정책제언

2010년 전후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도입된 이래로 10여 년이 경과하

면서, 국내 서민금융시장에는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다. 이자상한의 인하로 인해 서민의 고금리부담이 감소하였으며, 대부업체의 수도 감소하고, 채무조정제도의 감면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향후 서민금융정책의 방향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소외를 보완할 수 있는 형식의 정책상품은 일정 부분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법정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 대부업체 수 감소, 채무조정제도의 감면율 인상과 같은 제도 변화는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이 높은 채무자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신용대출 시장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110%, 100%로 적용되면서, 민간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억제되어 민간 서민금융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향후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영방식을 현재의 공급실적 확대와 지원금액 홍보에 주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채무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서민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대출시기 혹은 6개월 이내에서만 관찰되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 6개월 이후, 새희망홀씨 이용자는 대출 2년의 기간 안에 오히려 미이용자 대조군보다 고금리 대출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용관리교육 및 신용상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상품 이용자에게 대출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이 장기적으로 신용을 건전히 관리하고 고금리 대출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신용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판별하여, 과다 채무자들이 부채 상환을 위한 부채를 과도하게 누적시키

기 전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로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정책자금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500만원 단위 등으로 나누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의 신용관리와 자금 곤란 해소에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대출한도 내에서 상환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여러 차례 이용하도록 할 경우 일회적으로 대출한도를 소진시키는 것에 비해 채무자의 자금애로를 보다 장기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 또한 차후의 대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상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기제가 작동하므로 상환율을 높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모집인에 대해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2~3%대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첫 대출금액을 축소할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를 절감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햇살론 이용자의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 확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 햇살론의 생계·대환자금 90%, 운영·창업 95%의 보증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햇살론 보증비율을 출시 당시 수준인 85%로 인하한다면 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높은 채무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사후에 장기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다. 서민금융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용 상담 및 교육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구정한 · 이규복 · 이수진,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16.
- 구자현 · 오윤해 · 강우진, 『미소금융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 서민금융진흥원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9.
- 금융감독원,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2019. 12. 10.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보도자료, 2018. 12. 21.
- 금융위원회,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9. 7. 2.
- 금융위원회,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 12. 18.
- 김두얼 외, 『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적정한 운영방안』, 대법원 용역보고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박창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6권 제4호, 2008, pp.53~88.
- 남주하 · 김정렬 · 노맹석 · 김태영,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주요 사업 적정성 검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 노용환 · 이종욱 · 오승현 · 홍성철 · 강성호 · 조태근, 『2009년도 신용보증 성과분석 및 적정 운용배수 산출』, (사)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 오윤해, 『저소득 · 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3-08,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오윤해,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4-09,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윤상용 · 강만수 · 손희영, 「생존분석을 이용한 서민 정책금융의 신용위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7권, 2017, pp.27~40.
- 이성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7-12, 한국개발연구원, 2017.
- 장우현 · 양용현 · 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연구 보고서 2014-10,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최진배 · 김명록, 「금융협동조합은 서민금융정책에 적극적인가?」, 『협동조합경영

연구』, 2017.

통계청,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19. 11. 29.

KCB, 내부 자료, 2019. 12. 1.

Ariful, Choudhury Haque, Das Atanu, and Rahman Ashiqur, "The Effectiveness of Microcredit Programmes Focusing on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and Savings: Evidence from Bangladesh", *Journal of Competitiveness*, 9(2), 2017, pp.34~44.

Bhatt, Nitin and Shui-Yan Tang, "Determinants of Repayment in Microcredit: Evidence from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6, Issue 2, 2002.

Duflo, Esther, Abhijit Banerjee, Rachel Glennerster, and Ynthisia G. Kinnan, "The Miracle of Microfinance? Evidence from a Randomized Evaluation," NBER working paper, 2013.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접속일: 2019. 12. 1.

<자료>

KCB, 저신용 · 저소득 차주 표본 DB, 획득일: 2019. 11. 1.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이용자 DB, 획득일: 2019. 8. 8.

■ ABSTRACT

Analysis of Behavioral Patterns of Government-funded Microfinance Users

Yoon Hae Oh

Using data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from the Korea Credit Bureau (KCB), this study examines the long- and short-term impact of Korea's two representative political microcredit products: the Sunshine (Haetsal) Loan and New Hope Seed (Saehuimang Holssi, NHS) Loan.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impact of the guarantee ratio level of the Sunshine-Loan on borrowers' repayment capacity.

Around 2010, the interest rate for unsecured loans to borrowers with low credit scores (7 and below) was as high as 40%, and many were using predatory lending schemes that charge extremely high interest rates. To resolve the situa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put into operation political microcredit products for low-income, low-credit borrowers that charge lower interest than the market rate. But while there have been much criticism and speculation over the actual effects of these programs, they have not undergone any impact evaluations to examine whether those products should be sustained. In particular, the Sunshine-Loan suffers from a considerably high subrogation rate; making performance evaluations even more necessary.

In this context, Chapter 3 analyzes the long-term behavioral patterns of the borrowers of political microcredit products, including their average interest rates, cash advances, credit scores, credit card payments, and whether they filed for debt modification. It also summarizes how Korea's credit loan market has changed after the launch of political microcredit products.

In Chapter 4 and 5, to discern the causal effects of the provision of political

microcredit, this study constructed a control group of non-users who have similar traits to policy loan users through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echnique, and then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and performance of policy loans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DID) method. Specifically, Chapter 4 examines the various aspects of the borrowers of the Sunshine Loan and NHS Loan in 2012 and 2014, such as DTI, credit card expenditure, credit score, average interest rate, etc. Chapter 5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use of high-interest rate unsecured loans provided by private money lenders and savings banks among political microcredit borrowers in 2016.

Chapter 6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hange in the credit guarantee ratio on the probability of filing for subrogation or debt modification among the borrowers of the Sunshine Loan with a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The chapt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orrowers of the Sunshine Loan and NHS Loan show a larger increase in credit card expenditure than non-borrowers, meaning that the provision of microcredit can reduce borrowing constraints and encourage consumption. However, six months later, borrowers exhibit lower credit scores than non-borrowers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ir DTI ratio. Moreover, the likelihood of borrowers filing for debt modification decreases only for a short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other policy is needed for the borrowers of the Sunshine Loan and NHS Loan to support long-term credi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Chapter 5, the probability of taking out unsecured loans from private money lenders and savings banks was significantly low during the early period of loan issuance. But this increased dramatically, and even exceeded that of non-borrowers after six months among Sunshine-Loan borrowers and after two years among NHS-Loan borrowers. This reaffirms the necessity of a support policy for long-term credit management so that borrowers do not have to take out other loans that charge high interest rates.

The analysis results in Chapter 6 show that when the Sunshine Loan's credit guarantee ratio is low, the probability of subrogation and debt modification decreases. It is found that borrowers who are given a credit guarantee ratio of 85% are 30%p less likely to choose subrogation and 17%p less likely to file for debt modification, compared to those given a ratio of 95%. This means that a high credit guarantee ratio could actually weaken financial institutions' efforts such as ex-ante screening and ex-post monitor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re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upon. First, government-funded political microcredit need to be combined with credit management education and credit counseling to help borrowers to manage their credit scores on their own and in the long-term. Second, instead of simply taking out lump sums that are close to the borrowing limit at once, borrowers need to be encouraged to borrow multiple times, and only the amount they can repay at each time, which could help maintain the positive effects of public microcredit in the long-term. Additionally, this method is expected to slash the commission for loan agents and to help borrowers repay their debts on time. Third, the credit guarantee ratio for the Sunshine Loan, which is currently at 95%, needs to be lowered to below 85%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able to conduct ex-ante screening and ex-post monitoring in a comprehensive and timely manner.

KDI 신간안내

RECENT KDI PUBLICATION

대학 전공분야 선택과 정부의 역할

한요셉

연구보고서 | 크라운판 | 196쪽 | 정가 6,300원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 전공분야 선택 측면에서 교육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지닌 제도적 제약과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직면한 정보적 제약 등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

황순주

정책연구시리즈 | 크라운판 | 42쪽 | 정가 2,0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경제에서 금융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금융자원이 양적으로 확대되면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신용이 팽창하면 경제성장이 제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금융과 경제성장 사이에 봉우리형(inverse U-shaped)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측했고, 봉우리의 정점인 임계치의 수준도 발견하였다.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와 정책 결정

황수경

정책연구시리즈 | 크라운판 | 137쪽 | 정가 2,000원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구조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재분배 의식에 현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바, 본고에서는 실증적 접근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재분배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분배 선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주된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민



정책연구시리즈 | 크라운판 | 88쪽 | 정가 2,000원

본고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규수업시수 증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정규수업시수 증가가 학부모의 방과 후 시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황순주



연구보고서 | 크라운판 | 148쪽 | 정가 6,800원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인 틀을 기반으로 암묵적 지급보증의 문제를 조명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지급보증이 실제로 공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의 정부규율이나 시장 규율이 지급보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없음을 규명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연구를 통해 공공성과 재무건전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기업 부문에 특화된 베일인 제도와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를 고안, 제시하고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요셉



정책연구시리즈 | 크라운판 | 80쪽 | 정가 2,000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의 고용효과를 다양한 미시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엄밀한 학술적 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이어질 정년 연장의 효과를 예상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임원혁 외



연구보고서 | 크라운판 | 246쪽 | 정가 5,600원

민주주의적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 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 지형이 양극화되어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발호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경제학자의 관점을 통해 여론양극화의 양상과 기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KDI 도서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단, 비공개 자료 및 배포제한 자료는 제외)
- 본원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세미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발간된 연구보고서(인쇄물)를 KDI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구매하실 경우 10%의 가격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KDI 발간자료

- 단행본,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KDI 정책포럼, KDI FOCUS, 연구자료, 기타 보고서
- 월간 KDI 경제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Economic Bulletin, 나라경제
- 분기 한국개발연구, 부동산시장 동향
- 반년간 KDI 경제전망

• 연간 회비

- 개인회원 10만원
- 기관회원 30만원

• 가입방법

KDI 홈페이지에서 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회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좌입금: 우리은행 254-012362-13-113(예금주: 한국개발연구원)

그 외 신용카드 및 핸드폰으로 결제하시거나, 본원 도서1팀(발간자료 담당자)에 직접 회비를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중앙도서실 도서1팀 발간자료 담당

TEL (044) 550-4272 / FAX (044) 550-1310 / E-mail book@kdi.re.kr

• 판매처

- 교보문고(광화문점 정부간행물코너) TEL. (02) 397-3628
- 영풍문고(종로점 정치경제코너) TEL. (02) 399-5632

연구보고서 2019-06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분석

인 쇄 2019년 12월 27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저 자 오윤해

발행인 최정표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등 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 화 (044) 550-4114

팩 스 (044) 550-4310

© 한국개발연구원 2019

ISBN 979-11-5932-525-0

값 4,200원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